

各司膳錄  
각사등록  
역사기후  
황해도편 2  
자료집

黃海監營狀啓膳錄  
公文編案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 2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854년(철종 5)~1855년(철종 6)

1860년(철종 11)

1863년(철종 14)

1866년(고종 3)

1867년(고종 4)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888년(고종 25)~1889년(고종 26)

1899년(광무 3)

公文編案 52책, 1897년(광무 원년)~1898년(광무 2)



各司膳錄  
각사등록  
역사기후  
황해도편 2  
자료집

黃海監營狀啓膳錄  
公文編案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 목 차

일련번호	서기 / 왕력	등록(책)	각사등록(책)	쪽수
0275-0286	1854년 철종 5년	황해감영장계등록 11책	각사등록 23책	8
0287-0322	1855년 철종 6년	황해감영장계등록 12책	각사등록 23책	23
0323-0362	1860년 철종 11년	황해감영장계등록 14책	각사등록 23책	64
0363-0399	1863년 철종 14년	황해감영장계등록 15책	각사등록 23책	111
0400-0410	1866년 고종 3년	황해감영장계등록 17책	각사등록 23책	175
0411-0446	1867년 고종 4년	황해감영장계등록 17책	각사등록 23책	187
0447-0475	1888년 고종 25년	황해감영장계등록 20책	각사등록 24책	228
0476-0497	1889년 고종 26년	황해감영장계등록 20책	각사등록 24책	258
0498-0544	1899년 광무 3년	황해감영장계등록 21, 22책	각사등록 24책	282
0545	1897년 광무 원년	공문편안 75책		352
0546-0549	1898년 광무 2년	공문편안 52책		353





---

각사등록 역사기후 자료집  
황해도편 2

---

## 0275. 1854년(철종 5) 3월 22일(양력 4월 19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58b~158b) /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19a~119b)

臣巡到黃州牧, 道內農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臣行又自黃州牧, 歷過載寧·信川·安岳·文化, 方到殷栗縣, 而所經諸處, 詳細看審是白乎則, 秋麴·小麥, 漸次抽芽, 春麴已盡耕播, 早黍·粟方始播種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長連·延安·白川等九邑, 與臣所經過處, 一般無異是白乎旡, 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八邑, 秋麴·小麥, 今始抽芽, 春麴方張耕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乎所, 嗣後形止, 更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甲寅三月二十二日封.

저는 순시하며 황주목에 도착했습니다.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저의 행차는 또 황주목에서 채령·신천·안악·문화를 거쳐 막 은율현에 도착했습니다. 거쳐 온 여러 곳을 상세히 살펴보았더니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싹이 나왔고, 봄보리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으며, 올기장·올조는 막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장려·연안·배천 등 9개 고을은 제가 거쳐 온 곳과 별달리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8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갑인년 3월 22일 바침.

0276. 1854년(철종 5) 3월 29일(양력 4월 2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65c~165d) /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36a~136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日漸向長, 春麴方張立苗, 早黍·粟耕播垂畢, 晚黍·粟·唐稷, 間多播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 今始向青, 春麴間或出土, 早黍·粟過半耕種, 晚黍·粟·唐稷, 方始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甲寅三月二十九日封.

황해도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자라나고, 봄보리는 한창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그사이에 많이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갑인년 3월 29일 바침.

## 0277. 1854년(철종 5) 4월 10일(양력 5월 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69b~169c) /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44b~145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粃·小麥, 次第向茁, 春粃日漸向青, 早黍·粟間或立苗, 晚黍·粟·唐稷, 幾盡耕播, 早稻·木綿, 今始落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粃·小麥, 漸次向長, 春粃方張立苗, 早黍·粟耕播垂畢, 晚黍·粟·唐稷, 過半畊種, 早稻·木綿, 間或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各穀, 耕播立種之時, 彌月曠乾, 川渠渴涸, 畚庫段, 灌溉斷流, 注秧節晚, 田種段, 春秋粃·麥, 俱未茁長, 早晚黍·粟, 出土差遲, 言念民事, 誠爲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甲寅四月初十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이삭이 자랐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는 지금 씨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자라나고, 봄보리는 한창 싹이 돋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으며, 올벼·목화는 간혹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를 맞았는데, 한 달이나 가물어 시내와 도랑은 말랐고 논외의 경우 물을 대야 하는데 흐름이 끊겨서 못자리에 물을 대는 절기가 늦어졌고, 씨앗을 뿌린 밭의 경우, 봄가을 보리와 밀이 모두 다 이삭이 자라지 못했고, 올기장·올조·늦기장·늦조가 싹이 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지체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갑인년 4월 10일 바침.

0278. 1854년(철종 5) 4월 16일(양력 5월 10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1책(177b~177c) / 黃海監營狀啓謄錄 11책(166b~167a)

臣營下今四月十三日得雨二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得二犁, 康翎·襄津·松禾·安岳·延安等五邑, 得一犁, 白川·黃州得二鋤, 文化·殷栗·豐川·鳳山·金川·新溪等六邑, 得一鋤, 信川·湍塵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四月十五日申時, 又爲始雨, 或霏或灑. 至十六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甲寅四月十六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3일 내린 비가 2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2려가 내렸고, 강령·용진·  
송화·안악·연안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배천·황주는 2서가 내렸고, 문화·은율·풍천·  
봉산·금천·신계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신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5일 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축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갑인년 4월 16일 바침.

## 0279. 1854년(철종 5) 4월 20일(양력 5월 1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77d~178a) /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67b~168b)

今四月十三日海州等十五邑雨澤形止及十六日, 臣營下得雨一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三日之雨, 谷山得一犁, 長淵·平山·兔山·遂安等四邑, 得一鋤, 瑞興浥塵是如爲白乎旆, 十六日之雨, 襄津得二犁, 海州·康翎·文化·載寧等四邑, 得一犁. 長淵·豐川·信川·黃州·延安等五邑, 得二鋤. 松禾·安岳·長連·殷栗·鳳山·白川·金川·新溪·兔山·瑞興·遂安等十一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始或胚胎, 春麴今方茁長, 早黍·粟幾盡立苗, 晚黍·粟·唐稷, 間或出土, 早稻·木綿, 舉皆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 方張向茁, 春麴日漸向青, 早黍·粟今始立苗, 晚黍·粟·唐稷, 已盡耕種, 早稻·木綿及山田火粟, 次第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甲寅四月二十日封.

이번 4월 23일 해주 등 15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16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3일의 비로 곡산은 1려가 내렸고, 장연·평산·토산·수안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서흥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16일의 비로 웅진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문화·채령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연·풍천·신천·황주·연안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송화·안악·장련·은율·봉산·배천·금천·신계·토산·서흥·수안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은,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비로소 더러 알을 배고, 봄보리는 이제 막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였습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싹이 돋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 및 산전의 화속은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갑인년 4월 20일 바침.

0280. 1854년(철종 5) 4월 29일(양력 5월 25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79c~179c) /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71b~172a)

臣營下今四月二十八日酉時始雨, 間間霏微, 至亥時量雨雹交下, 雹雖旋止, 雨則連霑, 二十九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 而雹形大如鳥卵, 小如豆太, 當此各穀方苗之時, 稚莖弱苗, 不無受傷之慮. 言念民事, 誠爲悶然, 而列邑得雨形止, 被雹淺深,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甲寅四月二十九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8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다가 해시쯤에 이르러 우박이 어지러이 내렸는데 우박은 비록 바로 그쳤지만, 비는 연이어 주룩주룩 내리다가 29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우박의 모양은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팥만 했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막 이삭이 자라는 시기를 맞이하여 어린 줄기와 연약한 싹에 상처를 입을 염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각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와 우박 피해가 깊은지 얕은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갑인년 4월 29일 바침.



0281. 1854년(철종 5) 4월 29일(양력 5월 25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1책(179d~180a) / 黃海監營狀啓謄錄 11책(172b~173a)

道內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小麥, 今方發穗, 春粳始或胚胎, 早黍·粟初耘伊始, 晚黍·粟·唐稷, 幾盡立苗, 早稻·木綿, 間間立苗, 晚稻方張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小麥今方胚胎, 春粳日漸茁長, 早黍·粟已盡立苗, 晚黍·粟·唐稷, 今始出土, 早稻·木綿及山田火粟, 舉皆耕播, 晚稻次第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甲寅四月二十九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비로소 더러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싹이 돋았고, 늦벼는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알을 배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올벼·목화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고, 늦벼는 차례로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갑인년 4월 29일 바침.

## 0282. 1854년(철종 5) 5월 4일(양력 5월 30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82a~182b) /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77b~177b)

臣營下去四月二十九日雨雹形止及得雨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得一鋤. 松禾·黃州·瑞興·新溪·金川等五邑, 洽爲泥塵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伊日<之>雨雹, 乍作旋止, 無足爲災, 民事多幸是白乎旆, 餘外各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甲寅五月初四日封.

저의 감영에 지난 4월 24일 우박이 내린 경위 및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1서가 내렸고, 송화·황주·서흥·신계·금천 등 5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 하였습니다. 그날 우박은 잠깐 내리다가 바로 그쳐서 재앙이라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상 매우 다행입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갑인년 5월 4일 바침.

### 0283. 1854년(철종 5) 5월 10일(양력 6월 5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1책(183b~183c) / 黃海監營狀啓謄錄 11책(180a~180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間間入實, 春麴方張發穗, 早黍·粟初耘垂畢, 晚黍·粟·唐稷, 今方初耘, 早稻·木綿, 已盡立苗, 晚稻間或出土是如爲白乎脉,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 今方發穗, 春麴已盡胚胎, 早黍·粟方始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皆立苗, 早稻·木綿, 今始出土, 晚稻耕播垂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因雨澤稍闕, 田畝各穀, 不無惜乾之慮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甲寅五月初十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더러 알이 들었고, 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벼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이삭이 뻗고, 봄보리는 이미 다 알을 뻗고, 올기장·올조는 막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다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지금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늦벼는 땅을 갈고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즈음 우택이 조금 그쳐서 논밭의 각종 곡식에 가물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갑인년 5월 10일 바침.

## 0284. 1854년(철종 5) 5월 20일(양력 6월 15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84c~185a) /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83a~184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間或向熟, 春麴·小麥, 過半入實, 早黍·粟今方再耘, 晚黍·粟·唐稷, 已盡初耘, 早稻·木綿, 間間入鋤, 晚稻幾皆立苗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次第入實, 春麴·小麥, 舉皆發穗, 早黍·粟初耘垂畢,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初耘伊始, 早稻·木綿, 方張立苗, 晚稻今始出土. 而今月十四日酉時, 新溪·遂安, 微雨霏灑, 僅得浥塵. 十六日未時, 遂安·載寧·安岳, 驟雨暫霑, 遂安浥塵, 載寧得一鋤, 安岳段, 長令遠城兩坊, 雨雹交作, 一場霑下, 雨澤所得爲一鋤, 雹形大者如椽, 小者如太, 麴·麥穗穎摧靡, 木綿莖葉折落, 而所過處長爲二十里, 廣爲五里許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日亢旱頗甚, 毋論峽野, 田種段, 麴·麥間多枯損, 黍·粟不能苗長, 畚庫段, 引水處處斷流, 高燥在在乾涸, 移秧不無晚時, 付種亦多萎枯, 而新遂載岳四邑之乍雨滋潤, 未免蔑效, 安岳兩坊之雨雹, 雖有災害之淺深. 言念民事, 誠爲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甲寅五月二十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혹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절반 이상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이제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차례로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대부분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을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올벼·목화는 한창 싹이 돋고 있고, 늦벼는 지금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14일 유시에 신계·수안은 보슬비가 보슬보슬 내리거나 뿌렸는데 겨우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16일 미시에 수안·재령·안악은 소나기가 잠시 주룩주룩 내렸는데 수안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고 재령은 1서가 내렸습니다. 안악의 경우 장령방·원성방 두 방에 비와 우박이 어지러이 한바탕 쏟아졌는데 우택의 경우 내린 것은 1서가 내렸고, 우박의 모양은 큰 것은 도토리만 하고 작은 것은 콩만 했고, 보리·밀 중 이삭이 영근 것은 문드러졌고, 목화는 줄기와 잎사귀가 부러졌습니다. 지나간 곳은 길이는 20리, 너비는 5리가량이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즘 가뭄이 자못 심하여 골짜기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밭에 씨앗을 뿌린 경우, 보리·밀은 그사이에 말라 손상을 입은 것이 많고 기장·조는 이삭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논외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곳곳마다 흐름이 끊겼고 높은 곳은 곳곳마다 메말랐고, 모내기는 때가 늦지 않은 것이 없었고, 벼씨를 뿌린 무논은 또한 말라 시든 것이 많습니다. 신계·수안·재령·안악 4개 고을은 잠깐 비가 내려 젖었지만, 효과가 없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안악의 두 방에 내린 비와 우박으로 비록 재해에 얕고 깊은 차이가 있지만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입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갑인년 5월 20일 바침.

## 0285. 1854년(철종 5) 5월 23일(양력 6월 18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85b~185b) / 黃海監營狀啓臚錄 11책(184b~184b)

道內安岳郡被雹形止, 前此農形狀啓中, 已爲備陳是白有在果. 卽接黃州牧使沈明奎牒報內, 今五月十七日午時, 本州天柱·敬天·高井等三坊, 雨雹暴霍旋止, 大如鷄卵, 小如鳥卵, 麩·麥舉皆摧折, 木綿之穉莖, 撲傷無形, 便成赤地, 黍·粟·唐稷之方苗, 過半傷損, 而所過處長爲二十五里, 廣爲十里許是如. 牒呈是白置有亦. 霎時被災, 若是孔慘. 言念民事, 極爲矜悶是白如乎, 以相當各穀, 趁卽代播, 毋至全廢之意, 措辭申飭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甲寅五月二十三日封.

황해도 내 안악군에 우박 피해를 입은 경위는 이에 앞서 보고한 농사 상황에서 이미 갖추어 아뢰었습니다. 방금 접수한 황주 목사 심명규의 문서 보고 내용에, “이번 5월 17일 오시에 본 황주목의 천주방·경천방·고정방 등 3개 방에 우박이 갑자기 쏟아지다가 곧바로 그쳤는데, 큰 것은 달걀만 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였습니다. 보리·밀은 거의 모두 꺾였고 목화의 어린줄기는 얼어맞아 손상되어 모습이 없을 정도로 바로 황폐해졌습니다. 막 자란 기장·조·수수 등 절반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지나간 곳의 길이는 25리이고 너비는 10리가량이었습니다.”

라고 문서 보고 하였습니다. 삼시간에 입은 재해가 이처럼 참혹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상당한 각종 곡식으로 제때 대신 씨앗을 뿌려 전부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단단히 지시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갑인년 5월 23일 바침.

## 0286. 1854년(철종 5) 5월 29일(양력 6월 24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1책(188c~188d) / 黃海監營狀啓謄錄 11책(191b~192b)

道內農形悶旱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見今夏至已過, 終靳一霈, 無論峽野, 田種各穀, 間多萎枯, 水付秧坂, 舉皆龜坼, 目下民情, 萬萬遑急乙仍于, 各邑祈雨祭, 不卜日設行之意, 發關分付是白遣, 海州牧段, 今五月二十九日先自社稷壇設行定計是白加尼, 臣營下今二十七日亥時始雨, 或霏或灑, 二十九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九分, 而姑未開霽是白如乎, 祈雨祭段, 第觀所得之多寡, 以爲進退是白乎旆, 文化·信川·長淵·延安等四邑, 今二十六日爲始設行. 康翎·松禾·白川·平山等四邑, 今二十七日爲始設行是如. 次第報來是白遣,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已盡□□, 方張刈取, 春粳·小麥, 次第向熟, 早黍·粟□□082□耘, 晚黍·粟·唐稷, 今方再耘, 早7稻·木綿, □. □草, 晚稻初耘伊始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舉皆向熟, 春粳·小麥, 幾盡入實是□□□方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初□□□, 早稻·木綿, 間或入鋤, 晚稻今始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一旱彌月, 百穀如恢, 別無高燥汚下之此優彼劣是白加尼, 際此甘雨, 雖未霈洽, 誠爲萬幸, 而嗣後農形及列邑得雨形止, 霽祭設行與否,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甲寅五月二十九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이 가뭄으로 걱정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끝내 한 차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밭에 씨앗을 뿌린 각종 곡식은 그사이 대부분 시들어 말랐다. 벼씨를 뿌린 못자리 는 거의 다 거북 등처럼 갈라졌습니다. 눈앞의 백성들 정황은 매우 황급하여 각 고을에서 는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말고 시행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 분부하였습니다. 문화·신천·장연·연안 등 4개 고을은 이번 26일 처음 시행했고, 강령·송화·배천·평산 등 4개 고을은 이번 27일에 처음 시행했다고 차례로 보고가 왔습니다. 해주목의 경우 이번 5월 29일 먼저 사직단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7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9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이었고 아직 개지 않았습니다. 기우제의 경우, 다만 비가 내린 많고 적음을 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익어갔고, 올기장·올조는 □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 □□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초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간혹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지금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한번 든 가뭄이 한 달이 되어 온갖 곡식은 불탄 듯한데,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이곳이 좋고 저곳이 나쁘다는 것은 별달리 없었습니다. 이즈음 단비가 흠족하게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와 기우제를 시행한 여부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갑인년 5월 29일 바침.



## 0287. 1855년(철종 6) 4월 22일(양력 6월 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89b~189c)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b~2a)

今四月二十日臣赴任之路, 到金川郡, 當日午時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未時乃止, 營下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是白乎旆. 農形段, 金川·白川·延安·順川等四邑, 臣經過看審是白乎, 則秋牟舉皆發穗, 春牟小麥已盡胚胎, 早黍·粟初耘過半, 晚黍·粟·唐稷初耘伊始, 早稻·木綿幾盡立苗, 晚稻次第出土是白乎旆. 連接各邑所報, 則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等十邑, 與臣所經過處, 一般無異是白遣,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平山等九邑, 秋牟今方發穗, 春牟小麥間或胚胎, 早黍·粟今始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張立苗, 早稻·木綿方始出土, 晚稻已盡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列邑雨澤及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四月二十二日封.

이번 4월 20일 제가 부임하는 길에 금천군에 도착했는데, 그날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미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감영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금천·배천·연안·순천 등 4개 고을은 제가 지나오면서 살펴보았더니 가을보리는 대부분 이삭이 패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알을 맺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 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벼는 차례로 싹이 땅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 등 10개 고을은 제가 지나쳐 온 곳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 등 9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봄보리·봄밀은 간혹 알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한창 싹이 돋고 있고, 올벼·목화는 막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늦벼는 이미 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및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4월 22일 바침.

0288. 1855년(철종 6) 4월 25일(양력 6월 9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90c~190c)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4a~4b)

臣營下今四月二十二日得雨二寸七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康翎·襄津·信川·文化·長連·瑞興·平山·新溪·兔山等十邑，川渠漲滿，長淵·松禾·豐川·載寧·殷栗·安岳·延安·白川·金川等九邑，得二犁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四月二十四日未時，驟雨又爲霍下，旋即開霽，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四月二十五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2일 내린 비가 2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신천·문화·장려·  
서흥·평산·신계·토산 등 10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장연·송화·풍천·재  
령·은율·안악·연안·배천·금천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4일 미시에 소나기가 또 주룩주룩 내리다가 곧바로 날이 갠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  
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4월 25일 바침.

0289. 1855년(철종 6) 4월 29일(양력 6월 13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90d~191a)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5a~5a)

今四月二十二日海州等十九邑雨澤形止及二十四日臣營下得雨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二日之雨, 遂安川渠漲流, 黃州得二犁, 鳳山·谷山得一犁, 二十四日之雨, 海州·安岳·新溪等三邑, 得一犁是如爲等如, 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乙卯四月二十九日封.

이번 4월 22일 해주 등 19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24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2일의 비로 수안은 시내와 도랑은 불어나 흘렀고, 황주는 2려가 내렸고, 봉산·곡산은 1려가 내렸고, 24일의 비로 해주·안악·신계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4월 29일 바침.

## 0290. 1855년(철종 6) 5월 1일(양력 6월 14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92b~192b)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7b~8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間間入實, 春麴·小麥方張發穗, 早黍·粟再耘伊始, 晚黍·粟·唐稷初耘過半, 早稻·木綿間或入鋤, 晚稻今方立苗是如爲白乎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舉皆發穗, 春麴·小麥幾盡胚胎, 早黍·粟初耘垂畢,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已盡立苗, 早稻·木綿次第立苗, 晚稻始或出土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五月初一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절반 이상 했고, 올벼·목화는 간혹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이제 막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대부분 이삭이 났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알을 났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싹이 돋았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5월 1일 바칩.

## 0291. 1855년(철종 6) 5월 11일(양력 6월 24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93c~193d)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0b~11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已盡入實, 春麴·小麥舉皆發穗, 早黍·粟次第再耘, 晚黍·粟·唐稷初耘垂畢, 早稻·木綿過半初除草, 晚稻已盡立苗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間間入實, 春麴·小麥今方發穗, 早黍·粟再耘伊始,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張初耘, 早稻·木綿今始初除草, 晚稻幾盡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五月十一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알이 들었고, 봄보리·봄밀은 이제 막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는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5월 11일 바침.

## 0292. 1855년(철종 6) 5월 13일(양력 6월 26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194a~194c)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11b~12b)

今五月初四日驟雨, 新溪得一犁, 兔山·信川得一鋤, 平山·金川浥塵, 而瑞興段, 雨雹交下, 大如鳥卵, 小如大豆, 木甘中部梅陽等三坊, 酷被災損, 毋論粳·麥·黍·粟與木花, 長穗舉皆摧折, 穉苗亦盡傷損, 更無成就之望, 長爲九十里, 廣或爲十里, 或爲七里許, 而遠近摘奸之際, 自致遲滯, 今始修報是如是白遣. 殷栗段, 雨雹大如棗栗, 南面坊被災處, 兩麥如被鞭朴, 黃落田畝, 全無刈穫之望, 黍·粟·木花沒數莖折, 難望蘇醒, 今方別遣摘奸, 更爲修報計料是如是白遣. 鳳山段, 雨雹大如鳥卵, 山水坊偏被災損, 粳·麥·黍·粟·豆太·木花撲落摧折, 便同掃如, 初五日沙院坊大雨急雹, 山水暴至, 頃刻之間, 陵谷變遷, 田畚盡入於懷襄之中, 或成川浦落, 或移石覆沙, 永爲廢棄者居多, 潰垆破堰, 一望無際, 郡守摘奸次出往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各穀茁長之時, 雹災雨損, 俱極驚悶乙仍于, 亦自臣營定送編裨, 被災淺深延袤幾許, 使之摘奸是白遣, 臣營下今十二日戌時始雨, 或霪或灑, 至十三日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三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殷栗·鳳山被災淺深,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五月十三日封.

이번 5월 초4일 소나기로 신계는 1려가 내렸고, 토산·신천은 1서가 내렸고, 금천·평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습니다. 서흥은 우박이 어지러이 내렸는데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콩알만 하였습니다. 목감·중부·매양 등 3개 방은 재해로 손상을 혹독하게 입어, 보리·밀·기장·조와 목화를 따질 것 없이 길게 자란 이삭은 거의 모두 부러졌으며 어린 모는 또한 거의 손상되어 다시 여물 가망이 없습니다. 길이는 90리이고 너비는 더러 10리, 더러 7리가량이라고 합니다. 멀고 가까운 곳을 캐볼 즈음에 자연 지체되어 지금 비로소 작성해 보고했다고 합니다. 은율의 경우,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는 대추나 밤만 했고, 남면방 중 재해를 입은 곳은 보리와 밀이 채찍을 맞은 듯 밭이랑에 누렇게 떨어져서 베어 수확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기장·조·목화는 모든 줄기가 꺾어져 살아날 가망이 어렵습니다. 지금 막 별도로 파견해 캐보고 다시 작성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봉산의 경우,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새알만 했고 산수방쪽이 유독 재해를 입었는데, 보리·밀·기장·조·콩·팥·목화는 떨어지거나 꺾였는데 마치 비로 쓴 것 같았습니다.

초5일 사원방에 큰비가 갑자기 주룩주룩 내려 산의 물이 사납게 이르렀는데 짧은 순간에 언덕과 골짜기 변했고 논밭은 모두 홍수 속에 들어가서 더러 논밭이 시내가 되고 두둑이 떨어져 나갔고 더러 돌을 옮기거나 모래로 덮여 영원히 폐기된 것이 대부분이고 독이 터지고 제방이 파괴되어 아득히 멀고 넓게 되어 군수가 캐보려고 나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각종 곡식이 이삭이 나와 자라날 시기에 우박의 재해와 비의 손상을 입어 모두 놀랍고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 저의 감영도 비서를 선정해 보내 재해를 입은 것이 얇은지 깊은지, 넓이가 얼마인지를 캐보게 하였습니다. 신의 감영에 이번 12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면서 13일 사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은율·봉산에 재해 입은 것이 얇은지 깊은지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5월 13일 바침.



### 0293. 1855년(철종 6) 5월 18일(양력 7월 1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195b~195b)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14a~14b)

臣營下今五月十二三日得雨一寸三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延安·文化·新溪等四邑, 得一犁, 白川得二鋤, 兔山·金川·鳳山·瑞興·載寧等五邑, 得一鋤, 康翎·平山·湍塵是如爲白乎旆. 臣營下自今月十六日寅時, 又爲始雨, 或霏或灑, 十八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七寸一分, 而尙此霏微不霽是白如乎, 屢日浸淫, 風霾兼作, 粃·麥有未穫之歎, 黍·粟有消瀝之慮, 民事悶然是白乎旆,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五月十八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2·13일 내린 비가 1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연안·문화·신계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배천은 2서가 내렸고, 토산·금천·봉산·서흥·재령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강령·평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6일 인시부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1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면서 개이지 않습니다. 여러 날 축축이 젖었고 바람과 흠비가 함께 일어나니 보리와 밀은 거두지 못할까 하는 탄식이 있고 기장과 조는 녹아 없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백성의 사정상 걱정입니다. 여러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5월 18일 바침.

0294. 1855년(철종 6) 5월 19일(양력 7월 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95b~195c)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4b~14b)

臣營下今五月十八日卯時至雨澤形止，已爲馳啓爲白有在果。自同日未時，又復霏灑，酉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而一向雲陰，至十九日申時量開霽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乙卯五月十九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8일 묘시까지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같은 날 미시부터 또다시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그런데 줄곧 먹구름이 끼었다가 19일 신시쯤에 이르러 개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5월 19일 바침.

## 0295. 1855년(철종 6) 5월 21일(양력 7월 4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195c~195d)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14b~15b)

今五月十二三日之雨, 海州等十二邑雨澤及臣營下自今月十六日至十八日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十二三日之雨, 安岳得一犁, 信川·黃州·遂安·長連等四邑, 得一鋤, 十六日至十八日之雨, 海州·康翎·延安·文化·瑞興·長淵·長連等七邑, 大小川渠, 無不漲流, 襄津·平山·金川等三邑, 得二犁是如爲白乎旡.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已盡成熟, 間或刈取, 春粳·小麥幾皆成熟, 早黍·粟三耘方始, 晚黍·粟·唐稷次第再耘, 早稻·木綿初耘垂畢, 晚稻過半初除草, 秧苗幾盡移插, 間或立苗是如爲白乎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幾盡成熟, 春粳·小麥次第向熟, 早黍·粟舉皆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再耘伊始, 早稻·木綿方張初耘, 晚稻始或入鋤, 秧苗今方移插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列邑雨澤及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五月二十一日封.

이번 5월 12·13일의 비로 해주 등 12개 고을의 우택 및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6일부터 18일까지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2·13일의 비로 안악은 1려가 내렸고, 신천·황주·수안·장련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의 비로 해주·강령·연안·문화·서흥·장연·장련 등 7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흐르지 않는 것이 없고, 웅진·금천·평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익어 간혹 베어 거두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익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막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했고, 벳모는 거의 다 옮겨 심었는데 간혹 싹이 돋는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익었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울벼·목화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김매기를 하고, 벳모는 이제 막 옮겨 심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고을의 우택 및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5월 21일 바침.

0296. 1855년(철종 6) 5월 23일(양력 7월 6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196a~196b)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16a~16b)

今五月十八日至海州等十邑得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松禾·豐川·信川·安岳·殷栗·載寧·黃州·遂安·谷山·兔山·鳳山等十一邑, 舉皆川渠漲滿, 新溪·白川得二犁是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潦過濫, 汚下之田, 未免沈墊, 傍川之畝, 率多埋覆, 黍·粟則鋤役愆期, 牟麥則折仆生芽是白如乎, 各穀之受損非細, 民事誠爲悶然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五月二十三日封.

이번 5월 18일까지 해주 등 10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송화·풍천·신천·안악·은율·재령·황주·수안·곡산·토산·봉산 등 11개 고을은 거의 다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신계·배천은 2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장맛비가 지나쳐서 낮은 지대의 밭은 물에 잠기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냇가 밭이랑은 대부분 물혔습니다. 기장·조의 경우 김매기는 시기가 지체되었고, 밀과 보리의 경우 어린싹이 끊어지고 넘어져서 각종 곡식이 받은 손상이 적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상 정말로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5월 23일 바침.

0297. 1855년(철종 6) 5월 25일(양력 7월 8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96c~196d)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7a~17b)

臣營下今五月二十四日午時始雨，或灑或霏，至亥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五月二十五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24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부슬부슬 내리다가 해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5월 25일 바침.

0298. 1855년(철종 6) 5월 30일(양력 7월 13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196d~196d)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17b~17b)

臣營下今五月二十四日得雨一寸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鳳山·長連等三邑, 得二犁,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殷栗·黃州·遂安·谷山·平山·新溪·延安·金川等十六邑, 得一犁, 瑞興·載寧·白川·冤山等四邑, 得二鋤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乙卯五月三十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24일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봉산·장련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은율·황주·수안·곡산·평산·신계·연안·금천 등 1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흥·재령·배천·토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5월 30일 바침.

## 0299. 1855년(철종 6) 6월 1일(양력 7월 14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99a~199b)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2a~22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春麴·小麥幾盡刈穫, 早黍·粟三耘幾畢, 晚黍·粟·唐稷今始三耘, 早稻·木綿次第再耘, 晚稻始或再鋤, 秧苗已盡立苗, 豆·太·木麥方張耕播是如爲白乎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已皆收穫, 春麴·小麥今方刈取, 早黍·粟三耘伊始,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過半再耘, 早稻·木綿間或再耘, 晚稻既盡初耘, 秧苗間或立苗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苦雨頻仍, 陰霾殆近二旬, 田種各穀, 久不見日, 既穫之麴·麥, 太半無實, 方茂之木綿, 間有萎枯, 豆太則耕種差晚, 黍·粟則消灑間多, 言念民事, 誠切悶然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六月初一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베어 거두었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제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두벌 김매기를 하고, 벳모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콩·팥·메밀은 한창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모두 수확했고, 봄보리·봄밀은 이제 막 베어 거두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했고, 모는 간혹 싹이 돋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에 괴로운 비가 자주 내렸고, 흙먼지가 거의 20일인데 밭에 뿌린 각종 곡식은 오랫동안 해를 보지 못해 이미 거두었던 보리·밀은 대부분 알맹이가 없었고 막 무성했던 목화는 간혹 시들어 말랐고, 콩·팥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일은 조금 늦어졌고, 기장·조는 녹은 것이 그사이에 많았습니다. 백성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6월 1일 바침.

0300. 1855년(철종 6) 6월 8일(양력 7월 21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99b~199c)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3a~23a)

臣營下今六月初七日亥時始雨，或霏或灑，至初八日巳時乃止，測雨器水深爲三寸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六月初八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7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사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6월 8일 바침.

### 0301. 1855년(철종 6) 6월 11일(양력 7월 24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199c~200a)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3b~24a)

臣營下今六月初八日得雨三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信川·安岳等三邑, 得二犁, 康翎·襄津·文化·殷栗·載寧·延安·白川等七邑, 得一犁, 松禾·鳳山·平山等三邑, 得二鋤, 兔山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方胚胎, 晚黍·粟·唐稷已盡三耘, 早稻·木綿三耘伊始, 晚稻幾盡再耘, 秧苗初耘垂畢, 豆·太·木麥舉皆立苗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春粳·小麥已盡刈穫, 早黍·粟幾皆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今始三耘, 早稻·木綿過半再耘, 晚稻間或再耘秧苗方張入鋤, 豆·太·木麥次第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六月十一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8일 내린 비가 3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신천·안악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강령·웅진·문화·은율·재령·연안·배천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송화·봉산·평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토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알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늦벼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했고, 모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콩·팥·메밀은 대부분 싹이 돋았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베어 거두었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했고, 벳모는 한창 김매기를 하고 있고, 콩·팥·목화는

차례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  
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6월 11일 바침.

0302. 1855년(철종 6) 6월 15일(양력 7월 28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200a~200a)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24a~24a)

今六月初八日之雨, 海州等十四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連川渠漲滿, 黃州·新溪·金川等三邑, 得一犁, 長淵·豐川得二鋤, 瑞興·遂安·谷山等三邑, 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乙卯六月十五日封.

이번 6월 초8일의 비로 해주 등 14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련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황주·신계·금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연·풍천은 2서가 내렸고, 서흥·수안·곡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6월 15일 바침.

### 0303. 1855년(철종 6) 6월 21일(양력 8월 3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00c~200d)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5b~25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幾盡發穗, 晚黍·粟·唐稷方張胚胎, 早稻·木綿過半三耘, 晚稻三耘伊始, 豆·太·木麥今方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舉皆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三耘垂畢, 早稻·木綿間或三耘, 晚稻過半再耘, 豆·太·木麥幾皆立苗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六月二十一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알을 배고 있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콩·팥·목화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알을 났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간혹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벼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6월 21일 바침.

0304. 1855년(철종 6) 6월 22일(양력 8월 4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200d~200d)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25b~26a)

臣營下今六月二十一日丑時始雨, 或霏或灑, 至二十二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七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六月二十二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1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6월 22일 바침.

### 0305. 1855년(철종 6) 6월 26일(양력 8월 8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00d~201a)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6a~26a)

臣營下今六月二十一二日得雨四寸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襄津·信川·延安·平山等六邑, 川渠漲滿, 金川得二犁, 長湍·松禾·白川·兔山等四邑, 得一犁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各邑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六月二十六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1·22일에 내린 비가 4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신천·연안·평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천은 2려가 내렸고, 장연·송화·배천·토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6월 26일 바침.



0306. 1855년(철종 6) 6월 28일(양력 8월 10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201a~201b)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26b~27a)

今六月二十一二日之雨, 海州等十一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文化·黃州·鳳山·遂安·谷山等五邑, 川渠漲滿, 安岳·殷栗·新溪等三邑, 得二犁, 豐川·長連·載寧·瑞興等四邑, 得一犁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乙卯六月二十八日封.

이번 6월 21·22일의 비로 해주 등 11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문화·황주·봉산·수안·곡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안악·은율·신계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풍천·장려·재령·서흥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했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6월 28일 바침.

### 0307. 1855년(철종 6) 6월 30일(양력 8월 1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01b~201c)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7a~27a)

臣營下今六月三十日丑時始雨, 或霏或灑, 至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是白如乎, 列  
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六月三十日封.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30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  
니다.

을묘년 6월 30일 바침.

### 0308. 1855년(철종 6) 7월 1일(양력 8월 13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204c~204d)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33b~34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方入實, 晚黍·粟·唐稷幾皆發穗, 早稻始或胚胎, 木綿間間起花, 晚稻三耘垂畢, 豆·太·木麥幾盡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方張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次第胚胎, 早稻·木綿過半三耘, 晚稻三耘伊始, 豆·太·木麥間或入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七月初一日封.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올벼는 비로소 더러 알을 배고, 목화는 간간이 꽃이 피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김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차례로 알을 배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매기를 했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간혹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7월 초1일 바침.

### 0309. 1855년(철종 6) 7월 4일(양력 8월 1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04d~205a)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34a~34b)

臣營下去六月三十日得雨二寸三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川渠微漲, 海州得二犁, 信川·新溪·康翎等三邑, 得一犁, 白川·文化得二鋤, 黃州·襄津·松禾·鳳山·瑞興·平山·延安等七邑, 得一鋤, 而風猛雨急, 田畝各穀, 舉皆受損, 向熟之黍·粟, 間有脫落, 胚胎之禾稻, 亦多回項, 豆太, 則翻莖, 木綿則顛落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目下民事, 誠切悶然是白乎旆. 臣營下今七月初三日寅時, 又爲始雨, 至初四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七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乙卯七月初四日封.

저의 감영에 지난 6월 30일 내린 비가 2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은 시내와 도랑이 약간 불어났고, 해주는 2려가 내렸고, 신천·신계·강령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배천·문화는 2려가 내렸고, 황주·웅진·송화·봉산·서흥·평산·연안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습니다. 바람이 사납고 비가 급하게 내려 논밭의 각종 곡식은 대부분 손상을 입었습니다. 익어가던 기장·조는 그사이에 떨어졌고 알을 뱀 벼도 또한 고개가 돌아간 것이 많고, 콩·팥은 줄기가 뒤집혔고, 목화는 다래가 떨어졌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눈앞의 백성들 사정은 정말로 매우 걱정입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3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4일 축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을묘년 7월 초4일 바침.

### 0310. 1855년(철종 6) 7월 4일(양력 8월 16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204d~205a)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34a~34b)

臣營下去六月三十日得雨二寸三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川渠微漲, 海州得二犁, 信川·新溪·康翎等三邑, 得一犁, 白川·文化得二鋤, 黃州·襄津·松禾·鳳山·瑞興·平山·延安等七邑, 得一鋤, 而風猛雨急, 田畝各穀, 舉皆受損, 向熟之黍·粟, 間有脫落, 胚胎之禾稻, 亦多回項, 豆太, 則翻莖, 木綿則顛落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目下民事, 誠切悶然是白乎旃. 臣營下今七月初三日寅時, 又爲始雨, 至初四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七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 6월 30일에 내린 비가 2치 3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해주는 2려가 내렸고, 신천·신계·강령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배천·문화는 2서가 내렸고, 황주·웅진·송화·봉산·서흥·평산·연안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는데, 바람이 사납고 비가 세차서 논밭의 각종 곡식은 대부분 손상을 입었고, 익어가던 기장과 조는 그사이 에 떨어진 것이 있고, 이삭을 땀 벼도 또한 이삭이 돌아가고, 콩과 팥은 뿌리가 뒤집히고, 목화는 다래가 떨어졌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눈앞의 백성들 사정은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7월 초3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4일 축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11. 1855년(철종 6) 7월 8일(양력 8월 20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05a~205b)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34b~35a)

去六月三十日之雨，遂安等十四邑得雨形止及臣營下今七月初三日得雨緣由，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三十日之雨，豐川得一犁，長淵·殷栗·載寧·金川等四邑，得二鋤，谷山·兎山·安岳·長連等四邑，得一鋤，而豐川·長淵·殷栗·載寧等四邑，疾風急雨，田種畚稼，多被傷損是如爲白乎旆。初三日之雨，海州·康翎·松禾·信川·文化·載寧·瑞興·新溪·金川·延安·長連·長淵·豐川·平山等十四邑，川渠漲滿，襄津·安岳·黃州·白川等四邑，得二犁，殷栗·谷山·遂安等三邑，得一犁，鳳山·兎山得二鋤是如。爲等如，牒呈爲白有等以。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6월 30일의 비로 수안 등 14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3일에 내린 비의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30일의 비로 풍천은 1려가 내렸고, 장연·은율·재령·금천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곡산·토산·안악·장려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는데, 풍천·장연·은율·재령 등 4개 고을은 거센 바람과 세찬 비로 밭곡식과 논이 벼는 손상된 것이 많다고 합니다. 초3일의 비로 해주·강령·송화·신천·문화·재령·서흥·신계·금천·연안·장려·장연·풍천·평산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웅진·안악·황주·배천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은율·곡산·수안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봉산·토산은 2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12. 1855년(철종 6) 7월 11일(양력 8월 23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05d~206a)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36a~36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始向熟, 晚黍·粟·唐稷次第入實, 早稻舉皆發穗, 木綿方始結穎, 晚稻幾皆胚胎, 豆·太·木麥已盡再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今方入實,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張發穗, 早稻舉皆胚胎, 木綿間間起花, 晚稻三耘已畢, 豆·太·木麥再耘伊始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알이 들고, 올벼는 대부분 이삭이 났고, 목화는 막 다래를 맺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거의 다 알을 났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벼는 대부분 알을 났고, 목화는 간간이 꽃이 피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13. 1855년(철종 6) 7월 21일(양력 9월 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14b~214b)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57a~57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刈穫, 晚黍·粟·唐稷次第向熟, 早稻間或入實, 木綿幾盡結顆, 晚稻今方發穗, 豆·太·木麥始爲起花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今始向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幾皆入實, 早稻方始發穗, 木綿次第起花, 晚稻間間胚胎, 豆·太·木麥過半再耘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수확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익어가고, 올벼는 간혹 알이 들고, 목화는 거의 다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꽃이 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올벼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늦벼는 간간이 이삭을 배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14. 1855년(철종 6) 7월 25일(양력 9월 6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214b~214c)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57b~57b)

臣營下今七月二十五日丑時始雨，或霏或灑，至未時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25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15. 1855년(철종 6) 8월 1일(양력 9월 11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16b~216c)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61b~62a)

去七月二十五日臣營下得雨二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甕津·松禾川渠漲滿, 海州·長淵·文化·載寧等四邑, 得二犁, 康翎·延安得一鋤是如爲白乎旡.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已盡刈穫, 晚黍·粟·唐稷方張刈取, 早稻漸次入實, 木花今始綻綿, 晚稻過半發穗, 豆·太·木麥次第起花是如爲白乎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今方刈取,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幾皆向熟, 早稻幾盡發穗, 木綿方始結穎, 晚稻間或發穗, 豆·太·木麥再耘垂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7월 25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2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웅진·송화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해주·장연·문화·재령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강령·연안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베어 수확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올벼는 점차 알이 들고, 목화는 지금 솜이 터지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절반 이상 이삭이 났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꽃이 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다 익어가고, 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막 다래를 맺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16. 1855년(철종 6) 8월 6일(양력 9월 16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216d~216d)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62a~62b)

去七月二十五日襄津等八邑雨澤形止，已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信川·安岳·長連·殷栗·豐川·黃州·鳳山等七邑，得二犁，瑞興·遂安·谷山等三邑，得一犁，白川·金川·平山·新溪·冤山等五邑，得一鋤是如。爲等如，牒呈爲白有等以。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지난 7월 25일 웅진 등 8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신천·안악·장린·은율·풍천·황주·봉산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서흥·수안·곡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배천·금천·평산·신계·토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17. 1855년(철종 6) 8월 8일(양력 9월 18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17a~217a)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63a~63a)

臣營下今八月初七日辰時始雨, 或霏或灑, 至初八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是白如  
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초7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8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18. 1855년(철종 6) 8월 11일(양력 9월 21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17a~217b)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63a~63b)

臣營下今八月初七日得雨一寸六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淵·延安得二犁, 海州·康翎·信川·安岳·鳳山·新溪等六邑, 得一犁, 瑞興得一鋤是如爲白乎. 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晚黍·粟·唐稷幾盡刈穫, 早稻次第向熟, 木綿間摘取, 晚稻今始入實, 豆·太·木麥始或結穀是如爲白乎. 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舉皆收穫,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始刈取, 早稻間或入實, 木綿已盡結顆, 今始綻綿, 晚稻幾盡發穗, 豆·太·木麥方張起花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초7일에 내린 비가 1치 6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연·연안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신천·안악·봉산·신계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흥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고, 올벼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간간이 따서 거두고, 늦벼는 지금 알이 들기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더러 꼬투리를 맺는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수확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막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고, 올벼는 간혹 알이 들고, 목화는 이미 다 다래를 맺었는데 지금 솜이 터지기 시작했고, 늦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콩·팥·메밀은 한창 꽃이 피고 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19. 1855년(철종 6) 8월 15일(양력 9월 25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17c~217c)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64a~64a)

今八月初七日長淵等九邑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谷山得一犁, 襄津·載寧·黃州·龜山·白川·金川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八月十二日丑時, 又爲始雨, 或灑或霖, 至十五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一分是白如乎. 當此各穀向熟之際, 冷雨頻仍, 入實之禾稻, 綻綿之木花, 不無受損之慮, 言念民事, 誠爲悶然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8월 초7일에 장연 등 9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곡산은 1려가 내렸고, 웅진·재령·황주·토산·배천·금천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12일 축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5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1푼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익어갈 즈음에 찬비가 자주 내리니 알이 든 벼나 솜이 터진 목화는 손상을 입을 염려가 없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0. 1855년(철종 6) 8월 18일(양력 9월 28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17c~217d)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64a~64b)

臣營下今八月十五日得雨四寸一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延安·襄津·瑞興·鳳山·金川·新溪等七邑, 川渠漲滿, 康翎·信川·文化·白川等四邑, 得二犁, 平山·長連·冤山等三邑, 得一犁, 而白川·金川·襄津·鳳山等四邑段, 偏被風雨之掀盪, 向熟之各穀, 亦皆委靡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非時冷雨, 多日霪灑, 田畝各穀, 受損非細, 民事誠爲悶然是白如乎, 餘外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15일에 내린 비가 4치 1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연안·웅진·서흥·봉산·금천·신계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령·신천·문화·배천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평산·장련·토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는데, 배천·금천·웅진·봉산 등 4개 고을의 경우 비바람이 매우 심하게 뒤흔들어 익어가던 각종 곡식 또한 다 맥없이 쓰러졌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때아닌 찬비가 여러 날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려 논밭의 각종 곡식이 입은 손상이 적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그 밖에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1. 1855년(철종 6) 8월 21일(양력 10월 1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218a~218b) / 黃海監營狀啓臚錄 12책(65a~65b)

今八月十五日海州等十四邑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淵·松禾·遂安·谷山等四邑, 川渠漲流, 安岳·載寧·豐川·殷栗等四邑, 得二犁, 黃州得一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稻方張向熟, 木綿次第摘取, 晚稻幾皆入實, 豆·太·木麥間多向實是如爲白乎旆. 載寧·鳳山·黃州·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稻幾皆入實, 木綿今始摘取, 晚稻間或入實, 豆·太·木麥已盡結穀, 而白川·金川·襄津·長淵·鳳山等五邑段, 向熟之各穀, 爲風雨委靡, 而日候稍涼, 難望結實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8월 15일에 해주 등 14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연·송화·연안·곡산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안악·재령·풍천·은율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황주는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벼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따서 거두고, 늦벼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콩·팥·메밀은 그사이에 여물어가는 것이 많다고 하며, 재령·봉산·황주·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벼는 거의 다 알이 들었고, 목화는 지금 따서 거두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간혹 알이 들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꼬투리를 맺었는데, 배천·금천·웅진·장연·봉산 등 5개 고을은 익어가던 각종 곡식이 비바람으로 맥없이 쓰러졌고, 날씨가 조금 서늘하여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22. 1855년(철종 6) 8월 26일(양력 10월 6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218b~218c) / 黃海監營狀啓謄錄 12책(66a~66a)

卽接各邑所報, 則文化·松禾·金川·平山·瑞興等五邑, 今八月二十二日夜霜降, 康翎·白川, 二十三日夜霜降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如乎, 列邑災實分等, 待概狀齊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문화·송화·금천·평산·서흥 등 5개 고을은 이번 8월 22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강령·배천은 23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재해와 결실의 등급은 개요를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3. 1860년(철종 11) 3월 12일(양력 4월 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291b~291c)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9b~10a)

卽接道內各邑農形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小麥今始抽芽, 春粳次第耕播是如爲白乎旂,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小麥方張脫袴, 春粳間或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清明只隔, 東作伊始, 勸課之政, 不容少忽是白乎等以. 另飭列邑, 借牛勸耕, 分糶助糧, 期於各盡其力, 無或失時, 築堰防汛, 貯水蒙利等節, 亦令着念舉行之意, 一體嚴飭.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황해도 내 각 고을의 농사 상황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차례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꺾질을 벗고 있고, 봄보리는 간혹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청명이 단지 이틀 남았고 봄 농사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농사일을 권장하는 행정은 조금도 소홀할 수 없어 여러 고을에 별도로 지시하여 소를 빌려주어 갈기를 권장하고, 환곡을 나눠주어 양식을 도와 기어이 각자 노력을 다하고 혹시라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며, 독을 쌓고 보를 막아서 물을 저장하여 논에 대도록 하는 등의 사항 또한 유념해서 거행하도록 하라는 뜻을 일체 엄중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4. 1860년(철종 11) 윤3월 12일(양력 4월 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00d~301a)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28b~29a)

臣營下今閏三月十一日辰時始雨, 或霏或灑, 當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日漸茁長, 春麴幾盡立苗, 早黍·粟耕播垂畢, 晚黍·粟·唐稷今方播種, 早稻·木綿間或落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今始向青, 春麴間間立苗, 早黍·粟方將耕播, 晚黍·粟·唐稷始或耕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農形及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윤3월 11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텃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아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씨앗을 뿌리고, 올벼·목화는 간혹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푸르러지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간간이 싹이 트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비로소 더러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5. 1860년(철종 11) 윤3월 16일(양력 5월 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02a~302b)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1b~32a)

臣營下今閏三月十一日得雨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金川·新溪, 得一犁, 載寧·信川·鳳山等三邑, 得二鋤, 海州·延安·白川·平山·殷栗·龜山等六邑, 得一鋤, 文化·長淵·瑞興等三邑, 浥塵是如. 爲等如, 牒呈爲白置有亦. 餘外各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윤3월 11일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금천·신계는 1려가 내렸고, 재령·신천·봉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해주·연안·배천·평산·은율·토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문화·장연·서흥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26. 1860년(철종 11) 윤3월 20일(양력 5월 10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03d~304a)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5a~35a)

臣營下今閏三月十九日丑時始雨，或霏或灑，當日申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白如  
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윤3월 19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7. 1860년(철종 11) 윤3월 22일(양력 5월 1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04d~305a)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6b~37a)

臣營下今閏三月十九日得雨一寸一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甕津得二犁，海州·信川·載寧等三邑，得一犁，康翎得二鋤，延安·文化得一鋤，長淵·浥塵是如爲白乎旆。農形段，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秋粳·小麥已盡茁長，春粳日漸向長，早黍·粟過半立苗，晚黍·粟·唐稷間間出土，早稻·木綿舉皆播種，晚稻間或落種是如爲白乎旆，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秋粳·小麥方張茁長，春粳漸次向青，早黍·粟今方出土，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已皆耕播，早稻·木綿今始播種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嗣後農形及列邑雨澤形止，更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윤3월 19일에 내린 비가 1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웅진은 2려가 내렸고, 해주·신천·재령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령은 2서가 내렸고, 연안·문화는 1서가 내렸고, 장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자라나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간이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씨앗을 뿌렸고, 늦벼는 간혹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자라고 있고, 봄보리는 점차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의 우택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8. 1860년(철종 11) 윤3월 25일(양력 5월 15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06a~306b)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9a~39b)

今閏三月十九日襄津等八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新溪·谷山等三邑, 得一犁, 鳳山·殷栗·白川·金川等四邑, 得二鋤, 黃州·瑞興·豐川·平山·冤山·遂安·松禾等七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閏三月二十三日申時始雨, 或霏或灑, 至二十四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윤3월 19일에 웅진 등 8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신계·곡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봉산·은율·배천·금천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황주·서흥·풍천·평산·토산·수안·송화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윤3월 23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29. 1860년(철종 11) 윤3월 28일(양력 5월 18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06d~306d)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40b~40b)

臣營下今閏三月二十四日得雨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載寧·信川·文化·安岳·豐川·長湍·長連等七邑, 得一犁, 康翎得二鋤, 海州·延安·白川·金川·黃州·鳳山·瑞興·松禾等八邑, 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윤3월 24일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재령·신천·문화·안악·풍천·장연·  
장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령은 2서가 내렸고, 해주·연안·배천·금천·황주·봉산·  
서흥·송화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30. 1860년(철종 11) 4월 2일(양력 5월 2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09b~309c)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45b~46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次第胚胎, 春麴方張茁茂, 早黍·粟舉皆立苗, 晚黍·粟·唐稷過半出土, 早稻·木綿間立苗, 晚稻漸次落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始或胚胎, 春麴間或茁長, 早黍·粟今方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始出土, 早稻·木綿幾盡播種, 晚稻今始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이삭을 배고, 봄보리는 한창 싹이 무성해지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싹이 텃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싹이 트고, 늦벼는 점차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비로소 더러 이삭을 배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싹이 트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막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씨앗을 뿌렸고, 늦벼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31. 1860년(철종 11) 4월 10일(양력 5월 30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10d~310d)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48b~48b)

臣營下今四月初七日戌時始雨，或霏或灑，初九日卯時至，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초7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32. 1860년(철종 11) 4월 12일(양력 6월 1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10d~311a)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48b~49a)

臣營下今四月初九日得雨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延安·長淵等四邑, 得二鋤, 豐川·金川·平山·黃州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今方發穗, 春粳·小麥舉皆胚胎, 早黍·粟今方初耘, 晚黍·粟·唐稷次第立苗, 早稻·木綿方張出土, 晚稻耕播垂畢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已盡胚胎, 春粳·小麥幾皆茁長, 早黍·粟漸次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始或立苗, 早稻·木綿方始出土, 晚稻過半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초9일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연안·장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풍천·금천·평산·황주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용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봄보리·봄밀은 대부분 알을 뻗고, 올기  
장·올조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싹이 트고, 올벼·목화  
는 한창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있고, 늦벼는 땅을 갈아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알을 뻗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싹이 자랐고, 올기장·올조는 점차 싹이 트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비로소 더러 싹이 트고, 올벼·목화는 막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절반 이상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  
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33. 1860년(철종 11) 4월 17일(양력 6월 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11d~311d)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50a~50b)

今四月初九日之雨, 海州等八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信川·文化·松禾·安岳·載寧·鳳山·瑞興·殷栗·遂安·谷山等十邑, 得一犁, 襄津·長連, 得二鋤, 白川·新溪·冤山等三邑, 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4월 초9일의 비로 해주 등 8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신천·문화·송화·안악·재령·봉산·서흥·은율·수안·곡산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웅진·장련은 2서가 내렸고, 배천·신계·토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334. 1860년(철종 11) 4월 22일(양력 6월 11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18a~318b)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65b~66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今始入實, 春麴·小麥間或發穗, 早黍·粟方張初耘, 晚黍·粟·唐稷已盡立苗, 早稻·木綿舉皆出土, 晚稻方始抽芽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次第發穗, 春麴·小麥已皆胚胎, 早黍·粟初耘伊始,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過半立苗, 早稻·木綿漸次出土, 晚稻耕播垂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알이 들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봄밀은 간혹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싹이 텄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늦벼는 막 싹이 트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알을 뻗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절반 이상 싹이 텄고, 올벼·목화는 점차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늦벼는 땅을 갈아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35. 1860년(철종 11) 5월 2일(양력 6월 20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19d~320a)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69a~69b)

臣營下去四月二十九日丑時始雨, 或霏或灑, 今五月初二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五分是白乎旂.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今方向熟, 春麴·小麥次第入實, 早黍·粟已盡再耘, 晚黍·粟·唐稷初耘垂畢, 早稻·木綿方張初耘, 晚稻今始入鋤, 秧苗間或移插是如爲白乎旂,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漸次入實, 春麴·小麥始或發穗, 早黍·粟方張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初耘伊始, 早稻·木綿間間初除草, 晚稻幾盡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列邑雨澤及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달 29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5월 초2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5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막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지금 김매기를 시작했고, 모는 간혹 옮겨 심는다고 하며,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점차 알이 들고, 봄보리·봄밀은 비로소 더러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거의 다 싹이 텄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고을의 우택 및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36. 1860년(철종 11) 5월 초6일(양력 6월 24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20c~320d)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70b~71a)

臣營下今五月初二日得雨一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信川得二犁, 海州·襄津·長淵·松禾·載寧·黃州·文化·長連·延安·金川·平山·瑞興等十二邑, 得一犁, 康翎·白川·殷栗·新溪等四邑, 得二鋤, 鳳山·豐川,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初五日丑時始雨, 或霏或灑, 初六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七寸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2일에 내린 비가 1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신천은 2려가 내렸고, 해주·웅진·장연·송화·재령·황주·문화·장린·연안·금천·평산·서흥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령·배천·은율·신계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봉산·풍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5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37. 1860년(철종 11) 5월 초9일(양력 6월 27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21c~321c)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72b~72b)

今五月初二日信川等十九邑雨澤形止及初六日臣營下得雨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二日之雨, 安岳·遂安·兔山等三邑, 得一犁, 谷山得二鋤是如爲白乎旆, 初六日之雨, 信川·載寧·平山等三邑, 得一犁, 海州得二鋤, 襄津·長淵, 得一鋤, 延安·金川浥塵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초2일에 신천 등 19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초6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2일의 비로 안악·수안·토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곡산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초6일의 비로 신천·재령·평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해주는 2서가 내렸고, 웅진·장연은 1서가 내렸고, 연안·금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338. 1860년(철종 11) 5월 12일(양력 6월 30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21c~321d)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72b~73a)

今五月初六日之雨, 信川等八邑得雨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新溪·谷山等三邑, 得一犁, 殷栗得二鋤, 白川·瑞興,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間或刈獲[穫], 春麴·小麥日漸向熟, 早黍·粟三耘伊始, 晚黍·粟次第再耘, 早稻·木綿方始再除草, 晚稻初耘垂畢, 秧苗間間移插, 豆·太·木麥今始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幾盡成熟, 春麴·小麥漸次入實, 早黍·粟過半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今始再耘, 早稻·木綿舉皆初耘, 晚稻今方初除草, 秧苗始或移插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夏至已過, 雨澤未洽, 田穀則雖或滋潤, 畚稼則頗多枯焦, 秧節漸晚, 移插甚稀, 言念民事, 誠爲憂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초6일의 비로 신천 등 8개 고을에 내린 비의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신계·곡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은율은 2서가 내렸고, 배천·서흥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수확하고, 봄보리·봄밀은 날로 점점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기장·늦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모는 간간이 옮겨심고, 콩·팥·메밀은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성숙했고, 봄보리·봄밀은 점차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이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모는 비로소 더러 옮겨심기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가 이미 지났는데 우택이 흡족하지 않으니, 밭곡식은

비록 더러 축축하게 윤기가 나지만, 벼는 말라버린 것이 매우 많으며, 모내기철이 점점 늦어지는데 옮겨심는 것은 매우 드무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39. 1860년(철종 11) 5월 22일(양력 7월 10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22b~322c)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74a~74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春麴·小麥間多刈取, 早黍·粟方張三耘, 晚黍·粟·唐稷再耘垂畢, 早稻·木綿舉皆再除草, 晚稻已盡初耘, 豆·太·木麥既盡落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今方刈獲[穫], 春麴·小麥幾盡成熟, 早黍·粟間或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過半再耘, 早稻·木綿再耘伊始, 晚稻幾皆初除草, 豆·太·木麥始或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初庚不遠, 一需終斬, 田種各穀, 間頗萎黃, 至於畚庫叱, 日就乾涸, 秧節既愆, 移插無望, 目下民情, 萬萬遑汲是白如乎. 嗣後農形, 更待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그사이에 많이 베어 거뒀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막 베에 수확하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성숙하였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더러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초복이 멀지 않은데 끝내 한차례 퍼붓지 않으니 밭에 뿌린 각종 곡식은 그사이에 누렇게 시든 것이 많고, 논이 경우 날마다 바짝 말라가고 모내기철이 이미 늦었는데 옮겨심을 가망이 없으니, 눈앞의 백성들 심정은 매우 다급합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40. 1860년(철종 11) 5월 24일(양력 7월 1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22c~322c)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74b~74b)

道內農形悶旱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五月二十三日辰時始雨, 或霏或灑, 二十四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是白如乎, 渴望之餘, 得此甘霖, 雖未優洽, 雨意尙濃是白乎等以. 嗣後形止及列邑雨澤,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하는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23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4일 묘시에 이르러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습니다. 갈망하던 끝에 이렇게 단비를 만나니 비록 넉넉하게 흠족하지는 않지만 비올 조짐은 아직도 짙습니다. 이후 경위 및 여러 고을의 우택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41. 1860년(철종 11) 5월 26일(양력 7월 14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23b~323b)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75b~76a)

臣營下今五月二十四日得雨二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白川, 得二犁, 延安·松禾·殷栗等三邑, 得一犁, 康翎·載寧·長淵·兔山等四邑, 得二鋤是如爲白乎跡. 臣營下今五月二十四日亥時又雨, 或霏或灑, 二十六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是白如乎, 餘外各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24일에 내린 비가 2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배천은 2려가 내렸고, 연안·송화·은율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강령·재령·장연·토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24일 해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2. 1860년(철종 11) 6월 2일(양력 7월 19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24d~325b)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79a~80a)

去五月二十四日之雨, 海州等九邑得雨形止及二十六日臣營下得雨三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四日之雨, 瑞興·安岳, 川渠漲流, 襄津·豐川·信川·文化·黃州·鳳山·遂安·谷山·長連·金川·平山·新溪等十二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二十六日之雨, 海州·康翎·金川·新溪等四邑, 川渠漲流, 襄津·載寧·鳳山·延安等四邑, 得二犁, 殷栗·兎山,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去五月二十七日亥時始雨, 或霏或灑, 今六月初一日辰時止, 測雨器水深爲三寸九分是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已盡三耘, 晚黍·粟·唐稷過半三耘, 早稻·木綿三耘伊始, 晚稻舉皆再耘, 豆·太·木麥今始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春粳·小麥今方刈獲[穫], 早黍·粟方張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再耘垂畢, 早稻·木綿次第再耘, 晚稻方始再除草, 豆·太·木麥幾盡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雨澤, 峽野均霑, 田畝各穀, 頗有蘇醒之望是白如乎. 嗣後農形及列邑雨澤,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5월 24일의 비로 해주 등 9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 및 26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4일의 비로 서흥·안악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웅진·풍천·신천·문화·황주·봉산·수안·곡산·장려·금천·평산·신계 등 12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26일의 비로 해주·강령·금천·신계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웅진·재령·봉산·연안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은율·토산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 5월 27일 해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6월 초1일 진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9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늦벼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콩·팥·메밀은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지금 막 베어 수확하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막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우택은 산골이나 들판을 고루 적서 논밭의 각종 곡식은 되살아날 가망이 자못 있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의 우택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3. 1860년(철종 11) 6월 5일(양력 7월 2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25b~325c)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80a~80b)

去五月二十六日之雨, 海州等十邑得雨形止及今六月初一日至臣營下得雨三寸九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六日之雨, 瑞興·白川·平山·安岳·谷山等五邑, 川渠漲流, 黃州得二犁, 信川·松禾, 得一犁, 長淵·文化·長連·遂安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今月初一日之雨, 海州·康翎·延安·白川·遂安·谷山等六邑, 川渠漲流, 長連·金川·瑞興等三邑, 得一犁, 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黃州·鳳山·平山等八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六月初二日丑時, 又爲始雨, 或霏或灑, 初四日巳時至, 測雨器水深爲六寸五分是白如乎. 嗣後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5월 26일의 비로 해주 등 10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 및 이번 6월 초1일까지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치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6일의 비로 서흥·배천·평산·안악·곡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황주는 2려가 내렸고, 신천·송화는 1려가 내렸고, 장연·문화·장련·수안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1일의 비로 해주·강령·연안·배천·수안·곡산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장련·금천·서흥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황주·봉산·평산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2일 축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5푼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44. 1860년(철종 11) 6월 10일(양력 7월 27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25d~325d)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81a~81a)

臣營下今六月初四日得雨六寸五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信川·文化·安岳·長湍·新溪·瑞興·延安·白川·金川·平山·載寧·黃州等十三邑，川渠漲滿，遂安·谷山，得二犁，康翎·襄津·松禾·豐川·鳳山·長連·殷栗·兔山等八邑，得一犁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月初五日卯時，又爲始雨，或霏或灑，初六日巳時至，測雨器水深爲二寸五分是白如乎。嗣後列邑得雨形止，更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4일에 내린 비가 6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신천·문화·안악·장연·신계·서흥·연안·배천·금천·평산·재령·황주 등 1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수안·곡산은 2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송화·풍천·봉산·장련·은율·토산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초5일 묘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6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5. 1860년(철종 11) 6월 12일(양력 7월 29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26a~326b)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81b~82a)

臣營下今六月初六日得雨二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淵·載寧·黃州·瑞興·遂安·谷山·延安等七邑, 川渠漲流, 海州·信川·文化·殷栗·鳳山·白川·平山·新溪·兔山等九邑, 得二犁, 康翎·襄津·松禾·豐川·安岳·長連·金川等七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始胚胎, 晚黍·粟·唐稷幾盡三耘, 早稻·木綿過半三耘, 晚稻三耘伊始, 豆·太·木麥次第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已盡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今方三耘, 早稻·木綿舉皆再耘, 晚稻漸次再除草, 豆·太·木麥始或初耘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6일에 내린 비가 2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연·재령·황주·서흥·수안·곡산·연안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해주·신천·문화·은율·봉산·배천·평산·신계·토산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송화·풍천·안악·장려·금천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이삭을 배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점차 두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더러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46. 1860년(철종 11) 6월 17일(양력 8월 3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26c~326c)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82a~82b)

臣營下今六月十四日申時始雨，或霏或灑，十七日酉時至，測雨器水深爲三寸四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4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7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7. 1860년(철종 11) 6월 22일(양력 8월 8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26c~326d)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82b~83a)

臣營下今六月十七日得雨三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遣[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長淵·松禾·信川·文化·長連·殷栗·鳳山·瑞興·延安·白川·金川·平山·新溪等十四邑, 川渠漲流, 甕津·載寧, 得二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始或發穗, 晚黍·粟·唐稷今方胚胎, 早稻·木綿幾盡三耘, 晚稻漸次三耘, 豆·太·木麥初耘垂畢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方張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已盡三耘, 早稻·木綿次第三耘, 晚稻舉皆再除草, 豆·太·木麥過半初耘, 而豐川段, 上里面九旺·全道·於隱三洞, 今初三日夜, 獐風大作, 雨雹交下, 形如大豆, 所過處長爲七里, 廣爲二里許, 而黍·粟·唐稷間多折傷, 豆·太·木綿莖葉剝落, 更無蘇醒之望, 被災尤甚處, 以木麥代播, 而坊里稍遠, 摘奸之際, 自爾遲滯是如爲等如, 牒呈是白遣. 臣營下今六月十九日巳時又雨, 或霏或灑, 二十一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是白乎所, 當此各穀茁長之時, 霏雨支離, 不無庠稼之患, 言念民事, 誠切憂悶是白如乎. 嗣後農形及雨澤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7일에 내린 비가 3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장연·송화·신천·문화·장련·은율·봉산·서흥·연안·배천·금천·평산·신계 등 1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웅진·재령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이삭을 배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점차 세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이삭을 배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세벌 김매

기를 하고, 늦벼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이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풍천의 경우, 상리면 구왕·전도·어은 3개 동은 이번 초3일 밤에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우박이 어지러이 내렸는데 모양은 큰 콩 같고 지나간 곳의 길이는 7리이고 너비는 2리가량이며, 기장·조·수수는 그사이에 꺾여서 손상된 것이 많고, 콩·팥·목화는 줄기와 잎이 떨어져 다시는 되살아날 가망이 없으며, 재해를 더욱 심하게 입은 곳은 메밀 씨앗을 대신 뿌렸으며, 조금 먼 마을을 캐서 조사할 즈음 자연히 지체되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9일 사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의 싹이 자라는 시기에 장맛비가 지루하게 내리니 벼가 손상될 근심이 없지 않아,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농사 상황 및 우택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8. 1860년(철종 11) 6월 27일(양력 8월 13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27b~327c)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84a~84b)

今六月十七日之雨，海州等十六邑雨澤形止及臣營下今二十一日得雨三寸五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十七日之雨，黃州·安岳·遂安·新溪·兎山等五邑，川渠漲流，康翎·豐川，得二犁是如爲白乎旆，二十一日之雨，海州·長淵·瑞興·遂安·谷山·新溪·延安·白川等八邑，川渠漲滿，康翎·襄津·文化·鳳山等四邑，得一犁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二十三日丑時又雨，或霏或灑，二十六日戌時至，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17일의 비로 해주 등 16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21일에 내린 비가 3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7일의 비로 황주·안악·수안·신계·토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강령·풍천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21일의 비로 해주·장연·서흥·수안·곡산·신계·연안·배천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령·웅진·문화·봉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3일 축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49. 1860년(철종 11) 7월 2일(양력 8월 18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28a~328b)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85b~86a)

去六月二十一日之雨, 海州等十二邑雨澤形止及臣營下去月二十六日得雨二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一日之雨, 豐川·黃州·金川·兔山等四邑, 川渠漲滿, 信川·載寧·松禾·安岳·長連·殷栗·平山等七邑, 得二犁是如爲白乎旆, 二十六日之雨, 襄津·康翎·白川·谷山·兔山等五邑, 川渠漲流, 海州·延安·金川·黃州·鳳山·瑞興等六邑, 得二犁, 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載寧·遂安·平山·新溪等十二邑, 得二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去六月三十日丑時又雨, 或霏或灑, 獐風交作, 鎮日乃止, 今七月初一日酉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是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始或入實, 晚黍·粟·唐稷今方發穗, 早稻·木綿三耘垂畢, 晚稻幾盡三耘, 豆·太·木麥間或再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次第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張胚胎, 早稻·木綿過半三耘, 晚稻三耘伊始, 豆·太·木麥已盡初耘, 而跨朔霽靈, 又值涼生, 田畝各穀, 無不受傷, 言念民事, 誠甚悶然是白如乎. 列邑農形及風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6월 21일의 비로 해주 등 12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지난달 26일에 내린 비가 2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1일의 비로 풍천·황주·금천·토산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신천·재령·송화·안악·장린·은율·평산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26일의 비로 웅진·강령·배천·곡산·토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해주·연안·금천·황주·봉산·서흥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재령·수안·평산·신계 등 12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 6월 30일 축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면서 사나운 바람이 종일 번갈아 일어나다가 이내 그쳤는데, 이번 7월 초1일 유시에 이르러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한창 이삭을 배고 있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습니다. 한 달에 걸친 장마와 흠비에다가 또 서늘한 기운이 생겨 논밭의 각종 곡식은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 없어,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농사 상황 및 비바람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0. 1860년(철종 11) 7월 4일(양력 8월 20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28d~329a)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87a~87b)

道內農形及臣營下得雨三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七月初三日寅時又雨, 或霏或灑, 初四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四分是白如乎, 春夏久旱之餘, 自五月二十三日始雨, 今七月初四日至, 四十一日之間, 終日晴霽爲五日, 半日晴霽爲八日, 統計十三日之外, 無日不雨, 甘露旋成苦霖, 先笑仍作後咷, 重之去月三十日, 寧風大作, 揚沙折木, 禾穀之披靡折傷, 在在皆然, 田野景色, 滿目愁慘是白如乎. 見今庚節已過, 百昌漸摯, 雖使天氣開朗, 日候順調, 回蘇於傷損之餘, 食實於收穫[穫]之時, 難保其有萬一之望, 而若又捱過數三日, 霖霪不斷, 勢將無秋而後乃已, 興念及此, 萬萬憂悶是白乎等以. 依臣營已例, 城門祭, 不卜日今初五日, 設行於海州牧爲白乎旆.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3일 인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4푼이었습니다. 봄과 여름의 오랜 가뭄 끝에 5월 2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번 7월 초4일까지 41일 사이에 온종일 말끔하게 갠 날은 5일이었고 한나절 말끔하게 갠 날은 8일로, 통틀어 계산하면 비가 오지 않은 날은 13일밖에 없습니다. 단비는 곧바로 고통스러운 장마가 되었으니 먼저 옷다가 이내 뒤에는 울부짖었는데, 이에 덮친 것으로 지난달 30일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 모래를 날리고 나무를 부러뜨리니 벼가 쓰러지고 꺾여서 손상된 것은 곳곳이 다 그러하니 농지와 들판의 모습은 눈에 가득 처참합니다. 현재 삼복의 절기가 이미 지나 만물이 왕성하게 점점 여무는데, 비록 하늘의 기운이 탁 트이고 날씨가 순조로워도 손상된 끝에 되살아나 수확할 때 열매를 먹게 될 가망은 만분의 일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또 지난 2, 3일에 걸쳐 장맛비가 끊이지 않는데, 형세상 장차 거둘 것이 없어진 뒤에야 그칠 듯합니다. 일어난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감영의 이전 사례에 따라 성문 영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이번 초5일 해주목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1. 1860년(철종 11) 7월 6일(양력 8월 2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29a~329b)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87b~88a)

臣營下今七月初一日風雨形止及初四日得雨二寸三分，而祭設行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初一日之雨，海州·康翎·松禾·豐川·信川·安岳·長連·延安等八邑，川渠漲滿，文化·載寧·白川·菟山等四邑，得二犁是如爲白乎旆，初四日之雨，海州·康翎·襄津·延安·載寧·鳳山·長淵等七邑，川渠漲滿，白川·金川·平山·松禾·豐川·殷栗等六邑，得一犁是如爲白乎旆，今月初五日以後，又雨霏微，漠無霽意，海州牧城門祭，連爲設行爲白乎旆。嗣後形止，更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1일에 비바람의 경위 및 초4일에 내린 비가 2치 3푼인 것과 영제를 시행하는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일의 비로 해주·강령·송화·풍천·신천·안악·장련·연안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문화·재령·배천·토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초4일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연안·재령·봉산·장연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배천·금천·평산·송화·풍천·은율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달 초5일 이후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개일 조짐이 없으니 해주목에서 성문 영제를 연이어 시행하겠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2. 1860년(철종 11) 7월 10일(양력 8월 26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29c~329d)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88b~89a)

今七月初一日海州等十二邑得雨形止及今月初四日海州等十三邑得雨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初一日之雨，長湍·殷栗·平山·瑞興·新溪·遂安·谷山等七邑，川渠漲滿，襄津·黃州·鳳山·金川等四邑，得二犁是如爲白乎旆，初四日之雨，信川·文化·安岳·長連·黃州等五邑，得二犁，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等五邑，得一犁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七月初七日寅時又雨，或霏或灑，初九日酉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而密雲尙布，霽意漠然，故海州牧城門禱祭，仍爲設行爲白乎旆。嗣後雨澤，更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초1일에 해주 등 12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 및 이번 달 초4일에 해주 등 13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1일의 비로 장연·은율·평산·서흥·신계·수안·곡산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웅진·황주·봉산·금천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초4일의 비로 신천·문화·안악·장린·황주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7일 인시에 또 비가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인데, 뻑뻑한 구름이 아직도 퍼져 있어 개일 조짐이 막연합니다. 그러므로 해주목에서 성문 영제를 이내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의 우택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3. 1860년(철종 11) 7월 12일(양력 8월 28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29d~330a)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89a~89b)

臣營下今七月初八日得雨一寸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信川·文化·長連·載寧·瑞興等五邑, 川渠漲滿, 海州·延安·白川等三邑, 得二犁, 康翎·襄津,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七月初十日午時又雨, 或霏或灑, 十二日巳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是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始或向熟, 晚黍·粟·唐稷舉皆發穗, 早稻今始胚胎, 木綿間或起花, 晚稻三耘垂畢, 豆·太·木麥次第再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幾盡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過半胚胎, 早稻·木綿幾皆三耘, 晚稻方張三耘, 豆·太·木麥再耘伊始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無論沿峽, 三朔霪雨, 禾稻黍·粟, 沈水蹲縮, 豆·太·木綿, 貼泥腐傷, 以今所見, 難望成實, 而海州牧城門禱祭, 已爲三次, 靈應尙此漠然, 言念民事, 極爲悶然是白乎旆. 嗣後農形及雨澤,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8일에 내린 비가 1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신천·문화·장련·재령·서흥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해주·연안·배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10일 오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련·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대부분 이삭이 났고, 올벼는 지금 이삭을 배기 시작하였고, 묵화는 간혹 꽃이 피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한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절반 이상 알을 났고, 올벼·묵화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물가나 산골을 막론하고 3달 동안의 장맛비로 벼와 기장·조는 물에 잠겨 주저앉거나 오그라들고, 콩·팥·목화는 흙이 달라붙어 썩거나 손상됐으니, 지금 본 것으로는 열매가 여물기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해주목에서 성문 영제를 이미 3차례 지냈는데 신령의 감응은 아직도 이렇게 막연합니다.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그지없이 걱정스럽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우택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4. 1860년(철종 11) 7월 17일(양력 9월 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37d~338a)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107b~108a)

今七月初八日信川等十邑得雨形止及臣營下今七月十二日得雨三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八日之雨, 金川·谷山·遂安等三邑, 川渠漲滿, 長淵·松禾·豐川·安岳·殷栗·兎山等六邑, 得二犁, 黃州·鳳山·平山·新溪等四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十二日之雨, 海州·康翎·襄津·長淵·載寧·黃州·鳳山·瑞興等八邑, 川渠漲滿, 延安·白川·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等七邑, 得二犁, 長連·殷栗·金川·平山·新溪·兎山等六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月十三日酉時又雨, 或霏或灑, 至十六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乎旆, 伊日以後, 陰雲四散, 快有霽意, 故海州牧城門祭, 仍爲停止是白遣, 列邑雨澤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초8일에 신천 등 10개 고을에 내린 비의 경위 및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2일에 내린 비가 3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8일의 비로 금천·곡산·수안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장연·송화·풍천·안악·은율·토산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황주·봉산·평산·신계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12일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장연·채령·황주·봉산·서흥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연안·배천·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장련·은율·금천·평산·신계·토산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3일 유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먹구름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끔하게 개일 조짐이 있으므로 해주목의 성문 영제는 이내 중지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우택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5. 1860년(철종 11) 7월 22일(양력 9월 7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38c~339a)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109b~110a)

臣營下今七月十三日以十六日止得雨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信川·載寧·黃州·鳳山·文化·安岳·豐川·松禾·殷栗·金川·谷山等十一邑, 川渠漲滿, 白川得二犁, 海州·康翎, 得二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已盡向熟, 晚黍·粟·唐稷間或入實, 早稻方張發穗, 木綿次第起花, 晚稻過半胚胎, 豆·太·木麥再耘垂畢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皆入實,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始或發穗, 早稻今方胚胎, 木綿間起花, 晚稻幾盡三耘, 豆·太·木麥漸次再耘, 而載寧段, 今月十四日之雨, 大水橫流, 奔波衝激, 下清水里坊所在水驛垆民畝二十石落, 右里坊訓鍊屯所屬彌勒垆屯畝十九石落, 民畝六斗落, 景祐宮所屬蒲坪垆宮畝二十三石落, 民畝一石落, 合六十三石六斗落. 俱爲潰決, 訓鍊屯所屬汗坪垆屯畝四十石落. 民畝四十石落, 合八十石落, 以汚下之致, 亦爲沈墊, 在在消灑是如是白乎等以. 堰畝潰決處, 待其水退, 趁卽修築之意, 關飭於該邑爲白乎旆. 田畝各穀, 毋論峽野, 旣經水災, 且被風損, 舉皆受傷. 言念民情, 誠極爲悶.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신천·재령·황주·봉산·문화·안악·풍천·송화·은율·금천·곡산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배천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알이 들고, 올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늦벼는 절반 이상 알을 났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비로소 더러 이삭이 패고, 올벼는 지금 막 이삭을 배고, 목화는 간간이 꽃이 피고, 늦벼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점차 두벌 김매기를 합니다. 재령의 경우, 이번 달 14일의 비로 큰물이 제멋대로 흐르고 달리는 물결이 들이쳐서 하청수리방은 수역에 있는 독의 백성 논 20섬지기, 우리방은 훈련둔 소속의 미륵 독의 둔답 19섬지기·백성 논 6말지기, 경우궁 소속 포평 독의 궁답 23섬지기·백성 논 1섬지기, 총 63섬 6말지기는 모두 독이 터졌고, 훈련둔 소속 한평 독의 둔답 43섬지기·백성 논 40섬지기, 총 80섬지기는 낮은 지대인 탓에 또한 물에 잠겨 곳곳에서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독과 논이 터진 곳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곧바로 고쳐 쌓으라는 뜻을 공문으로 해당 고을에 지시하였습니다. 논밭의 각종 곡식은 산골이나 들판을 막론하고 이미 수해를 겪었는데 또 바람에 대부분 손상을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걱정스럽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56. 1860년(철종 11) 7월 26일(양력 9월 11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40b~340c)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113a~113b)

今七月十三日以十六日止雨, 信川等十四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湍·遂安, 川渠漲滿, 瑞興·新溪·兔山等三邑, 得二犁, 延安·平山·襄津·長連等四邑, 得一犁是如爲等如, 牒呈是白乎等以.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비로 신천 등 14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연·수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서흥·신계·토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연안·평산·웅진·장련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7. 1860년(철종 11) 8월 3일(양력 9월 17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41a~341b)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114b~115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方刈獲[穫], 晚黍·粟·唐稷次第向熟, 早稻幾盡發穗, 木綿結穎, 晚稻今始發穗, 豆·太·木麥間或起花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過半向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張入實, 早稻間間發穗, 木綿幾盡起花, 晚稻胚胎, 豆·太·木麥再耘垂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乎旆. 臣營下今八月初一日酉時始雨, 或霏或灑, 初二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乎.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베어 수확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익어가고, 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다래를 맺고, 늦벼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간혹 꽃이 핀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한창 알이 들고 있고, 올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고, 목화는 거의 다 꽃이 피었고, 늦벼는 이삭을 배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초1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2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58. 1860년(철종 11) 8월 12일(양력 9월 26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342b~342d) / 黃海監營狀啓謄錄 14책(117a~118b)

去七月十六日之雨, 信川等十四邑雨澤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信川東部坊民家全額爲三戶, 於項左坊民家全額爲五戶, 半額爲十戶, 於項右坊民家全額爲四戶, 半額爲十六戶, 森洞坊民家全額爲二十六戶, 半額爲十六戶, 加山左坊民家全額爲一戶, 半額爲七戶, 加山右坊民家半額爲六戶, 魚蘆坊民家全額爲六十六戶, 半額爲八十二戶, 聲月坊民家全額爲二十八戶, 半額爲三十八戶, 月川坊民家全額爲四十一戶, 半額爲二十六戶, 加串坊民家全額爲九十戶, 半額爲一百二十九戶, 中令坊民家全額爲五戶, 半額爲八戶. 合全額爲二百六十九戶, 半額爲三百三十八戶是遣. 東部坊堰洞潰決, 民畝爲四十一石落, 於項左坊堰洞潰決, 景祐宮畝爲三石落, 民畝爲一石落, 於項右坊堰洞潰決, 景祐宮畝爲二石落, 民畝爲一石六斗落, 森洞坊堰洞潰決, 龍洞宮畝八十石落, 民畝爲三十九石十斗落, 加山左坊堰洞潰決, 民畝爲二十石落. 聲月坊堰洞潰決, 內需司畝爲五石落, 明溫宮畝爲七石落, 淑善宮畝爲二十五石落, 民畝爲二石落, 月川坊堰洞潰決, 內需司畝爲二十石落, 民畝爲四十七石落, 加串坊堰洞潰決, 壽進宮畝爲二十五石落, 樂善宮畝爲六十石落, 益陽宮畝爲五十石落, 於義宮畝爲一百石落, 龍洞宮畝爲九十石落, 大君房畝爲九十石落, 華城屯畝爲六石落, 民畝爲二百七石落, 中令坊堰洞潰決, 民畝爲五十五石十斗落. 合潰決宮畝爲五百五十七石落, 屯畝爲六石落, 民畝爲四百十四石六斗落是如是白乎所. 民家漂額堰洞潰決, 若是夥多, 萬萬驚慘乙仍于, 別遣裨校, 摘奸慰撫, 別加顧助, 全額戶原恤典, 以常賑穀依例題給, 借材助丁, 俾卽結構, 堰洞潰決段, 董役修築之意, 嚴加申飭是白遣, 半額戶段, 容可修葺而入處, 故原恤典不爲舉論, 全額戶恤典, 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依例會減爲白乎旆. 營邑間摘奸來往之際, 自費多日, 致此稽滯, 不勝悚惶.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7월 16일의 비로 신천 등 14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신천 동부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 어항좌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0가구, 어항우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6가구, 삼동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6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6가구, 가산좌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7가구, 가산우방은 백성 집 중 절반 무너진 것이 6가구, 어로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66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82가구, 성월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8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8가구, 월천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1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6가구, 가곶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90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29가구, 중령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8가구, 합하여 전부 무너진 집이 269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338가구입니다.

동부방에 독이 터진 것은 백성 논이 41섬지기, 어항좌방에 독이 터진 것은 경우궁 논이 3섬지기·백성 논이 1섬지기, 어항우방에 독이 터진 것은 경우궁 논이 2섬지기·백성 논이 1섬 6말지기, 삼동방에 독이 터진 것은 용동궁 논이 80섬지기·백성 논이 39섬 10말지기, 가산좌방에 독이 터진 것은 백성 논이 20섬지기, 성월방에 독이 터진 것은 내수사 논이 5섬지기·명운궁 논이 7섬지기·숙선궁 논이 25섬지기·백성 논이 2섬지기, 월천방에 독이 터진 것은 내수사 논이 20섬지기·백성 논이 47섬지기, 가곶방에 독이 터진 것은 수진궁 논이 25섬지기·낙선궁 논이 60섬지기·익양궁 논이 50섬지기·어의궁 논이 100섬지기·용동궁 논이 90섬지기·대군방 논이 90섬지기·화성둔 논이 6섬지기·백성 논이 207섬지기, 중령방에 독이 터진 것은 백성 논이 55섬 10말지기, 합하여 독이 터진 것은 궁의 논이 557섬지기, 둔의 논이 6섬지기, 백성 논이 414섬 6말지기라고 합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과 터진 독이 이처럼 매우 많으니 매우 놀랍고 참혹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교를 보내 캐내며 위로하고, 별도로 돌보고 도와주며, 전부 무너진 가구는 기본 구호에서 상진곡을 규정대로 결정문을 주고, 재목을 빌려주고 일꾼을 보태주어 즉시 집을 짓도록 하고, 터진 독의 경우 일을 감독해서 독을 쌓으라는 뜻으로 엄중하게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절반 무너진 가구의 경우, 집을 고치면 들어가 살 곳이 있으므로 기본 구호는 거론하지 않고, 전부 무너진 가구의 구호는 정책을 진휼청에 올려보냈으니,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규정대로 회계 처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영과 고을 사이에 캐내려고 오가는 즈음에 자연히 여러 날이 걸려 이렇게 지체하게 되었으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59. 1860년(철종 11) 8월 12일(양력 9월 2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43a~343a)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118b~118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晚黍·粟·唐稷今方刈取, 早稻次第成熟, 木花方張綻綿, 晚稻始或入實, 豆·太·木麥間結穀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幾盡刈獲[穫],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舉皆向熟, 早稻過半入實, 木花今始綻綿, 晚稻已盡發穗, 豆·太·木麥間或起花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見今日候, 幸得調順, 被災外各穀, 或有桑榆之望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베어 거두고, 올벼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한창 솜이 터지고 있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알이 들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꼬투리를 맺는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베어 수확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대부분 익어가고, 올벼는 절반 이상 알이 들었고, 목화는 지금 솜이 터지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이미 다 이삭이 뻗고, 콩·팥·메밀은 간혹 꽃이 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날씨는 다행히 순조로워 재해를 입은 것 외의 각종 곡식은 더러 늦게나마 가망이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60. 1860년(철종 11) 8월 18일(양력 10월 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44b~344b)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121a~121a)

臣營下今八月十七日午時始雨, 或霏或灑, 至十八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17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61. 1860년(철종 11) 8월 22일(양력 10월 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44c~344d)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122a~122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稻間或刈取, 木花今始摘取, 晚稻次第成熟, 豆·太·木麥過半入實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張刈獲[穫], 早稻已盡向熟, 木花舉皆綻綿, 晚稻今方入實, 豆·太·木麥幾皆結殼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벼는 간혹 베어 거두고, 목화는 지금 따서 거두기 시작했고, 늦벼는 차례로 성숙하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한창 베어 수확하고 있고, 올벼는 이미 다 익어가고, 목화는 대부분 솜이 터졌고, 늦벼는 지금 막 알이 들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꼬투리를 맺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62. 1860년(철종 11) 8월 27일(양력 10월 11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345b~345c) / 黃海監營狀啓臚錄 14책(123a~123b)

臣營下今八月十八日得雨一寸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襄津·豐川·信川·文化·安岳·殷栗·白川等九邑, 得一犁, 黃州·鳳山·瑞興·遂安·兔山等五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海州·載寧·遂安·新溪·谷山等五邑, 今月十九日夜霜降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年農形, 始旱終潦, 穽風兼作, 田畚各穀, 無不受損, 而霜信又早, 言念民事, 轉益憂悶是白如乎. 列邑災實分等, 待概狀齊到,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18일에 내린 비가 1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풍천·신천·문화·안악·은율·배천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황주·봉산·서흥·수안·토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해주·재령·수안·신계·곡산 등 5개 고을은 이번 달 19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농사 상황은 처음에는 가뭄에 끝에는 장마에, 사나운 바람이 함께 일어나 논밭의 각종 곡식은 손해를 입지 않은 것이 없는데, 서리 소식이 또 이르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재해와 결실·풍흉 등급은 개장이 일제히 도착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63. 1863년(철종 14) 2월 20일(양력 4월 7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388c~388d)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13a~13b)

卽接道內各邑農形所報, 則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今始抽芽, 春麴次第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過半脫袴, 春麴間間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清明纔過, 東作伊始, 勸課之政, 不容少忽是白乎等以, 另飭列邑, 借牛勸耕, 分糶助糧, 期於各盡其力, 無或失時, 築堰防洩, 貯水蒙利等節, 亦令着意舉行之意, 一體嚴飭.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황해도 내 각 고을의 농사 상황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트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차례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절반 이상 싹이 텃고, 봄보리는 간간이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청명이 방금 지났고 봄농사가 시작됐으니 농사일을 권장하는 정책은 조금이라도 소홀할 수 없으므로 여러 고을에 별도로 지시하여 소를 빌려주어 갈기를 권장하고, 환곡을 나눠주어 양식을 도와 기어이 각자 노력을 다하고 혹시라도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며, 독을 쌓고 보를 막아서 물을 저장하여 논에 물을 대도록 하는 등의 사항 또한 유념해서 거행하도록 하라는 뜻을 일체로 엄중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64. 1863년(철종 14) 2월 27일(양력 4월 14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389c~389c)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15a~15a)

臣營下今二月二十六日午時始雨，或霏或灑，至二十七日子時乃止，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平，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2월 26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7일 자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65. 1863년(철종 14) 2월 30일(양력 4월 17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389d~389d)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15a~15b)

臣營下今二月二十六日得雨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信川·載寧等四邑, 浥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方張抽芽, 春麴過半耕播, 早黍·粟間或耕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舉皆脫袴, 春麴今方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農形及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2월 26일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신천·재령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트고 있고, 봄보리는 절반 이상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올기장·올조는 더러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싹이 텃고, 봄보리는 지금 막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66. 1863년(철종 14) 3월 20일(양력 5월 7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396a~396b)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28a~28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次第茁長, 春麴日漸向青, 早黍·粟已盡耕播, 晚黍·粟·唐稷方張播種, 早稻·木綿今始落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漸次向長, 春麴間向青, 早黍·粟過半耕播, 晚黍·粟·唐稷今方播種, 早稻·木綿間或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올벼·목화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자라고, 봄보리는 간간이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씨앗을 뿌리고, 올벼·목화는 간혹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67. 1863년(철종 14) 3월 23일(양력 5월 10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398b~398c)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32a~32a)

臣營下今三月二十日得雨一寸二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襄津，得一犁，長淵·載寧·金川等三邑，得二鋤，康翎·松禾·豐川·信川·長連·延安·白川·平山·文化等九邑，得一鋤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嗣後形止，更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20일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웅진은 1려가 내렸고, 장연·재령·금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강령·송화·풍천·신천·장려·연안·배천·평산·문화 등 9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68. 1863년(철종 14) 3월 25일(양력 5월 1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398d~398d)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33a~33a)

今三月二十日之雨, 海州等十四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鳳山得一犁, 安岳·殷栗·黃州·瑞興·遂安·新溪·兎山·谷山等八邑, 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3월 20일의 비로 해주 등 14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봉산은 1려가 내렸고, 안악·은율·황주·서흥·수안·신계·토산·곡산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69. 1863년(철종 14) 3월 30일(양력 5월 17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399a~399a) / 黃海監營狀啓臚錄 15

책(33a~33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幾皆茁茂, 春麴方張向長, 早黍·粟漸次立苗, 晚黍·粟·唐稷已盡耕播, 早稻·木綿過半播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次第茁長, 春麴日漸向青, 早黍·粟間或出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幾盡落種, 早稻·木綿今方耕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한창 자라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점차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채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날마다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더러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거의 다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70. 1863년(철종 14) 4월 20일(양력 6월 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07c~407d)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52b~53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方張發穗, 春麴·小麥舉皆胚胎, 早黍·粟今方初耘, 晚黍·粟·唐稷漸次向長, 早稻·木綿今始立苗, 晚稻始或出土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間間發穗, 春麴·小麥次第胚胎, 早黍·粟始或入鋤,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過半立苗, 早稻·木綿方始吐芽, 晚稻已盡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近因雨澤稍闕, 發穗之麴·麥, 未免萎枯, 至若畚庫叱, 則有水根處外, 立苗之秧坂, 亦多乾涸, 言念民情, 誠甚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봄보리·봄밀은 대부분 알을 맺고, 올기장·올조는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점차 자라고, 올벼·목화는 지금 싹이 돋기 시작했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이삭이 패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이삭을 맺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절반 이상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막 싹이 나오기 시작했고, 늦벼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요즈음 우택이 조금 준 탓에 이삭이 팬 보리와 밀은 시들어 마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논외의 경우 수원이 있는 곳 외에는 싹이 돋은 못자리 또한 바짝 마른 곳이 많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71. 1863년(철종 14) 4월 26일(양력 6월 12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09d~409d)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56b~57a)

道內農形悶旱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四月二十五日寅時始雨, 或霏或灑, 二十六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二分是白如乎, 渴望之餘, 雖得甘霖, 尙未優洽是白乎等以. 嗣後形止及列邑雨澤,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하는 사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5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2푼이었습니다. 비를 애타게 바라던 끝에 비록 단비가 내렸지만, 아직 넉넉하게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이후 경위 및 여러 고을의 우택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72. 1863년(철종 14) 4월 29일(양력 6월 15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11a~411b)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59b~60a)

臣營下今四月二十六日得雨二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白川, 得二犁, 康翎·襄津·載寧·延安·金川等五邑, 得一犁, 松禾·平山, 得二鋤, 信川·文化·安岳·長淵·鳳山·瑞興·兔山等七邑, 得一鋤, 而惜乾之餘, 鋤犁之霑, 雖甚萬幸, 至於畚庫叱, 猶未優洽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粃方張入實, 春粃·小麥已盡發穗, 早黍·粟初耘垂畢, 晚黍·粟唐稷過半初耘, 早稻·木綿今始入鋤, 晚稻舉皆出土, 秧苗始或移插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粃始或入實, 春粃·小麥舉皆發穗, 早黍·粟過半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今方初耘, 早稻·木綿已盡立苗, 晚稻間間出土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農形及列邑雨澤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6일에 내린 비가 2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배천은 2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재령·연안·금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송화·평산은 2서가 내렸고, 신천·문화·안악·장연·봉산·서흥·토산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나, 가뭄을 걱정하던 끝에 1서·1려 정도로 적시니 비록 매우 다행이지만, 논의 경우는 오히려 넉넉하게 흡족하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맺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했고, 올벼·목화는 지금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모는 비로소 더러 옮겨심는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비로소 더러 알이 들고, 봄보리·봄밀은 대부분 이삭이 맺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

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벼는 간간이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의 우택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73. 1863년(철종 14) 5월 1일(양력 6월 1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12d~412d)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62b~63a)

去四月二十六日之雨, 海州等十六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黃州得二鋤, 長連·殷栗·新溪·遂安·豐川·谷山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旂. 臣營下去四月二十九日丑時始雨, 或霏或灑, 當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4월 26일의 비로 해주 등 16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황주는 2서가 내렸고, 장련·은율·신계·수안·풍천·곡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지난 4월 29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74. 1863년(철종 14) 5월 5일(양력 6월 20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12d~413a)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63a~63a)

臣營下去四月二十九日得雨九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載寧·白川·金川·平山等四邑, 得二犁, 海州·康翎·文化·安岳·延安·松禾等六邑, 得一犁, 信川·冤山, 得二鋤, 襄津·長淵·豐川·黃州·鳳山·瑞興·遂安·長連·殷栗·新溪·谷山等十一邑, 得一鋤是如爲等如, 牒呈是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 4월 29일에 내린 비가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재령·배천·금천·평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문화·안악·연안·송화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신천·토산은 2서가 내렸고, 웅진·장련·풍천·황주·봉산·서흥·수안·장련·은율·신계·곡산 등 11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375. 1863년(철종 14) 5월 10일(양력 6월 25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13a~413b)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63b~64a)

臣營下今五月初十日辰時始雨, 或霏或灑, 當日酉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是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間或刈取, 春麴·小麥舉皆入實, 早黍·粟次第再耘, 晚黍·粟·唐稷初耘垂畢, 早稻·木綿過半初除草, 晚稻今始入鋤, 秧苗方張移插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甌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間間向熟, 春麴·小麥過半入實, 早黍·粟再耘伊始,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張初耘, 早稻·木綿今始初除草, 晚稻已盡立苗, 秧苗間或移插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列邑得雨形止及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10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봄보리·봄밀은 대부분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지금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모는 한창 움겨 심는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절반 이상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산전의 화속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모는 간혹 움겨 심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 및 이후의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76. 1863년(철종 14) 5월 15일(양력 6월 30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14a~414a)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65a~65b)

臣營下今五月初十日得雨二寸七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延安·金川·兔山等四邑，得二犁，康翎·襄津·信川·載寧·平山等五邑，得一犁，松禾得二鋤，長淵·長連·豐川·鳳山·瑞興·文化等六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月十二日未時，又爲始雨，或霏或灑，十四日亥時至，測雨器水深爲五寸三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10일에 내린 비가 2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연안·금천·토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신천·재령·평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송화는 2서가 내렸고, 장연·장련·풍천·봉산·서흥·문화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달 12일 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해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77. 1863년(철종 14) 5월 16일(양력 7월 1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14c~414c)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66a~66b)

今五月初十日海州等十六邑雨澤形止及十四日臣營下得雨五寸三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初十日之雨，白川得二犁，黃州·遂安·谷山等三邑，得一犁，殷栗·安岳·新溪等三邑，得一鋤是如爲白乎旆，十四日之雨，海州·康翎·白川等三邑，川渠漲滿，延安得二犁，黃州得一犁，信川·文化·安岳·殷栗·長淵等五邑，得一鋤是如是白遣，臣營下今十五日子時又雨，或霏或灑，十六日申時至，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초10일에 해주 등 16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14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5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배천은 2려가 내렸고, 황주·수안·곡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은율·안악·신계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14일의 비로 해주·강령·배천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연안은 2려가 내렸고, 황주는 1려가 내렸고, 신천·문화·안악·은율·장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15일 자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78. 1863년(철종 14) 5월 20일(양력 7월 5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14d~415b)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67a~68a)

今五月十四日海州等十邑雨澤形止及十六日臣營下得雨三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以後, 間間霏灑, 十九日酉時至, 測雨器水深, 又爲一寸一分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四日之雨, 襄津·長連·遂安·金川·平山等五邑, 川渠漲滿, 松禾·豐川·載寧·鳳山·冤山等五邑, 得二犁, 瑞興·谷山·新溪等三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十六日之雨, 海州·康翎·安岳·黃州·鳳山·瑞興·延安·白川等八邑, 川渠漲流, 襄津·長連, 得二犁, 信川·文化·載寧等三邑, 大小川渠, 無不汎濫, 民家多有漂沒, 堰垵亦爲潰決, 待水退摘奸, 更報計料是如是白遣.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粃已盡刈穫, 春粃·小麥舉皆成熟, 早黍·粟方始三耘, 晚黍·粟·唐稷次第再耘, 早稻·木綿初耘垂畢, 晚稻過半初除草, 秧苗方張立苗, 豆·太·木麥, 今始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粃今方刈取, 春粃·小麥幾盡成熟, 早黍·粟舉皆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再耘伊始, 早稻·木綿次第初耘, 晚稻始或入鋤, 秧苗今始移插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及列邑被災淺深,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14일에 해주 등 10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16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3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19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1치 1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4일의 비로 웅진·장연·수안·금천·평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송화·풍천·재령·봉산·토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서흥·곡산·신계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16일의 비로 해주·강령·안악·황주·봉산·서흥·연안·배천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웅진·장련은 2려가 내렸고, 신천·문화·재령 등 3개 고을의 크고 작은 개천은 범람하지 않은 것이 없고, 백성의 집은 떠내려간 것이 많고 둑 또한 터졌는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내서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베어 수확했고, 봄보리·봄밀은 대부분 성숙했고, 올기장·올조는 막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모는 한창 싹이 돋고 있고, 콩·팥·메밀은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막 베어 거두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성숙했고,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김매기를 하고, 모는 지금 옮겨심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 및 여러 고을이 입은 재해의 정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79. 1863년(철종 14) 5월 25일(양력 7월 10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16a~416b)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69b~70a)

今五月十六日海州等十三邑雨澤形止及十九日臣營下得雨一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以後, 密雲四布, 間間霏灑, 二十三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是白遣, 連接各邑所報, 則十六日之雨, 長淵·松禾·豐川·遂安·谷山·冕山·金川等七邑, 川渠漲滿, 殷栗得二犁, 新溪·平山, 大小川渠, 無不汎濫, 民家多有漂沒, 待水退摘奸, 更報計料是如爲白乎旆, 十九日之雨, 延安·白川·平山·松禾·殷栗·鳳山·瑞興等七邑, 川渠漲滿, 信川·文化·安岳等三邑, 得二犁, 海州·康翎·襄津等三邑, 得一犁是如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及兩邑被災淺深,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16일에 해주 등 13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19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뽕뽕한 구름이 사방에 퍼졌고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3일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일의 비로 장연·송화·풍천·수안·곡산·토산·금천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은율은 2려가 내렸고, 신계·평산은 크고 작은 개천은 범람하지 않은 것이 없고, 백성의 집은 떠내려간 것이 많은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내서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하며, 19일의 비로 연안·배천·평산·송화·은율·봉산·서흥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신천·문화·안악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웅진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 및 2개 고을이 입은 재해의 정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80. 1863년(철종 14) 5월 27일(양력 7월 1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16b~417a)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70a~71b)

今五月十六日漲水, 信川等三邑新溪·平山, 民家漂頽, 堰垵潰決, 待其摘奸, 更爲登聞計料事及十九日海州等十三邑雨澤形止, 二十三日臣營下得雨四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續接各邑所報, 則信川段, 東部坊民家全頽一戶, 半頽五戶, 加山右坊民家全頽十一戶, 大井坊民家半頽四戶, 聲月左坊民家全頽十八戶, 半頽三十一戶, 聲月右坊民家全頽十一戶, 半頽八戶, 竹嶺坊民家半頽一戶, 加串坊民家全頽三戶, 半頽四戶, 魚蘆坊民家全頽一百九十九戶, 半頽三十一戶, 合全頽爲二百四十四戶. 半頽爲八十三戶是遣, 東部坊堰垵潰決, 戶華屯畝四十石落, 民畝五十二石落, 加山右坊堰垵潰決, 於義宮畝二十石落, 景祐宮畝二十五石落, 民畝五十八石落, 大井坊堰垵潰決, 民畝五石落, 聲月左坊堰垵潰決, 明溫宮畝四十石落. 民畝六十石落, 聲月右坊堰垵潰決, 內司屯畝四十石落, 民畝二十石落, 竹嶺坊堰垵潰決, 民畝三十石落, 加串坊堰垵潰決, 華城屯畝三十石落, 民畝五十七石落, 魚蘆坊堰垵潰決, 宜嬪房畝七十四石落, 官屯畝十一石落, 上寧嬪房畝五十石落, 大君房畝一百一石落, 下寧嬪房畝四十五石落, 於義宮畝五十石落, 合宮畝潰決, 爲五百二十六石落, 民畝潰決, 爲二百八十二石落是如爲白乎旆. 新溪段, 中部坊民家全頽六戶是如爲白乎旆. 平山段, 金巖坊民家全頽二十六戶, 半頽十四戶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此水災, 均被其患, 而以三邑災形言之, 民家全頽合爲二百六十八戶, 半頽爲九十七戶, 堰垵潰決畝合爲八百八石落是如乎. 民家漂頽, 堰垵潰決, 若是夥多, 誠極驚慘乙仍于, 卽自臣營分遣裨校, 摘奸慰撫, 別加顧助, 漂頽戶段, 原恤典, 以各該邑所在常賑穀, 依例題給後, 借材助丁, 俾卽結構, 堰垵潰決處段, 可以改築者, 各別董役之意, 關飭於該邑是白遣, 半頽戶段, 容可修葺而入處, 故原恤典, 不爲舉論, 全頽戶原恤典, 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依例會減爲白乎旆. 文化·載寧段, 星火摘奸報來之意, 連加關飭爲白乎旆. 十九日之雨, 長淵·豐川·長連·載寧·黃州·遂安·谷山等七邑, 得二犁, 新溪·兔山·金川等三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二十三日之雨,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延安·白川等七邑, 得二犁, 信川·文化·載寧等三邑, 得一犁是如是白如乎. 嗣後列邑得雨形止及漂頽多寡, 隨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16일에 물이 불어나 신천 등 3개 고을과 신계·평산은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독이 터졌는데 캐내기를 기다려 다시 아될 계획 및 19일에 해주 등 13개 고을의 우택 경위와 23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신천의 경우, 동부방은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5가구, 가산우방은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1가구, 대정방은 절반 무너진 백성 집이 4가구, 성월좌방은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8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31가구, 성월우방은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1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8가구, 죽령방은 절반 무너진 백성 집이 1가구, 가곶방은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3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4가구, 어로방은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99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31가구, 합하여 전부 무너진 것이 244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83가구입니다. 동부방에 독이 터진 것은 호화 둔답이 40섬지기·백성 논이 52섬지기, 가산우방에 독이 터진 것은 어의궁답이 20섬지기·경우궁답이 25섬지기·백성 논이 58섬지기, 대정방에 독이 터진 것은 백성 논이 5섬지기, 성월좌방에 독이 터진 것은 명은궁답이 40섬지기·백성 논이 60섬지기, 성월우방에 독이 터진 것은 내사 둔답이 40섬지기·백성 논이 20섬지기, 죽령방에 독이 터진 것은 백성 논이 30섬지기, 가곶방에 독이 터진 것은 화성 둔답이 30섬지기·백성 논이 57섬지기, 어로방에 독이 터진 것은 의빈방답이 74섬지기·관둔답이 11섬지기·상령빈방답 50섬지기·대군방답이 101섬지기·하령빈방답이 45섬지기·어의궁답이 50섬지기, 합하여 독이 터진 궁답은 526섬지기·독이 터진 백성 논은 282섬지기라고 합니다. 신계의 경우, 중부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6가구라고 합니다. 평산의 경우, 금암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26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14가구라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수해의 경우, 모두 재해를 입었는데 3개 고을의 재해 상황으로 말하자면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은 총 268가구, 절반 무너진 집은 97가구, 독이 터진 논은 총 808섬지기라고 합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과 터진 독이 이처럼 매우 많으니 정말로 그지없이 놀랍고 참혹합니다. 그래서 즉시 저의 감영에서 비교를 나눠서 보내 캐내서 위로하게 하고 특별히 돌보고 도와주며,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의 경우 기본 구호로 각각 해당 고을에 있는 상진곡을 규정대로 결정문을 주고, 그런 뒤에 재목을 빌려주고 일꾼을 도와 즉시 집을 짓도록 하고 독이 터진 곳은 고쳐 쌓을 수 있는 곳은 각별히 일을 독려하라는 뜻을 해당 고을에 공문으로 지시하였고, 절반 무너진 집은 수리하면 들어갈 곳이 있으

로 기본 구호는 거론하지 않고, 전부 무너진 집은 기본 구호에 대해 정책을 진흥청에  
올려보냈으니, 해당 진흥청에 지시해서 규정대로 회감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화·재령의 경우, 부리나케 캐내서 보고해 오라는 뜻을 연이어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19일의 비로 장연·풍천·장린·재령·황주·수안·곡산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신계·토  
산·금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23일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연  
안·배천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신천·문화·재령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 및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수효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81. 1863년(철종 14) 5월 29일(양력 7월 14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17a~418b)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71b~73b)

今五月十六日漲水, 信川等三邑, 民家漂頽堰垵潰決及二十三日海州等十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六日漲水, 載寧段, 右里坊民家全頽八戶, 半頽十六戶, 安城坊民家全頽十三戶, 半頽三十一戶, 栗串坊民家全頽四十五戶, 半頽一百三十一戶. 三支江坊民家全頽十戶, 半頽七戶, 合民家全頽爲七十六戶, 半頽爲一百八十五戶, 栗串坊堰垵潰決, 竹洞宮畚二十石落, 福溫宮畚二十八石落, 景祐宮畚四十石落, 壽進宮畚六石五斗落, 龍洞宮畚十斗落, 毓祥宮畚六石落, 民畚十二石一斗落, 三支江防堰垵潰決, 龍洞宮畚十斗落, 順和宮畚二石七斗落, 德溫宮畚三石七斗落, 竹洞宮畚五斗落, 明禮宮畚五斗落, 民畚六石落, 右里坊堰垵潰決, 景祐宮畚四十石落, 民畚五石二斗落, 安城坊堰垵潰決, 德溫宮畚一百五十石二斗落, 民畚二十六石十四斗落, 合宮畚潰決, 爲二百九十八石六斗落, 民畚潰決, 爲五十石二斗落是如爲白乎旡. 文化段, 葛山坊民家全頽五戶, 茸川坊民家全頽十八戶, 用珍坊民家全頽四戶, 興旺坊民家全頽一戶, 方竹坊民家全頽三戶, 弓村坊民家全頽一戶, 草里坊民家全頽八戶, 西部坊民家全頽六戶, 龍門坊民家全頽二十二戶, 合民家全頽爲六十八戶, 葛山坊堰垵潰決, 龍洞宮畚二十石落, 民畚十石五斗落, 茸川坊堰垵潰決, 內需司畚三石十斗落, 民畚九石五斗落, 用珍坊堰垵潰決, 民畚六石落, 西部坊堰垵潰決, 民畚十九石一斗落, 草里坊堰垵潰決, 民畚十二石十斗落, 興旺坊堰垵潰決, 民畚九石十四斗落, 弓村坊堰垵潰決, 民畚十五石五斗落, 方竹坊堰垵潰決, 民畚四石八斗落, 龍門坊堰垵潰決, 民畚八石三斗落, 合宮畚潰決, 爲二十三石十斗落. 民畚爲九十五石六斗落是如. 牒呈是白置有亦. 以兩邑災形觀之, 民家全頽合爲二百四十四戶, 半頽爲一百八十五戶, 宮畚潰決, 爲三百二十二石一斗落, 民畚爲一百四十五石八斗落是白如乎. 民家漂頽, 堰垵潰決, 又若是夥多, 極爲驚慘乙仍于, 卽自臣營發遣裨校, 詳細摘奸, 別加慰撫爲白乎矣, 漂頽戶段, 原恤典, 依例題給後, 借材助丁, 俾卽結構, 堰垵潰決處段, 可以改築者, 各別董役之意, 發關申飭是白遣, 半頽戶段, 容可修葺而入處, 故恤典不爲舉論, 全頽戶恤典題給, 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依例會減爲白乎旡. 營邑摘奸, 來往之際, 自費多日, 致此稽滯, 不勝悚惶是白乎旡. 二十三日之雨, 長連·殷栗·豐川·安岳·瑞興·遂安·新溪·兎山·谷山等九邑, 得一犁, 平山·金川, 得二鋤, 黃州·鳳山段, 大小川渠, 舉皆汎濫,

亦有漂頽潰決之患，而待摘奸更報是如爲白乎旆。農形段，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春粳·小麥幾盡刈穫，早黍·粟三耘垂畢，晚黍·粟·唐稷今始三耘，早稻·木綿方張再耘，晚稻始或再除草，秧苗間間入鋤，豆·太·木麥幾皆耕播是如爲白乎旆，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秋粳舉皆收穫，春粳·小麥今方刈取，早黍·粟三耘伊始，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過半再耘，早稻·木綿始或再耘，晚稻已盡初耘，秧苗方始立苗是如。爲等如，牒呈是白如乎。當此各穀方茂之時，堰垵之潰破，田畝之受傷，若是其浩大，言念民事，誠甚悶然。嗣後形止，待其報來，陸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16일에 물이 불어나 신천 등 3개 고을에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독이 터진 것 및 23일에 해주 등 10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일에 물이 불어나 재령의 경우, 우리방은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8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16가구, 안성방은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3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31가구, 울꽃방은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45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131가구, 삼지강방은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0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7가구, 합하여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76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185가구이며, 울꽃방에 독이 터진 것은 죽동궁답이 20섬지기·복온궁답이 28섬지기·경우궁답이 40섬지기·수진궁답이 6섬 5말지기·용동궁답이 10말지기·육상궁답이 6섬지기·백성 논이 12섬 1말지기이며, 삼지강에 독이 터진 것은 용동궁답이 10말지기·순화궁답이 2섬 7말지기·덕온궁답이 3섬 7말지기·죽동궁답이 5말지기·명례궁답이 5말지기·백성 논이 6섬지기, 우리방에 독이 터진 것은 경우궁답이 40섬지기·백성 논이 5섬 2말지기이며, 안성방에 독이 터진 것은 덕온궁답이 150섬 2말지기·백성 논이 26섬 14말지기이며, 합하여 독이 터진 궁답이 298섬 6말지기·독이 터진 백성 논이 50섬 2말지기라고 합니다.

문화의 경우, 갈산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5가구, 용천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8가구, 용진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4가구, 홍왕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가구, 방죽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3가구, 궁촌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가구, 초리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8가구, 서부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6가구, 용문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22가구, 합하여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68가구이며, 갈산방에 독이



터진 것은 용동궁답이 20섬지기·백성 논이 10섬 5말지기, 용천방에 독이 터진 것은 내수 사답이 3섬 10말지기·백성 논이 9섬 5말지기, 용진방에 독이 터진 것은 백성 논이 6섬지기, 서부방에 독이 터진 것은 백성 논이 19섬 1말지기, 초리방에 독이 터진 것은 백성 논이 12섬 10말지기, 홍왕방에 독이 터진 것은 백성 논이 9섬 14말지기, 궁촌방에 독이 터진 것은 백성 논이 15섬 5말지기, 방죽방에 독이 터진 것은 백성 논이 4섬 8말지기, 용문방에 독이 터진 것은 백성 논이 8섬 3말지기, 합하여 독이 터진 궁답은 23섬 10말지기, 백성 논은 95섬 6말지기라고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2개 고을의 재해 상황으로 보자면 합하여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은 244가구, 절반 무너진 것은 185가구이며, 독이 터진 궁답은 322섬 1말지기, 백성 논은 145섬 8말지기입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과 터진 독이 또 이처럼 매우 많으니 그지없이 놀랍고 참혹합니다. 그래서 즉시 저의 감영에서 비교를 보내 상세히 캐내서 특별히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의 경우 기본 구호를 규정대로 결정문을 준 뒤, 재물을 빌려주고 일꾼을 도와 즉시 집을 짓도록 하고 터진 독의 경우 고쳐 쌓을 수 있는 곳은 각별히 일을 독려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 지시하였고, 절반 무너진 집은 수리하면 들어갈 만한 곳이 있으므로 구호를 거론하지 않고, 전부 무너진 집은 구호를 결정문으로 주고, 성책을 진휼청에 올려보냈습니다. 해당 진휼청에 지시해서 규정대로 회감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영과 고을에서 캐내려고 오고갈 즈음 자연히 여러 날 걸려 이렇게 지체하게 되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23일의 비로 장련·은율·풍천·안악·서흥·수안·신계·토산·곡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산·금천은 2서가 내렸고, 황주·봉산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대부분 범람하였고, 또한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독이 터지는 재해가 있는데 캐내서 다시 보고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용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두벌 김매기를 하고, 모는 간간이 김매기를 하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대부분 수확하였고, 봄보리·봄밀은

지금 막 베어 거두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비로소 더러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모는 막 싹이 돋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한창 무성해지는 때에 터진 독과 손상된 논밭이 이처럼 넓고 크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82. 1863년(철종 14) 6월 5일(양력 7월 20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19c~421a)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77a~79b)

去五月十六日及二十三日之雨水, 黃州·鳳山兩邑民家漂頽田畝潰決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迫于呈遂安郡守鄭洛鉉, 安岳郡守朴來萬牒報內, 伊日大漲, 兩邑民家, 亦多漂沒, 待摘奸更報是如是白加尼, 續接四邑所報, 則黃州牧齊安坊民家全頽二百八十二戶, 半頽六十六戶, 永豐坊民家全頽十七戶, 半頽十七戶. 州南坊民家全頽十一戶, 半頽十一戶, 龜洛坊民家全頽十一戶, 半頽一戶, 都峙坊民家全頽六戶, 半頽一戶, 薪橋坊民家全頽十五戶, 半頽三戶, 仁濟坊民家全頽九戶, 合民家全頽爲三百五十一戶, 半頽爲九十九戶, 州南坊水沈民田二十八日半耕, 民畝一斗落, 仁濟坊浦落民田二日耕, 水沈民田二十日耕, 民畝十七斗落. 薪橋坊水沈民田十二日半耕, 民畝十九斗落. 永豐坊水沈民田四日半耕, 民畝十七斗落, 龜洛坊浦落民田一日耕, 水沈民田二十三日半耕, 民畝一石三斗落, 都峙坊水沈民田九日半耕, 齊安坊浦落民田三日耕, 水沈民田二十三日半耕, 民畝二石一斗落, 合浦落民田爲六日耕, 水沈民田爲一百二十二日耕, 民畝爲五石十八斗落是如爲白<乎>旆. 鳳山段, 鍾巖坊民家全頽三十八戶, 靈泉坊民家全頽十六戶, 帽山坊民家全頽五戶, 舍人坊民家全頽三十八戶. 文井坊民家全頽三十六戶, 萬泉坊民家全頽十七戶, 沙院坊民家全頽十二戶, 土城坊民家全頽十四戶, 西湖坊民家全頽六十一戶, 楚邱坊民家全頽二十四戶, 臥峴坊民家全頽二十戶, 合民家全頽爲二百八十一戶, 土城坊成川民田四十日半耕, 浦落民田十三日耕, 民畝六斗落, 洞仙坊成川民田二十五日半耕, 山水坊成川民田十二日耕, 龜淵坊成川民田二十二日耕, 浦落民田十三日耕, 甘棠坊成川民田十九日耕, 龍山坊成川民田四日半耕, 浦落民田二日耕, 臥峴坊成川民田三十六日耕, 浦落民田二十四日耕, 民畝三斗落, 楚邱坊成川民田三十二日耕, 浦落民田二十八日耕, 西湖坊成川民田八日半耕, 民畝一石十斗落, 浦落民田六日耕, 民畝一石落, 帽山坊成川民田六日耕. 民畝九斗落, 鍾巖坊成川民田二日半耕, 浦落民田十七日耕, 民畝二斗落, 文井坊成川明溫宮田四日耕, 龍洞宮田六日耕, 民田七日耕, 軍器寺畝一石八斗落, 民畝七斗落, 浦落龍洞宮畝二石落, 景祐宮畝十一斗落, 民田十七日耕. 民畝七斗落, 沙院坊成川龍洞宮田十四日耕. 民田十四日耕, 浦落民田十一日耕, 民畝一斗落, 萬川坊成川民田六日耕, 民畝六斗落, 浦落民田八日耕, 舍人坊成川民田七十六日耕, 民畝二石十四斗落, 合成川宮田爲二十四日耕, 民田

爲三百十日半畊，成川軍器寺畚爲一石八斗落，民畚爲五石六斗落，浦落民田爲一百三十九日畊，浦落宮畚爲二石十一斗落，民畚爲一石十九斗落是如爲白乎旆。遂安段，栗界坊民家全額十九戶，西部坊民家全額二戶，梧桐坊民家全額二戶，大坪坊民家全額三戶，合民家全額爲二十六戶是如爲白乎旆。安岳段，龍淵坊民家全額十七戶，半額二十三戶，長令坊民家全額六戶，合民家全額爲二十三戶，半額爲二十三戶，青龍坊覆沙民畚七石十斗落，龍淵坊覆沙民畚七石三斗五升落，民田十一日耕，長令坊覆沙民畚二十石十斗落，民田二十三日半耕，禾石坊覆沙民畚二石六斗落，民田八日耕，板橋坊覆沙龍洞宮畚五石三斗落，民畚五石十九斗落，水沈民畚六十石落，覆沙民田四日耕，合覆沙民田爲四十六日半耕，宮畚爲五石三斗落，民畚爲四十三石八斗五升落，水沈民畚爲六十石落是如是白置有亦。今此四邑水災，又若是孔慘，民家全額合爲六百八十一戶，半額爲一百二十二戶，各項被災宮田合爲二十四日耕，民田爲六百二十四日耕，宮畚合爲九石二斗落，民畚爲一百十六石十一斗五升落是白如乎。全額戶段，原恤典依例題給後，自臣營分遣編裨，這這慰撫，每戶正租各五斗式，亦爲別給，而許斫私養材木，借助隣里役丁，不日結構，依舊入處，期無一民失所棲遑之地是白遣，田畚潰決處段，多備空石杖木等物，躬率董役，及時補築之意，竝加關飭爲白乎旆，全額戶恤典題給，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令該廳依例會減爲白乎旆。災傷去益層生，營邑摘奸，動費旬餘自致登啓之稽緩，尤不勝悚惶是白乎旆。臣營下去五月三十日酉時，又爲始雨，或霖或灑，至今月初二日卯時乃止，測雨器水深爲四寸八分是白乎所，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5월 16일 및 23일의 빗물로 황주·봉산 2개 고을에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논밭의 독이 터진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뒤이어 바친 수안 군수 정낙현과 안악 군수 박내만의 문서 보고 내용에, 그날 물이 크게 불어나 두 고을의 백성 집 또한 떠내려간 것이 많은데, 캐내서 다시 보고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4개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황주목 제안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282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66가구, 영풍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7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17가구, 주남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1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11가구, 구락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1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1가구, 도치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6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1가구, 신교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5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3가구,

인독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9가구, 합하여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351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99가구입니다. 주남방에 물에 잠긴 백성 발은 28일 반 같이·백성 논은 1말지기, 인독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은 2일 같이·물에 잠긴 백성 발은 20일 같이·백성 논은 17말지기, 신교방에 물에 잠긴 백성 발은 12일 같이·백성 논은 19말지기, 영풍방에 물에 잠긴 백성 발은 4일 반 같이·백성 논은 17말지기, 구락방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은 1일 같이·물에 잠긴 백성 발은 23일 반 같이·백성 논은 1섬 3말지기, 도치방에 물에 잠긴 백성 발은 9일 반 같이, 제안방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은 3일 같이·물에 잠긴 백성 발은 23일 반 같이·백성 논은 2섬 1말지기, 합하여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이 6일 같이, 물에 잠긴 백성 발이 122일 같이·백성 논이 5섬 18말지기라고 합니다.

봉산의 경우, 종암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38가구, 영천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6가구, 미산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5가구, 사인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38가구, 문정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36가구, 만천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7가구, 사원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2가구, 토성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4가구, 서호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61가구, 초구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24가구, 와현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20가구, 합하여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281가구이며, 토성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40일 반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은 13일 같이·백성 논은 6말지기, 동선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25일 반 같이, 산수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12일 같이, 구연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22일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은 13일 같이, 감당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19일 같이, 용산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4일 반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은 2일 같이, 와현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36일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은 24일 같이·백성 논은 3말지기, 초구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32일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은 28일 같이, 서호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8일 반 같이·백성 논은 1섬 2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은 6일 같이·백성 논은 1섬지기, 미산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6일 같이·백성 논은 9말지기, 종암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2일 반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은 17일 같이·백성 논은 2말지기, 문정방에 시내가 된 명운궁 발은 4일 같이·용동궁 발은 6일 같이·백성 발은 7일 같이·군기시 논은 1섬 8말지기·백성 논은 7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용동궁 논은 2섬지기·경우궁 논은 11말지기·백성 발은 17일 같이·백성 논은 7말지기, 사원방에 시내가

된 용동궁 발은 14일 같이·백성 발은 14일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은 11일 같이·백성 논은 1말지기, 만천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6일 같이·백성 논은 6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은 8일 같이, 사인방에 시내가 된 백성 발은 76일 같이·백성 백성 논은 2섬 14말지기, 합하여 시내가 된 궁의 발 24일 같이·백성 발이 310일 반 같이, 시내가 된 군기시 논이 1섬 8말지기·백성 논이 5섬 8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발이 139일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궁의 논이 2섬 11말지기·백성 논이 1섬 19말지기라고 합니다.

수안의 경우, 율계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9가구, 서부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2가구, 오동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2가구, 대평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3가구로 합하여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26가구라고 하며, 안악의 경우, 용연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7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23가구, 장령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6가구로 합하여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23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23가구이며, 청룡방에 사태로 뒤덮인 백성 논은 7섬 10말지기, 용연방에 사태로 뒤덮인 백성 논은 7섬 3말 5되지기·백성 발은 11일 같이, 장령방에 사태로 뒤덮인 백성 논은 20섬 10말지기·백성 발은 23일 반 같이, 화석방에 사태로 뒤덮인 백성 논은 2섬 8말지기·백성 발은 8일 같이, 판교방에 사태로 뒤덮인 용동궁 논은 5섬 3말지기·백성 논은 5섬 19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은 60섬지기, 사태로 뒤덮인 백성 논은 7섬 10말지기·백성 발은 4일 같이로 합하여 사태로 뒤덮인 백성 발은 46일 반 같이·궁의 논은 5섬 3말지기·백성 논은 43섬 8말 5되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은 60섬지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4개 고을의 수재가 또 이처럼 매우 참혹한데,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총 681가구, 절반 무너진 집이 122가구이며, 각종 항목의 피해는 궁의 발이 총 24일 같이, 백성 발이 총 624일 같이, 궁의 논이 총 9섬 2말지기, 백성 논이 총 116섬 11말 5되지기입니다. 전부 무너진 가구의 경우 기본 구호를 규정대로 결정문으로 준 뒤 저의 감영에서 비서를 나눠서 보내 날날이 위로하고 가구마다 정조 각 5말씩을 또한 특별히 주고, 개인이 기르는 목재를 베는 것을 허용하고 이웃 마을 일꾼을 빌려 도와서 하루빨리 집을 지어 이전대로 들어가 살아 기어이 갈 곳을 잃고 떠도는 백성이 한 명도 없도록 하고, 논밭에 독이 터진 곳의 경우, 빈 가마니와 긴 나무 등의 물건을 많이 준비하고 몸소 술선해서 일을 독려해 때맞춰 보완하여 쌓으라는 뜻을 아울러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전부 무너진

가구는 구호를 결정문으로 주고 성책을 진홀청에 올려보냈으니, 해당 진홀청에 지시해서 규정대로 회감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가 갈수록 거둢 생겨 감영과 고을에서 캐내며 움직이는 데 10여 일이 걸려 자연히 아뢰는 것을 지체하게 되어 더욱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감영에 지난 5월 30일 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달 초2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83. 1863년(철종 14) 6월 10일(양력 7월 25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21b~421c)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80a~80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信川·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方胚胎, 晚黍·粟·唐稷已盡三耘, 早稻·木綿三耘伊始, 晚稻再耘垂畢, 秧苗幾盡入鋤, 豆·太·木麥舉皆立苗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春粳·小麥舉皆刈穫, 早黍·粟幾盡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今始三耘, 早稻·木綿過半再耘, 晚稻間或再耘, 秧苗方始入鋤, 豆·太·木麥次第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漲水, 沿野諸邑低濕之地, 木花葉縮, 晚秧色黃, 難望善就, 民事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모는 거의 다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대부분 싹이 돋았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대부분 베어 수확하였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모는 막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불어난 물로 물가나 들판의 여러 고을의 낮고 습한 지역의 목화는 잎이 오그라들고 늦은 모는 색이 누렇게 되어 잘 여물기를 바라기 어려우니 백성들의 사정이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384. 1863년(철종 14) 6월 12일(양력 7월 27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22b~422b)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82b~82b)

臣營下今六月十二日子時始雨，或霏或灑，當日午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一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2일 자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1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85. 1863년(철종 14) 6월 15일(양력 7월 30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23a~423b)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84a~84a)

臣營下今六月十二日得雨一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淵·殷栗·金川等三邑, 川渠漲流, 信川·文化·延安·白川·瑞興等五邑, 得二犁, 海州·松禾, 得一犁, 載寧·平山,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六月十三日酉時又雨, 或霏或灑, 十四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2일에 내린 비가 1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연·은율·금천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신천·문화·연안·배천·서흥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송화는 1려가 내렸고, 재령·평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이번 6월 13일 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4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86. 1863년(철종 14) 6월 17일(양력 8월 1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23b~423b)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84b~84b)

今六月十四日臣營下得雨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密雲四低, 自十五日申時又雨, 通宵連晝, 一直霪下, 十六日亥時至, 測雨器水深爲一尺八寸是白如乎, 以臣營下言之, 平陸成川, 畦塍潰決, 田畝各穀, 舉皆沈墊, 目下民事, 萬萬憂悶. 列邑得雨多少, 被災淺深,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14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 뽕뽕한 구름이 사방에 깔렸다가 15일 신시부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부터 낮까지 연이어 줄곧 주룩주룩 내리다가 16일 해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자 8치였습니다. 저의 감영으로 말하자면 육지가 평평해지고 시내를 이뤘으며 밭두둑이 터지고 논밭의 각종 곡식은 대부분 물에 잠겼으니, 눈앞의 백성 사정은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비의 양과 피해 정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87. 1863년(철종 14) 6월 20일(양력 8월 4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23d~424a)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85a~86a)

道內農形及臣營下六月十六日得雨一寸八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發穗, 晚黍·粟·唐稷今始胚胎, 早稻·木綿過半三耘, 晚稻三耘伊始, 豆·太·木麥今方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舉皆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三耘垂畢, 早稻·木綿間或三耘, 晚稻過半再耘, 豆·太·木麥幾盡立苗, 而十六日之雨, 海州·康翎·襄津·長淵·載寧·鳳山·黃州·延安·金川·白川·平山·瑞興等十二邑, 自十五日, 至十六日雨水大漲, 汎濫淳湫, 田畓潰決, 民戶漂頽, 待水退消詳更報是如白遣, 信川·文化·殷栗·安岳·長連·松禾等六邑, 川渠漲溢, 不可以鋤犁論, 而被災淺深, 摘奸更報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此近二尺雨水, 挽近罕有, 極備爲災, 峽野同然, 田畓之汰覆, 民戶之頽壓, 勢所必至, 民情穡事, 萬萬驚慘是白如乎. 嗣後形止, 待其報來, 陸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저의 감영에 6월 16일에 내린 비가 1치 8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이삭을 배기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알을 뺐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간혹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했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싹이 돋았으며, 16일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장연·재령·봉산·황주·연안·금천·배천·평산·서흥 등 12개 고을은 15일부터 16일까지 빗물이 크게 불어나 범람하고 고였으며, 논밭의 둑은 터지고 백성들의 집은 떠내려가거나 무너졌는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자세히 다시 보고하겠다고 하며, 신천·문화·은율·안악·장련·

송화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쳐 1서·1려로 따질 수 없으며, 피해의 정도는  
캐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에 2자 가까운 빗물은 최근에  
드물게 있던 일이며 갓가지로 재해가 되니 산골짜기나 들판은 똑같이 논밭은 사태로  
뒤덮이고 백성들 집은 무너지는 일은 형세상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니 백성들의 심정과  
농사의 경우 매우 놀랍고 참혹합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계속해서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88. 1863년(철종 14) 6월 25일(양력 8월 9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26d~427c)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92a~93b)

今月十六日之雨, 海州等邑大漲汎濫, 民家漂頽, 田畝潰決, 待水退摘奸, 更報計料緣由及二十日臣營下得雨九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金川兼任白川郡守李秀岳, 平山府使金鎰淳, 兎山兼任白川郡守李秀岳牒報是白乎則, 十六日漲水, 金川段, 邑內坊民家全頽九十五戶, 江西坊民家全頽四十四戶, 江北坊民家全頽三百六十三戶, 九水坊民家全頽八十四戶, 江東坊民家全頽十六戶, 左面坊民家全頽十一戶, 右面坊民家全頽六戶, 人命渰死一名, 江南坊民家全頽二十三戶, 口耳坊民家全頽二十戶, 古縣坊民家全頽四十七戶, 人命渰死二名, 好賢坊民家全頽三十戶, 冬火坊民家全頽四戶, 合民家全頽爲七百八十五戶, 人命渰死爲三名是如爲白乎旆. 平山段, 邑內坊民家全頽十五戶, 半頽九戶, 寶山坊民家全頽十三戶, 半頽七戶, 人命壓死一名, 安城坊民家全頽十五戶, 半頽二十戶, 金巖坊民家全頽一百四十一戶, 半頽三十四戶, 人命渰死六名, 細谷坊民家全頽三十五戶, 半頽十一戶, 西澤坊民家全頽七戶, 半頽五戶, 合民家全頽爲二百二十六戶, 半頽爲八十六戶, 人命渰死六名, 壓死一名, 合爲七名, 而稍遠各坊摘奸更報是如爲白乎旆. 兎山段, 邑內坊民家全頽六十五戶, 宿仁坊民家全頽八戶, 泉洞坊民家全頽四戶, 西加洞坊民家全頽十二戶, 合民家全頽爲八十九戶是如爲白有置. 民家全頽合爲一千一百戶, 半頽合爲八十六戶是白乎等以. 全頽戶及渰壓死人等, 原恤典依例題給, 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 令該廳依例會減爲白乎旆. 海州段, 漂頽潰決, 有倍於他邑, 且幅圓甚大分叱除良, 亦自臣營別遣編裨, 使之這這慰恤, 消詳摘奸後, 待回告形止, 隨即馳啓. 而二十日之雨, 海州·康翎·延安·白川等四邑, 得一犁, 襄津·載寧·信川文化·長湍等五邑, 得二鋤是如是白如乎, 各邑得雨形止, 更待報來, 一體登聞計料爲白乎旆. 上項諸邑被災, 若是孔酷, 此時曠官, 實爲可悶. 金川郡守李壇, 兎山縣監金延根, 俱已受由上京, 竝令該曹催促下送爲白只爲.

이번 달 16일의 비로 해주 등 고을에 물이 크게 불어나 범람하고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논밭의 독이 터져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서 캐내 다시 보고할 계획인 연유 및 22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9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금천 겸임 배천 군수 이수악, 평산 부사 김일순, 토산 겸임 배천 군수 이수악의 문서 보고를 접수해

보니, 16일에 불어난 물로 금천의 경우, 읍내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95가구, 강서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44가구, 강북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363가구, 구수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84가구, 강동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6가구, 좌면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1가구, 우면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6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강남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23가구, 구이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20가구, 고현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47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 호현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30가구, 동화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4가구,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총 785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명이라고 합니다.

평산의 경우, 읍내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5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9가구, 보산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3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7가구·갈려 죽은 사람이 1명, 안성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5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20가구, 금암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41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34가구·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6명, 세곡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35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11가구, 서택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7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5가구,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총 226가구·절반 무너진 집이 총 86가구, 물에 빠져 죽은 사람 6명과 갈려 죽은 사람 1명으로 총 7명이며, 조금 먼 각 방은 캐내서 다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토산의 경우, 읍내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65가구, 숙인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8가구, 천동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4가구, 서가동방에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12가수로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이 총 89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무너진 백성 집은 총 1,100가구, 절반 무너진 집은 총 89가구입니다. 전부 무너진 가구 및 물에 빠져 죽거나 갈려 죽은 사람 등은 기본 구호를 규정대로 결정문을 주고 정책을 진휼청에 올려보냈으니 해당 진휼청에 지시하여 규정대로 회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의 경우,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과 터진 독이 다른 고을보다 갑절이고, 넓이가 매우 클 뿐만 아니어서 또한 저의 감영에서 별도로 비서를 보내 낱알이 위로하며 돌보게 하고 상세히 캐낸 뒤 돌아오기를 기다려 경위를 보고하는 대로 즉시 긴급 보고하겠습니다. 20일의 비로 해주·강령·연안·배천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웅진·재령·신천·문화·장연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각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일체로 아될 계획입니다. 위 향의 여러 고을의 피해가 이처럼 매우 혹독한데

이때에 수령의 자리가 비어 정말로 걱정 됩니다. 금천 군수 이의, 토산 현감 김연근은 모두 이미 휴가를 얻어 상경했으니 해당 관아에 지시하여 모두 빨리 내려보내도록 재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89. 1863년(철종 14) 6월 29일(양력 8월 13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28c~428d)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96a~96b)

道內農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方入實, 晚黍·粟·唐稷幾皆發穗, 早稻始或胚胎, 木綿間間起花, 晚稻三耘垂畢, 豆·太·木麥幾盡初耘是如爲白乎旃,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方張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次第胚胎, 早稻·木綿過半三耘, 晚稻今始三耘, 豆·太·木麥間或入鋤, 而今番水災, 傍川焉汎濫, 高燥焉汰覆, 毋論沿峽, 田畝各穀, 舉皆受損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各穀成就之時, 值此極備之災, 言念穡事, 誠切憂悶是白如乎.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이삭이 됐고, 올벼는 비로소 더러 이삭을 배고, 묵화는 간간이 꽃이 피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마쳤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차례로 이삭을 배고, 올벼·묵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간혹 김매기를 하는데, 이번 수재의 경우 시냇가는 범람하고 높고 메마른 곳은 사태로 뒤덮이니 물가나 산골짜기를 따질 것 없이 논밭의 각종 곡식이 대부분 손해를 입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여무는 때에 이처럼 갖가지 재해를 당하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90. 1863년(철종 14) 7월 3일(양력 8월 1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30a~430a)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98b~99a)

臣營下今七月初二日戌時始雨，或霏或灑，初三日寅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平，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초2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91. 1863년(철종 14) 7월 7일(양력 8월 20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30a~433d)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99a~106b)

去六月十六日漲水, 海州牧民家漂頽田畝潰決別遣摘奸之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卽接臣營軍官李鍾植回告及海州判官南秉善所報, 則州內坊民家全頽四戶, 半頽四戶, 成川民畝五斗落, 田二日半耕, 覆沙民畝十一斗落, (田二日半耕, 覆沙民畝十一斗落), 田一日半耕, 日新坊民家全頽三戶, 半頽十二戶, 成川民畝十五石十四斗落, 民田二日耕, 浦落民畝十八石五斗落, 覆沙民田二日半耕, 上平倉坊民家全頽一戶, 半頽二十一戶, 成川民畝六石二斗落, 田三日半耕, 浦落民畝七石九斗落, 覆沙民畝三日半耕, 下平倉坊民家全頽三戶, 半頽十八戶, 成川民畝六石十五斗落, 民田四日半耕. 浦落民畝七石十三斗落, 覆沙民田五日耕, 東大公里坊民家全頽二戶, 成川民畝十一斗落. 浦落民畝七斗落, 田八日耕, 水沈田二十日耕. 西大公里坊民家全頽一戶, 成川民畝十七斗落, 浦落民畝八斗落, 田十二日耕, 水沈田二十八日耕, 花陽坊民家全頽三戶, 半頽二戶, 成川民畝十九斗落, 浦落民畝一石二斗落, 田八日耕, 水沈田十二日耕, 秋伊洞坊民家全頽五戶. 半頽十六戶, 成川民畝十一石十四斗落, 田九日耕, 浦落民畝十一石十四斗落, 覆沙民田九日耕, 來城坊民家全頽四戶, 半頽二十四戶, 成川民畝五石十五斗落, 田八日耕, 浦落民畝五石十六斗落, 覆沙民田七日半耕, 外東坊民家半頽二戶, 成川民畝十五斗落, 覆沙民畝十七斗落, 浦落民田十四日耕, 水沈民田九日耕, 披錦坊民家半頽六戶, 成川民畝十八斗落, 浦落民畝一石二斗落, 田二十七日耕, 覆沙民畝一石五斗落, 田四十三日耕, 水沈民田三十六日耕, 泉決坊民家全頽二戶, 半頽二戶, 成川民畝九斗落, 浦落民畝三斗落, 田七日耕, 覆沙民畝十六斗落, 田十三日耕, 水沈民田二十四日耕. 栗枝坊民家半頽七戶, 成川民畝四石十八斗落, 田一日耕, 覆沙民畝一石五斗落, 田九日半耕, 軍良谷坊民家全頽三戶, 半頽一戶, 成川民畝十五石十四斗落, 田三十五日半耕, 覆沙民畝六石十斗落, 田三十二日半耕, 所羅洞坊民家全頽一戶, 半頽五戶, 成川民畝六石十八斗落. 田十一日半耕, 覆沙民畝八石十一斗落, 田十五日半耕, 高山坊民家全頽五戶, 半頽十戶, 成川民畝二十一石十七斗落, 田四十二日半耕. 覆沙民畝二十一石十九斗落, 田四十一日半耕, 代陳坊民家全頽四戶, 半頽二十九戶, 成川民畝五石十一斗落, 田六十一日半耕, 覆沙民畝七石九斗落, 田一百九日半耕, 茄川坊民

家全額四戶，半額二十戶，成川民畜三石十二斗落，田十四日半耕，覆沙民畜十石七斗落，田二十一日耕，白雲坊民家全額三戶，半額三戶，成川民畜二石十五斗落，田二十八日半耕，覆沙民畜一石一斗七升落，田九日耕，檢丹坊民家全額一戶，半額五戶，成川民畜七石落，田十五日耕，覆沙民畜六石十八斗落，田十六日耕，交井坊民家全額三戶，半額十六戶，成川民畜二石六斗落，田四日耕，覆沙民畜五石九斗五升落，田七日半耕，青山坊民家全額一戶，半額三戶，成川民畜五石三斗落，田六十三日半耕，覆沙民畜二石十五斗落，田三十五日耕，馭車里坊民家全額二戶，半額一戶，成川民畜一石五斗落，田二十八日半耕，覆沙民畜十斗落，田二十二日耕，西邊坊民家全額三戶，覆沙民畜十石十六斗落，成川民田十三日耕，古壯朴坊民家全額三戶，半額一戶，成川民畜九石七斗落，田五十日耕，未力坊民家半額四戶，成川民畜二十一石三斗落，田四十八日耕，馬山坊民家全額十五戶，半額十七戶，覆沙民畜二十八石三斗落，田四十四日半耕，月良谷坊民家全額三戶，半額四戶，成川民畜十石十四斗落，田四十七日半耕，茄佐洞坊民家全額三戶，成川民畜十七石十八斗落，田二十三日耕，席洞坊民家全額一戶，半額五戶，覆沙民畜九石十斗落，田五十七日耕，三谷坊民家全額一戶，半額五戶，成川民畜十一石二斗落，田七十九日耕，祿達坊民家全額五戶，成川民畜二十五石十四斗落，田五十日耕，東江倉坊民家全額七戶，半額十五戶，成川民畜三石五斗落，田四日耕，覆沙民畜一石十五斗落，田三日耕，水沈民畜六石落，松林坊民家全額十三戶，半額十六戶，成川民畜八石八斗落，田十四日耕，覆沙民畜四石八斗落，田九日半耕，水沈民畜十一石七斗落，海南坊民家全額十一戶，半額十五戶，成川民畜二石八斗落，田三日半耕，覆沙民畜三石十斗落，田七日半耕，水沈民畜八石十斗落，合民家全額爲一百二十戶，半額爲二百八十九戶，成川畜爲二百三十七石十六斗落，田爲六百六十七日半耕，浦落畜爲五十三石十九斗落，田爲七十六日耕，覆沙畜爲一百三十四石六斗二升落，田爲五百二十五日半耕，水沈畜爲二十五石十七斗落，田爲一百二十九日耕是如爲白乎旅。續接載寧郡守李純翼，安岳郡守朴來萬，白川郡守李秀岳，延安兼任白川郡守李秀岳，長淵縣監吳宅善所報是白乎則，載寧段，左里坊民家半額二戶，安城坊民家全額九戶，半額三戶，潰決宮畜七石二斗落，民畜三石八斗落，栗串坊民家全額九百七十戶，半額四百二十四戶，滄死一名，壓死一名，潰決宮畜一百五十六石十五斗落，民畜七十四石五斗落，三支江坊民家全額一百八戶，半額九十二戶，潰決宮畜十一石落，民畜四石六斗落，禹導川坊民家全額四戶，銀叱只坊民家全額五十二戶，半額三十戶，花山坊民家全額三戶，半額三戶，驛堡坊民家全額五戶，半額三戶，聖堂坊民家全額九戶，半額十三戶，柳等洞坊民家全額二戶，半額三

戶，方洞坊民家全額三戶。合民家全額爲一千一百六十二戶，半額爲五百七十六戶，淹死一名，壓死一名，潰決宮畝爲一百七十四石十七斗落，民畝爲一百一石十九斗落是如爲白乎跡。安岳段，青龍坊民家全額七戶，覆沙民畝二百七石十一斗落，田六日半耕，順豐坊民家全額十五戶，覆沙民畝十六斗落，田二十七日耕，龍淵坊民家全額十七戶，覆沙民畝十石六斗落，田三十八日半耕，大元坊民家全額三十三戶，覆沙民畝二十一石十三斗落，田六十一日耕，遠城坊民家全額十一戶，覆沙民畝五百二石十六斗落，田六十一日耕，安谷坊民家全額二十二戶，覆沙民畝七石一斗落，涉河坊民家全額十三戶，覆沙民畝二百六十四石落，田七十九日耕。大德坊民家全額一戶，覆沙民畝五十石十七斗落，田一日耕，杏村坊民家全額二戶，覆沙民畝六石三斗落，田一日耕，草郊坊民家全額五戶，銀川坊民家全額九戶，覆沙民畝六石九斗落，田十一日耕，屹紅坊民家全額四戶，覆沙民畝十一石十七斗落，田二十六日耕，長令坊民家全額二十戶，覆沙民畝三十二石四斗落，田二十二日耕，禾石坊民家全額二戶，覆沙民畝一石十一斗落，田七日耕，文山坊覆沙民畝九石八斗五升落，田十七日耕，板橋坊覆沙民田三日耕。合民家全額爲一百六十一戶，覆沙民畝爲一千一百三十二石十二斗五升落，田爲三百七十一日耕是如爲白乎跡。長淵段，樂山坊民家全額三戶，浦落民畝十五斗落，田五十三日耕，牧甘坊民家全額七戶，浦落民畝十七斗落，田七十一日耕，速內坊民家全額四戶，浦落民田七十三日耕，速外坊民家全額二十九戶，成川民畝十二石九斗落，浦落民畝七石七斗七升落，候仙坊民家全額四戶，成川民畝三石十斗落，浦落民畝五石十三斗落，南昌坊民家全額五戶，浦落民田十五日半耕，大曲坊民家全額二戶，成川民畝十五石十四斗落，浦落民畝十一石十五斗落，秋花坊民家全額四十戶。成川民畝三十一石五斗落，浦落民畝十二石五斗落，尊澤坊民家全額十戶，浦落民畝五石三斗落，田十五日耕。新化坊民家全額十戶，成川民畝二石七斗落，浦落民畝三石五斗落，雪山坊民家全額十二戶，成川民畝二石三斗落。浦落民畝三石三斗落，田五日耕，海安坊民家全額九戶，成川民畝九石一斗五升落，浦落民畝二石三斗落。合民家全額爲一百三十五戶。成川民畝爲七十六石九斗五升落，浦落民畝爲五十二石六斗五升落，田爲二百三十二日半耕是如爲白乎跡。白川段，金谷坊成川民畝三十八石九斗落，浦落民畝三十三石一斗落。覆沙民畝六石五斗落，水沈民畝五石十四斗落，蘆川坊浦落民畝三十一石十三斗落，水沈民畝一石七斗落，角山坊浦落民畝二十一石落，水沈民畝五十八石六斗落，小鶴坊浦落民畝三十七石十四斗落，如意坊成川民畝一石十二斗落，浦落民畝二十石十九斗落，覆沙民畝一石十八斗落，水沈民畝二十二石七斗落。無仇坊覆沙民畝七石六斗落，水沈民畝三十七石十七斗落，紙尺坊

浦落民畝三十六石七斗落，覆沙民畝六石十二斗落，水沈民畝二十三石十一斗落，柳川坊浦落民畝三十二石三斗落，水沈民畝四十二石十五斗落，道下坊成川民畝二石十斗落，覆沙民畝一石十四斗落。浦落民畝六石十六斗落，水沈民畝三十三石十四斗落，道上坊浦落民畝十二石十九斗落。覆沙民畝二十二石二斗落，水沈民畝二十八石十斗落，浦落民田五日耕，覆沙民田十三日半耕，花山坊浦落民畝五石十九斗落，覆沙民畝十二石三斗落，水沈民畝三十六石十四斗落，浦落民田三日半耕，覆沙民田十六日半耕。上今山坊成川民畝七石一斗落，浦落民畝五石十三斗落，覆沙民畝八石落，下今山坊成川民畝二十五石七斗落，覆沙民畝十三石七斗落。成川民田十日耕，覆沙民田七日半耕，鉢山坊成川民畝十七石十六斗落，浦落民畝二十八石十一斗落，覆沙民畝九石十四斗落，水沈民畝二十八石落，東村坊成川民畝七石十七斗落。田一日耕，浦落民畝二十三石十九斗落，水沈民畝六十五石十一斗落，西村坊成川民畝五石十斗落，浦落民畝十六石十二斗落，覆沙民畝二石十六斗落，水沈民畝九石八斗落。合成川民畝爲一百六石二斗落，浦落民畝爲三百十三石六斗落，覆沙民畝爲九十一石十七斗落，水沈民畝爲三百九十三石十四斗落，浦落民田爲八日半耕，覆沙民田爲三十七日半耕。成川民田爲十一日耕是如爲白乎旆。延安段，今岩坊覆沙民畝七石五斗落，海溢民畝二十一石十三斗落，水沈民畝一百五石二斗落，青松坊覆沙民畝九石十一斗落，海溢民畝二十一石十二斗落，水沈民畝一百八石八斗落，亭村坊覆沙民畝十石十一斗五升落，海溢民畝四十五石十一斗落，水沈民畝一百一石二斗落，大山坊海溢民畝四十三石一斗落，水沈民畝一百二石五斗落，新城坊海溢民畝三十九石十三斗落，水沈民畝一百四石十四斗落，苐串坊海溢民畝四十一石二斗落，水沈民畝一百五石十九斗落。合覆沙民畝爲二十七石七斗五升落，海溢民畝爲二百十二石十二斗落，水沈民畝爲六百三十七石十斗落是如爲白乎旆。追後呈鳳山郡守金沃根牒報內，本郡鍾岩坊無役林京學年三十九歲身，邑內坊無役金處恒年三十一歲身，今番漲水，俱爲淹死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已上全半額竝爲二千四百四十三戶，人物淹壓爲四名，潰決成川浦落覆沙水沈等畝爲三千七百七十二石十一斗二升落，田爲二千五十八日半耕是白如乎。似此災形，挽近罕有，目下民情，極爲驚慘乙仍于，分遣徧裨，連加顧助，一一慰撫，淹壓死人及漂額戶原恤典，卽爲題給後，恤典成冊，上送于賑恤廳爲白去乎。令該廳依例會減爲白乎旆。漂額戶段，借材助丁，俾卽結構，田畝段，可以還起者還起，可以修築者修築，俾爲復業之意，措辭嚴飭於各該邑是白遣，別恤典段，旣伏承不待回下，一體分給之處分，亦以此意，行關於慰諭使谷山府使尹泰經處爲白遣，別恤典劃給錢段，松禾·安岳·信川·鳳山·康翎等邑所在宣惠廳詳定上納中三千

七百九十八兩八錢，斟量折留爲白乎旆。各邑漂頽，固當隨報登聞是白乎乃，旣多爽實，則不可不使之消詳摘奸，務從停當，故自爾遲滯分叱除良，災邑之設，以積水汎濫，阡陌路阻，未卽遍審，致此滯緩，今始報來，揆以舉行，萬萬稽忽是白如乎。各該邑任掌輩，自臣營今方嚴懲，而臣亦不勝惶恐。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6월 16일 불어난 물로 해주목에서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집과 독이 터진 논밭을 별도로 비서를 보내 캐내는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저의 감영 군관 이종식이 돌아와 보고한 것 및 해주 판관 남병선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주내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4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5말지기·밭이 2일 반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1말지기·밭이 1일 반 같이, 일신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2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5섬 145말지기·백성 밭이 2일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18섬 5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밭이 2일 반 같이, 상평창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1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6섬 2말지기·밭이 3일 반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7섬 9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밭이 3일 반 같이, 하평창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8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6섬 15말지기·백성 밭이 4일 반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7섬 13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밭이 5일 같이, 동대공리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1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7말지기·밭이 8일 같이, 물에 잠긴 밭이 20일 같이, 서대공리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7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8말지기·밭이 12일 같이, 물에 잠긴 밭이 28일 같이, 화양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9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1섬 2말지기·밭이 8일 같이, 물에 잠긴 밭이 12일 같이, 추이동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6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1섬 14말지기·밭이 9일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11섬 14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밭이 9일 같이, 내성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4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5섬 15말지기·밭이 8일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5섬 16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밭이 7일 반 같이, 외동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5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7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밭이 14일 같이, 물에 잠긴 백성 밭이 9일 같이, 피금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6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8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1섬 2말지기·밭이 27일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섬 5말지기·밭이 43일 같이, 물에 잠긴 백성 밭이 36일 같이, 천결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9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3말지기·밭이 7일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6말지기·밭이 13일 같이, 물에 잠긴 백성 밭이 24일 같이, 율지방에 백성 집 중 절반 무너진 것이 7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4섬 18말지기·밭이 1일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섬 5말지기·밭이 9일 반 같이, 군량곡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5섬 14말지기·밭이 35일 반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6섬 10말지기·밭이 32일 같이, 소라동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5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6섬 18말지기·밭이 11일 반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8섬 11말지기·밭이 15일 반 같이, 고산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0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21섬 17말지기·밭이 42일 반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21섬 19말지기·밭이 41일 반 같이, 대진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9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5섬 11말지기·밭이 61일 반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7섬 9말지기·밭이 109일 반 같이, 가천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0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3섬 12말지기·밭이 14일 반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0섬 7말지기·밭이 21일 반 같이, 백운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2섬 15말지기·밭이 28일 반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섬 1말 7되지기·밭이 9일 같이, 검단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5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7섬지기·밭이 15일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6섬 18말지기·밭이 16일 같이, 교정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6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2섬 6말지기·밭이 4일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5섬 9말 5되지기·밭이 7일 반 같이, 청산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5섬 3말지기·밭이 63일 반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2섬 15말지기·밭이



35일 같이, 어차리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섬 5말지기·밭이 28일 반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0말지기·밭이 22일 반 같이, 서변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0섬 16말지기, 시내가 된 백성 밭이 13일 같이, 고장박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9섬 7말지기·밭이 50일 같이, 미력방에 백성 집 중 절반 무너진 것이 4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21섬 3말지기·밭이 48일 같이, 마산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5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7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28섬 3말지기·밭이 44일 반 같이, 월량곡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4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0섬 14말지기·밭이 47일 반 같이, 가좌동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7섬 18말지기·밭이 23일 같이, 석동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5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9섬 10말지기·밭이 57일 반 같이, 삼곡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5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1섬 2말지기·밭이 79일 반 같이, 녹달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25섬 14말지기·밭이 50일 같이, 동강창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7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5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3섬 5말지기·밭이 4일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섬 15말지기·밭이 3일 같이, 물에 잠긴 백성 논이 6섬지기, 송림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3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6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8섬 8말지기·밭이 14일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4섬 8말지기·밭이 9일 반 같이, 물에 잠긴 백성 논이 11섬 7말지기, 해남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1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5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2섬 8말지기·밭이 3일 반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3섬 10말지기·밭이 7일 반 같이, 물에 잠긴 백성 논이 8섬 10말지기로, 합하여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20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89가구, 시내가 된 논이 237섬 16말지기·밭이 667일 반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논이 53섬 19말지기·밭이 76일 같이, 사태로 덮인 논이 134섬 6말 2되지기·밭이 525일 반 같이, 물에 잠긴 논이 25섬 17말지기·밭이 129일 같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재령 군수 이순익, 안악 군수 박내만, 배천 군수 이수악, 연안 겸임 배천 군수 이수악, 장연 현감 오택선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재령의 경우, 좌리방에 백성 집 중

절반 무너진 것이 2가구, 안성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9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가구, 독이 터진 궁의 논이 7섬 2말지가·백성 논이 3섬 8말지기, 율곡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970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424가구,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깔려 죽은 사람이 1명, 독이 터진 궁의 논이 156섬 15말지가·백성 논이 74섬 5말지기, 삼지강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08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72가구, 독이 터진 궁의 논이 11섬지가·백성 논이 4섬 6말지기, 우도천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 은질지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2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0가구, 화산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가구, 역대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가구, 성당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9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3가구, 유등동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가구, 방동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로 합하여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162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576가구,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 깔려 죽은 사람이 1명, 독이 터진 궁의 논이 174섬 17말지가·백성 논이 101섬 19말지기라고 합니다.

안악의 경우, 청룡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7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207섬 11말지가·밭이 6일 반 같이, 순풍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5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6말지가·밭이 27일 같이, 용연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7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0섬 6말지가·밭이 38일 반 같이, 대원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3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21섬 13말지가·밭이 61일 같이, 원성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1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502섬 16말지가·밭이 61일 같이, 안곡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2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7섬 1말지기, 섭하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3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264섬지가·밭이 79일 같이, 대덕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50섬 17말지가·밭이 1일 같이, 행촌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6섬 3말지가·밭이 1일 같이, 초교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 은천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9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6섬 9말지가·밭이 11일 같이, 흘흥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1섬 17말지가·밭이 26일 반 같이, 장령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0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32섬 4말지기·밭이 22일 같이, 화석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섬 11말지기·밭이 7일 같이, 문산방에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9섬 8말 5되지기·밭이 17일 같이, 판교방에 사태로 덮인 백성 밭이 3일 같이로 합하여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61가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132섬 12말 5되지기·밭이 371일 같이라고 합니다.

장연의 경우, 낙산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15말지기·밭이 53일 같이, 목감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7가구,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17말지기·밭이 71일 같이, 속내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밭이 73일 같이, 속외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9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2섬 9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7섬 7말 7되지기, 후선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3섬 10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5섬 13말지기, 남창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가구,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밭이 15일 반 같이, 대곡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5섬 14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11섬 15말지기, 추화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0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31섬 5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12섬 5말지기, 순택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0가구,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5섬 3말지기·밭이 15일 같이, 신화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0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2섬 7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3섬 5말지기, 설산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2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2섬 3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3섬 3말지기·밭이 5일 같이, 해안방에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9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9섬 1말 5되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2섬 3말지기로, 합하여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35가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76섬 9말 5되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52섬 6말 5되지기·밭이 232일 반 같이라고 합니다.

배천의 경우, 금곡방에 시내가 된 백성 논이 38섬 9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33섬 1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6섬 5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5섬 14말지기, 노천방에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31섬 13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1섬 7말지기, 각산방에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21섬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58섬

6말지기, 소학방에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37섬 14말지기, 여의방에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섬 12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20섬 19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섬 18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22섬 7말지기, 무구방에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7섬 6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37섬 17말지기, 지척방에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36섬 7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6섬 12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23섬 11말지기, 유천방에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32섬 3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42섬 15말지기, 도하방에 시내가 된 백성 논이 2섬 10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섬 14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6섬 16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33섬 14말지기, 도상방에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12섬 19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22섬 2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28섬 10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밭이 5일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밭이 13일 반 같이, 화산방에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5섬 197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2섬 3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36섬 14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밭이 3일 반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밭이 16일 반 같이, 상금산방에 시내가 된 백성 논이 7섬 1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5섬 13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8섬지기, 하금산방에 시내가 된 백성 논이 25섬 7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3섬 7말지기, 시내가 된 백성 밭이 10일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밭이 7일 반 같이, 발산방에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7섬 16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28섬 11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9섬 14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28섬지기, 동춘방에 시내가 된 백성 논이 7섬 17말지기·밭이 1일 같이,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23섬 19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65섬 11말지기, 서춘방에 시내가 된 백성 논이 5섬 10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16섬 12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2섬 16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9섬 8말지기로, 합하여 시내가 된 백성 논이 106섬 2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논이 313섬 6말지기,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91섬 17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393섬 14말지기, 포구에 떨어져 나간 백성 밭이 8일 반 같이, 사태로 덮인 백성 밭이 37일 반 같이, 시내가 된 백성 밭이 11일 같이라고 합니다.

연안의 경우, 금암방에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7섬 5말지기, 바닷물이 넘친 백성 논이 21섬 13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105섬 2말지기, 청송방에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9섬 11말지기, 바닷물이 넘친 백성 논이 21섬 12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108섬 8말지기, 정촌방에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10섬 11말 5되지기, 바닷물이 넘친 백성 논이 45섬 11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111섬 2말지기, 대산방에 바닷물이 넘친 백성 논이 43섬 1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102섬 5말지기, 신성방에 바닷물이 넘친 백성 논이 39섬 13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104섬 14말지기, 잉곳방에 바닷물이 넘친 백성 논이 41섬 2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105섬 19말지기로, 합하여 사태로 덮인 백성 논이 27섬 7말 5되지기, 바닷물이 넘친 백성 논이 212섬 12말지기, 물에 잠긴 백성 논이 637섬 10말지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바친 봉산 군수 김옥근의 문서 보고 내용에, “본 봉산군 종암방의 직역이 없는 나이 39세의 임경학, 읍내방의 직역이 없는 나이 31세의 김처항이 이번에 불어난 물에 모두 빠져 사망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전부 또는 절반 무너진 집은 아울러 2,443가구,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은 4명, 독이 터지거나 시내가 되거나 포구에 떨어져 나가거나 사태로 덮이거나 물에 잠기는 등의 논은 3,772섬 11말 2되지기·밭은 2,058일 반 같이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재해 상황은 최근에 드문 일이니, 눈앞의 백성 심정은 그지없이 놀랍고 참혹합니다. 그래서 비서를 나눠 보내 연이어 돌보며 돕고 하나하나 위로하고,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 및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은 기본 구호를 즉시 결정문으로 준 뒤 구호 정책을 진휼청에 올려보냈으니, 해당 진휼청에 지시하여 규정대로 회감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의 경우 재목을 빌려주고 일꾼을 도와 즉시 집을 짓게 하고, 논밭의 경우 도로 개간할 수 있는 것은 개간하고 고쳐 쌓을 수 있는 것은 고쳐 쌓아 본업으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작성하여 각각 해당 고을에 엄중히 지시하였습니다. 특별 구호의 경우, 이미 회답이 내리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지시를 받들어 일체로 나누어 주어 처분하고, 또한 이러한 뜻으로 위유사 곡산 부사 윤태경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별 구호를 떼어 주는 돈의 경우, 송화·안악·신천·봉산·강령 등 고을에 있는 선혜청 상정 상납 몫 중에서 3,798냥 8전을 어림으로 헤아려 떼어서 보관하였습니다. 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은 진실로 보고하는 대로 아뢰어야 마땅하지만, 이미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상세히 캐내게 하여 애써 타당함을 쫓았으므로 자연히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한 고을은 쌓인 물이

범람해서 논밭의 길이 막혀 즉시 두루 살피지 못하여 이렇게 지체하게 되어 지금 비로소 보고가 왔습니다. 살펴보건대 거행하는 도리상 매우 지체하고 소홀했습니다. 각 해당 고을의 담당자들은 저의 감영에서 지금 막 엄중히 징계하고 저도 또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92. 1863년(철종 14) 7월 10일(양력 8월 23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33d~434a)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106b~107b)

今七月初三日臣營下得雨一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川渠漲滿, 延安·白川·新溪等三邑, 得二犁. 海州·康翎·長淵·信川·文化·鳳山·瑞興·平山等八邑, 得一犁. 襄津·松禾·豐川·安岳·載寧·金川·冤山等七邑, 得二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向熟, 晚黍·粟·唐稷, 次第入實, 早稻間或發穗, 木綿方始結顆, 晚稻過半胚胎, 豆·太·木麥, 已盡再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今方入實,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方張發穗, 早稻舉皆胚胎, 木綿間間起花, 晚稻三耘垂畢, 豆·太·木麥, 再耘伊始是乎乃. 被災各穀, 無以蘇醒之望, 誠爲悶然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초3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연안·배천·신계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장연·신천·문화·봉산·서흥·평산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웅진·송화·풍천·안악·재령·금천·토산 등 7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알이 들고, 올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는 막 다래를 맺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절반 이상 알을 맺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 산전의 화속은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벼는 대부분 알을 맺고, 목화는 간간이 꽃이 피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

으며, 재해를 입은 각종 곡식은 되살아날 가망이 없어 정말로 걱정스럽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93. 1863년(철종 14) 7월 20일(양력 9월 2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39d~440a)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120b~121a)

臣營下今七月十七日戌時始雨, 或霏或灑, 至十八日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六分是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刈穫, 晚黍·粟·唐稷, 次第向熟, 早稻舉皆發穗, 間或入實, 木綿幾盡結穎, 晚稻今方發穗, 豆·太·木麥, 始爲起花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今始向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皆入實, 早稻方始發穗, 木綿次第起花, 晚稻間間胚胎, 豆·太·木麥, 過半再耘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以今災形各穀成就, 惟望來頭日候之調和是白乎旆,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7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6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익어가고, 올벼는 대부분 이삭이 났는데 간혹 알이 들고, 목화는 거의 다 다래를 맺었고, 늦벼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꽃이 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익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올벼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늦벼는 간간이 이삭을 배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재해 상황으로 각종 곡식이 여무는데는 오직 앞으로 기후가 조화롭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94. 1863년(철종 14) 7월 22일(양력 9월 4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40a~440a)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121a~121b)

去五月十六日及二十三日之雨, 道內被災信川等九邑漂頽戶, 因備邊司啓下關, 結構之節, 間五日報來之意, 別加董飭是白加尼, 卽接各邑所報, 則信川三百二十七戶, 新溪六戶, 平山四十戶, 載寧二百六十一戶, 文化六十八戶, 黃州四百五十戶, 鳳山二百八十一戶, 遂安二十六戶, 安岳四十六戶, 今纔畢結構, 依舊入處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等以.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의 비로 황해도 내에서 재해를 입은 신천 등 9개 고을에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는 임금님의 재가를 받은 비변사의 공문에 따라 집을 짓는 사항은 5일 사이에 보해 오라는 뜻을 별도로 단단히 지시하였는데,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신천은 327가구, 신계는 6가구, 평산은 40가구, 재령은 261가구, 문화는 68가구, 황주는 456가구, 봉산은 281가구, 수안은 26가구, 안악은 46가구이며, 지금 겨우 집짓기를 마치고 이전대로 들어가 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95. 1863년(철종 14) 7월 23일(양력 9월 5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40a~440b)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121b~122a)

臣營下今七月十七日得雨二寸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襄津·延安·白川等五邑, 得二犁, 文化·瑞興·遂安·平山等四邑, 得一犁. 安岳·殷栗·鳳山·金川·兔山等五邑, 得二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7일에 내린 비가 2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연안·배천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문화·서흥·수안·평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안악·은율·봉산·금천·토산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96. 1863년(철종 14) 7월 30일(양력 9월 11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40c~441a)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122b~123a)

臣營下今七月二十七日子時始雨, 或霪或灑, 至二十八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二分是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已盡刈穫, 晚黍·粟·唐稷, 方張刈取, 早稻漸次入實, 木花今始綻綿, 晚稻間發穗, 豆·太·木麥, 次第起花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今方刈取,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皆向熟, 早稻幾盡發穗, 木綿方始結穎, 晚稻始或發穗, 豆·太·木麥, 再耘垂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一路農形, 毋論峽野, 高燥畚之晚移者, 白露已過, 發穗尙遲, 言念民事, 去益悶然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及嗣後農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 7월 27일 자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8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2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베어 수확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올벼는 점차 알이 들고, 목화는 지금 숨이 터지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간간이 이삭이 패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꽃이 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다 익어가고, 올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목화는 막 다래를 맺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이삭이 패고, 콩·팥·메밀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농사 상황은 산골짜기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높고 메마른 논에 늦게 옮겨심은 것은 백로가 이미 지났는데 이삭 패는 것이 아직 지체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걱정됩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 및 이후의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97. 1863년(철종 14) 8월 2일(양력 9월 14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43a~443b)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127b~128a)

臣營下去七月二十八日得雨三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襄津·長淵等三邑, 川渠漲滿, 康翎·延安·白川·信川等四邑, 得二犁. 遂安·新溪·冤山·谷山·瑞興·文化·松禾等七邑, 得一犁, 載寧·黃州·鳳山等三邑, 得二鋤. 長連·安岳·殷栗·豐川·金川·平山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襄津段, 去月二十四日午時量, 雨雹驟下, 大如栗隻, 小如鳥卵, 所過處則自龍淵坊, 至邑內坊, 長爲三十里, 廣爲十里許, 而將穫之黍·粟·唐稷, 向熟之早晚禾稻, 穗穎剝落, 起花之豆·太·木麥, 莖葉折傷. 長淵段, 尊澤雪山兩坊, 伊日巳時量, 驟雹交雨暴霍, 形如橡實, 所過處長爲二十五里, 廣爲八里許, 而黍·粟·唐稷, 盡被撲損, 禾稻·木綿, 亦多受傷, 而摘奸之際, 自爾遲滯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各穀成熟之時, 冷雨氷雹, 又若是慘酷, 言念民事, 誠切憂悶.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 7월 28일에 내린 비가 3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웅진·장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령·연안·배천·신천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수안·신계·토산·곡산·서흥·문화·송화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재령·황주·봉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장련·안악·은율·풍천·금천·평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웅진의 경우, 지난달 24일 오시쯤 우박이 갑자기 쏟아졌는데, 큰 것은 밤알만하고 작은 것은 새알만 했으며, 지나간 곳은 용연방부터 읍내방까지 길이는 30리에 너비는 10리가량이며, 장차 수확하려던 기장·조·수수과 익어가던 올벼·늦벼의 이삭이 꺾여 떨어졌고, 꽃이 핀 콩·팥·메밀은 줄기와 잎이 꺾여 손상되었습니다. 장연의 경우, 순택·설산 2개 방은 그날 사시쯤 갑자기 우박이 비와 번갈아 쏟아졌는데, 모양은 도토리 같았고, 지나간 곳의 길이는 25리에 너비는 8리가량이었으며, 기장·조·수수는 모두 두들겨 맞아 손상됐고, 벼·목화 또한 손상을 많이 입었는데, 채널 즈음에 자연히

지체됐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여무는 때에 찬비와 우박이 또 이처럼 참혹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되고 걱정됩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398. 1863년(철종 14) 8월 10일(양력 9월 22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443d~444a) / 黃海監營狀啓謄錄 15책(129a~129b)

臣營下今八月初七日申時始雨, 或霏或灑, 至初八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乎脉.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晚黍·粟·唐稷, 幾盡刈穫, 早稻次第向熟, 木綿間間摘取, 晚稻今始入實, 豆·太·木麥, 始或結殼是如爲白乎脉,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菟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舉皆收穫,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方始刈取, 早稻間或入實, 木綿今始綻綿, 晚稻幾盡發穗, 豆·太·木麥, 方張起花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各穀向熟之時, 獐風冷雨, 連日不止. 言念民事, 誠切悶然是白如乎, 嗣後農形及列邑雨澤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초7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8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베어 수확했고, 올벼는 차례로 익어가고, 목화는 간간이 따서 거두고, 늦벼는 지금 알이 들기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더러 꼬투리를 맺는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수확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막 베어 거두기 시작했고, 올벼는 간혹 알이 들고, 목화는 지금 솜이 터지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콩·팥·메밀은 한창 꽃이 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익어가는 때에 사나운 바람과 찬비가 날마다 끊이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 우택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399. 1863년(철종 14) 8월 20일(양력 10월 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445b~445c) / 黃海監營狀啓臚錄 15책(132a~132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  
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稻幾皆向熟, 木綿方張摘取, 晚稻太半入實, 豆·太·  
木麥, 間多向實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舉皆刈取, 早稻今始向熟, 木綿間或摘取, 晚稻始或入實, 豆·太·木  
麥, 過半結穀, 而平山·白川·海州·康翎·松禾等五邑, 今八月十五日夜霜降是如爲白有知乎, 霜  
信如是太早, 田種畚稼, 實無收榆之望, 至於木綿, 本以惡濕之種, 屢經陰雨, 冗長無實之中,  
又被霜早, 更無綻花之望, 言念民事, 誠極悶然是白知乎, 列邑災實分等, 待其概狀之齊到, 追  
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  
은 올벼는 거의 다 익어가고, 목화는 한창 따서 거두고 있고, 늦벼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콩·팥·메밀은 그사이에 여물어가는 것이 많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  
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대부분 베어 거뒀  
고, 올벼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목화는 간혹 따서 거두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알이 들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꼬투리를 맺었는데, 평산·배천·해주·강령·송화 등 5개  
고을은 이번 8월 15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서리 소식은 심한 가뭄과 같아서  
밭곡식이나 논이 벼는 정말로 늦게라도 거둘 가망이 없습니다. 목화의 경우, 본래 습기를  
꺼리는 종류인데 거듭 음산한 비를 겪었으니 쓸데없이 자라고 알맹이가 없는 가운데  
또 서리를 일찍 맞아 다시는 숨이 터질 가망이 없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재해와 결실, 풍흉 구분은 개장이 일제히 도착하  
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00. 1866년(고종 3) 6월 21일(양력 8월 1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543c~543c)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1b~2a)

臣營下今六月二十日丑時始雨，或霏或灑，未時□。□水深爲一寸三分是白04如03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0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1. 1866년(고종 3) 6월 25일(양력 8월 5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543c~543d)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a~2b)

臣營下今六月二十日得雨一寸三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瑞興川渠漲流，海州·康翎·文化·延安·新溪等五邑，得一犁，平山·金川·白川·鳳山等四邑，得二鋤，襄津·載寧·信川·松禾等四邑，得一鋤，長連泥塵是如爲白乎旆。農形段，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早黍·粟始或入實，晚黍·粟·唐稷，方張發穗，早稻·木綿，三耘垂畢，晚稻今方三耘，豆·太·木麥，幾盡初耘是如爲白乎旆。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早黍·粟今始發穗，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間或胚胎，早稻·木綿，舉皆三耘，晚稻已盡再耘，豆·太·木麥，間間入鋤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嗣後形止，更待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0일에 내린 비가 1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서흥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해주·강령·문화·연안·신계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평산·금천·배천·봉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웅진·재령·신천·송화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장련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마쳤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간혹 이삭을 배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02. 1866년(고종 3) 7월 2일(양력 8월 11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549a~549a)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12a~12b)

臣營下去六月二十九日得雨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今七月初二日午時驟雨暴霏, 旋即開霽, 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 6월 29일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7월 초2일 오시에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다가 곧바로 개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03. 1866년(고종 3) 7월 5일(양력 8월 14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549a~549c)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12b~13a)

臣營下去六月二十九日得雨五分及今七月初二日驟雨二寸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去二十九日之雨, 延安得一犁, 海州·金川·瑞興·鳳山·遂安等五邑, 得一鋤, 今初二日之雨, 海州川渠漲流, 延安得一犁, 遂安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舉皆入實, 晚黍·粟·唐稷, 旣盡發穗, 早稻今始胚胎, 木綿間間起花, 晚稻三耘垂畢, 豆·太·木麥, 今方再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已盡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皆胚胎, 早稻·木綿, 次第三耘, 晚稻方張三耘, 豆·太·木麥, 今始再耘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列邑雨澤及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並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 6월 29일에 내린 비가 5푼인 것 및 이번 7월 초2일에 소나기가 2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지난 29일의 비로 연안은 1려가 내렸고, 해주·금천·서흥·봉산·수안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으며, 이번 초2일의 비로 해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연안은 1려가 내렸고, 수안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이삭이 뻗고, 올벼는 지금 이삭을 배고, 목화는 간간이 꽃이 피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콩·팥·메밀은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뻗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다 알을 뻗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콩·팥·메밀은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고을의 우택 및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4. 1866년(고종 3) 7월 7일(양력 8월 16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549c~549c)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13b~13b)

今七月初二日之雨，海州等三邑雨澤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金川·平山·兔山等三邑，得一鋤，黃州浥塵是如爲白乎旆。臣營下今初六日卯時始雨，或灑或霏，至初七日午時乃止，測雨器水深爲四寸四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초2일의 비로 해주 등 3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금천·평산·토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황주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6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초7일 오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5. 1866년(고종 3) 7월 10일(양력 8월 19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550b~550c)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15a~15a)

今七月初七日得雨四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瑞興·金川等三邑, 川渠漲流, 平山得二犁, 康翎·延安·新溪等三邑, 得一犁, 載寧·黃州·白川等三邑, 得二鋤, 襄津·豐川·殷栗·信川·文化·遂安等六邑, 得一鋤, 長連浥塵是如爲白乎旂. 臣營下今初十日丑時始雨, 或霏或灑, 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二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초7일에 내린 비가 4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서흥·금천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평산은 2려가 내렸고, 강령·연안·신계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재령·황주·배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웅진·풍천·은율·신천·문화·수안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장련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10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2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06. 1866년(고종 3) 7월 15일(양력 8월 24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557a~557b)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7b~28a)

今七月初七日之雨, 海州等十七邑雨澤及臣營下初十日得雨一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初七日之雨, 長淵·松禾·安岳·鳳山·谷山·兔山等六邑, 得一鋤, 初十日之雨, 海州得一犁, 康翎·襄津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十二日寅時始雨, 或霏或灑, 至十三日未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寸五分是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始向熟, 晚黍·粟·唐稷, 方張入實, 早稻間或發穗, 木綿始或結顆, 晚稻次第胚胎, 豆·太·木麥, 間間起花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漸次入實,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今方發穗, 早稻幾皆胚胎, 木綿今始開花, 晚稻三耘垂畢, 豆·太·木麥, 已盡再耘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列邑雨澤及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초7일의 비로 해주 등 17개 고을의 우택 및 저의 감영 초10일에 내린 비가 1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초7일의 비로 장연·송화·안악·봉산·곡산·토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초10일의 비로 해주는 1려가 내렸고, 강령·웅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2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3일 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치 5푼이었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익어가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올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는 비로소 더러 다래를 맺고, 늦벼는 차례로 이삭을 배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꽃이 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점차 알이 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및 산전의 화숙은 지금 막 이삭이 패고, 올벼는 거의 다 알을 맺고, 목화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고을의 우택 및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07. 1866년(고종 3) 7월 19일(양력 8월 28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557c~557d)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8b~29a)

臣營下今七月十三日得雨五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載寧·信川·文化·長連·殷栗·金川·平山·瑞興·新溪·冤山等十一邑, 川渠漲流, 康翎·豐川·安岳·黃州·遂安·谷山等六邑, 得二犁, 延安·白川·鳳山·長淵等四邑, 得一犁, 襄津·松禾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3일에 내린 비가 5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재령·신천·문화·장려·은율·금천·평산·서흥·신계·토산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강령·풍천·안악·황주·수안·곡산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연안·배천·봉산·장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웅진·송화는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08. 1866년(고종 3) 7월 25일(양력 9월 3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558a~558b)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9b~30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已盡成熟, 晚黍·粟·唐稷, 舉皆入實, 早稻始或入實, 木綿次第結穎, 晚稻間或發穗, 豆·太·木麥, 方張起花是如爲白乎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漸次向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次第入實, 早稻方始發穗, 木綿間或結穎, 晚稻今始胚胎, 豆·太·木麥, 始或起花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성숙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대부분 알이 들었고, 올벼는 비로소 더러 알이 들고, 목화는 차례로 다래를 맺고, 늦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콩·팥·메밀은 한창 꽃이 피고 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점차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차례로 알이 들고, 올벼는 막 이삭이 패기 시작했고, 목화는 간혹 다래를 맺고, 늦벼는 지금 이삭을 배기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더러 꽃이 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09. 1866년(고종 3) 7월 26일(양력 9월 4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558b~558c)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30a~30a)

臣營下今七月二十六日巳時，驟雨暴霑，午時乃止，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26일 사시에 소나기가 갑자기 주룩주룩 쏟아지다가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10. 1866년(고종 3) 8월 24일(양력 10월 2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568a~568a)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48a~48b)

卽接各邑所報，則平山·金川今八月十五日夜霜降，延安十八日夜霜降是如。爲等如，牒呈爲白有如乎，列邑災實分等，待概狀齊報，追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산·금천은 이번 8월 15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연안은 18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재해와 결실, 풍흉 등급은 개요를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11. 1867년(고종 4) 2월 30일(양력 4월 4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29a~629b)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167a~167b)

臣營下今二月二十八日寅時始雨, 或灑或霏, 二十九日午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六分是白乎旡. 卽接各邑農形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旡·小麥, 今始抽芽, 春旡次第耕播是如爲白乎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旡·小麥, 方張脫袴, 春旡間或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清明已屆, 東作伊始, 勸課之政, 不容少忽是白乎等以. 另飭列邑, 借牛勸耕, 分糶助糧, 期於各盡其力, 無或失時, 築堰防淤, 貯水蒙利等節, 亦令着意舉行之意, 一體嚴飭爲白遣. 嗣後農形及各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2월 28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9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6푼이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트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차례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트고 있고, 봄보리는 간혹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청명이 이미 닥쳤고 봄농사가 시작됐으니 농사일을 권장하는 정책은 조금도 소홀할 수 없으므로 여러 고을에 별도로 지시하여 소를 빌려주어 갈이를 권장하고 환곡을 나눠주어 식량을 도와 기어이 각자 힘을 다하여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독을 쌓고 보를 막아 물을 저장하여 물을 대기에 이롭게 하는 등의 사항 또한 유념해서 거행하도록 하라는 뜻을 일체로 엄중히 지시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각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12. 1867년(고종 4) 3월 6일(양력 4월 10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32c~632c)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173b~173b)

臣營下去二月二十九日得雨一寸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康翎·信川·文化·安岳·殷栗·載寧·延安等七邑, 得二犁, 海州·襄津·長連·鳳山·平山·白川等六邑, 得一犁, 金川得二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如[餘]外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 2월 29일에 내린 비가 1치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령·신천·문화·안악·은율·재령·연안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웅진·장련·봉산·평산·배천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천은 2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13. 1867년(고종 4) 3월 10일(양력 4월 14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33a~633a)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174b~174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方張抽芽, 春麴幾盡耕播, 早黍·粟始或落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 幾皆脫袴, 春麴過半耕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트고 있고, 봄보리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텄고, 봄보리는 절반 이상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14. 1867년(고종 4) 3월 20일(양력 4월 24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34c~634d)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177b~178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小麥, 漸次向長, 春粳舉皆立苗, 早黍·粟幾盡耕播, 晚黍·粟·唐稷, 今始播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小麥, 日漸向青, 春粳次第立苗, 早黍·粟過半耕種, 晚黍·粟·唐稷, 始或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자라가고,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비로소 더러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15. 1867년(고종 4) 3월 29일(양력 5월 3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37d~638a)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183b~184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次第茁長, 春麴日漸向青, 早黍·粟間間出土, 晚黍·粟·唐稷, 已盡耕播, 早稻·木綿, 今始落種是如爲白乎旅.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 漸次向長, 春麴過半立苗, 早黍·粟幾盡耕種, 晚黍·粟·唐稷, 方張播種, 早稻·木綿, 間或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早春以後, 旱乾頗甚, 春秋麴·麥, 未能茁茂, 黍·粟·唐稷, 立種亦稀, 秧坂之無水根處, 未免枯涸, 言念民事, 誠切悶然是白乎旅.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자라가고, 봄보리는 절반 이상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올벼·목화는 간혹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른 봄 이후로 가뭄이 매우 심하여 봄보리·봄밀은 제대로 싹이 무성해지지 못하고, 기장·늦조·수수는 싹이 땅 위로 올라온 것 또한 드물며 수원이 없는 못자리는 바짝 마르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16. 1867년(고종 4) 4월 10일(양력 5월 13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43b~643c)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193b~194a)

道內農形悶旱緣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次第胚胎, 春麴已盡茁茂, 早黍·粟過半立苗, 晚黍·粟·唐稷, 漸次出土, 早稻·木綿, 舉皆耕播, 晚稻今始落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 方張茁長, 春麴日漸向青, 早黍·粟間或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已皆播種, 早稻·木綿, 今方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早既太甚, 田穀中麴·麥, 將至判歉, 而至於畚庫, 毋論高低, 盡爲枯涸, 播種無幾, 言念民事, 誠切悶然是白乎旆.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이삭을 배고, 봄보리는 이미 다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점차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늦벼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자라고 있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이미 다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가뭄이 이미 매우 심하고 밭곡식 중 보리·밀은 장차 흉작으로 관가름 나기에 이르렀고, 논이 경우 높은 곳이건 낮은 곳이건 따질 것 없이 모두 바짝 말라서 씨앗을 뿌린 곳이 얼마 없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17. 1867년(고종 4) 4월 20일(양력 5월 23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47a~647b)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02a~202b)

道內農形悶旱緣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今方發穗, 春麴·小麥, 幾皆胚胎, 早黍·粟方張初耘, 晚黍·粟·唐稷, 今纔立苗, 早稻·木綿, 間或出土, 晚稻已盡耕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方張胚胎, 春麴·小麥, 舉皆茁茂, 早黍·粟幾盡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始或出土, 早稻·木綿, 耕播垂畢, 晚稻今始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自春徂夏, 一直亢旱, 麥旣判歉, 秧且枯涸, 言念民事, 誠爲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하는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알을 맺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겨우 싹이 돋고, 올벼·목화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늦벼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이삭을 배고 있고, 봄보리·봄밀은 대부분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비로소 더러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올벼·목화는 땅을 갈아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줄곧 매우 가뭄어서 보리는 이미 흉작으로 관가를 났고 벼도 또 말라버리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18. 1867년(고종 4) 4월 21일(양력 5월 24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47d~648a)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03b~203b)

道內農形悶旱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四月二十日未時始雨, 或霏或灑, 二十一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 而陰雲濃合, 尙有連霏之意是白如乎. 渴望之餘, 得此甘霈, 言念民事, 誠爲萬幸.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하는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0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1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질게 뭉쳐서 아직도 연이어 주룩주룩 내릴 조짐이 있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단비를 만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19. 1867년(고종 4) 4월 29일(양력 6월 1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49a~649b)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06a~206b)

臣營下今四月二十一日得雨一寸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康翎·載寧, 川渠微漲, 海州·安岳·殷栗·鳳山·金川等五邑, 得二犁, 襄津·松禾·豐川·信川·文化·長連·黃州·瑞興·遂安·谷山·白川·平山·新溪等十三邑, 得一犁, 長淵·延安·兎山等三邑, 得二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今方入實, 春麴·小麥, 次第發穗, 早黍·粟今始再耘, 晚黍·粟·唐稷, 間間初耘, 早稻·木綿, 始或入鋤, 晚稻幾皆立苗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已盡發穗, 春麴·小麥, 過半胚胎, 早黍·粟間或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舉皆出土, 早稻·木綿, 方張立苗, 晚稻幾盡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21일에 내린 비가 1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령·재령은 시내와 도랑이 조금 불어났고, 해주·안악·은율·봉산·금천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웅진·송화·풍천·신천·문화·장려·황주·서흥·수안·곡산·배천·평산·신계 등 1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연·연안·토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막 알이 들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비로소 더러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패고, 봄보리·봄밀은 절반 이상 알을 뻗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밭 산전의 화속은 대부분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벼·목화는 한창 싹이 돋고 있고, 늦벼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  
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20. 1867년(고종 4) 5월 10일(양력 6월 11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52d~653a)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12b~213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嶺[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今方向熟, 春麴·小麥, 次第入實, 早黍·粟已盡再耘, 晚黍·粟·唐稷, 初耘垂畢, 早稻·木綿, 過半初耘, 晚稻今始入鋤, 秧苗間或移插是如爲白乎旃.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漸次入實, 春麴·小麥, 舉皆發穗, 早黍·粟再耘伊始,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方張初除草, 早稻·木綿, 間間初耘, 晚稻幾盡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지금 막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지금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모는 간혹 옮겨 심는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점차 알이 들고, 봄보리·봄밀은 대부분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21. 1867년(고종 4) 5월 12일(양력 6월 13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54b~654c)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15b~216a)

節呈平山府使洪愼圭牒報內, 本府古之面·積巖面·上月面·麟山面等四面, 今五月初七日酉時量, 雨雹驟下, 大者如鷄卵, 小者如栗橡. 計其所過處, 長爲九十里, 廣爲五里許, 而向熟之粳麥, 折穗者居多, 掛鎌無望. 方茁之黍·粟, 立茁之豆太·木綿, 無不折傷, 蘇醒未必是如爲白乎旆. 麟次呈金川郡守朴齊鴻牒報內, 同月同日申時量, 雨雹暴霍, 而受災淺深, 所經延袤, 更待摘奸報來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農節, 各穀之受損, 若是孔酷, 言念民事, 誠極悶然是白乎旆. 金川郡雨雹形止, 更待報來, 麟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에 바친 평산 부사 홍신규의 문서 보고 내용에, 본 평산부 고지면·적암면·상월면·인산면 등 4개 면에 이번 5월 초7일 유시쯤 우박이 갑자기 내렸는데, 큰 것은 달걀만 하고 작은 것은 밤알만 하며, 지나간 곳을 헤아려보면 길이는 90리이고 너비는 5리가량인데, 익어가던 보리와 밀은 이삭이 꺾인 것이 많아서 낫을 댈 가망이 없으며, 막 싹이 자라던 기장·조, 싹이 돋던 콩·팥·목화는 부러져 손상되지 않은 것이 없어 분명히 되살아날 수 없을 듯하다고 합니다. 잇따라 바친 금천 군수 박제홍의 문서 보고 내용에, 같은 달 같은 날 신시쯤에 우박이 갑자기 쏟아졌는데, 입은 재해의 정도, 거쳐 간 곳 및 범위는 다시 캐낸 보고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농사철을 맞았는데 각종 곡식이 받는 손상이 이처럼 매우 혹독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걱정스럽습니다. 금천군의 우박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22. 1867년(고종 4) 5월 18일(양력 6월19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57b~657c)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21a~221b)

臣營下今五月十八日寅時始雨, 或霏或灑, 當日未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 而陰雲濃合, 尙有雨意是白如乎. 渴望之餘, 得此甘霖, 言念民事, 誠爲萬幸. 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8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짙게 뭉쳐서 아직도 비올 조짐이 있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비를 만났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23. 1867년(고종 4) 5월 20일(양력 6월 21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57c~657d)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21b~222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間或刈穫, 春麴·小麥, 日漸向熟, 早黍·粟三耘伊始, 晚黍·粟·唐稷, 次第再耘, 早稻·木綿, 今方再除草, 晚稻初耘垂畢, 秧苗方張移插, 豆·太·木麥, 今始耕播是如爲白乎旃.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幾盡成熟, 春麴·小麥, 漸次入實, 早黍·粟過半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間再耘, 早稻·木綿, 舉皆初耘, 晚稻今方入鋤, 秧苗始或移插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수확하고, 봄보리·봄밀은 날로 점점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모는 한창 옮겨 심고, 콩·팥·메밀은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성숙했고, 봄보리·봄밀은 점차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지금 막 김매기를 하고, 모는 비로소 더러 옮겨 심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24. 1867년(고종 4) 5월 21일(양력 6월 22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57d~657d)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22a~222a)

今五月十八日得雨一寸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得二犁, 瑞興得一犁, 金川得二鋤, 康翎·信川·白川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五月二十日申時又雨, 或霪或灑, 至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18일에 내린 비가 1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2려가 내렸고, 서흥은 1려가 내렸고, 금천은 2서가 내렸고, 강령·신천·배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20일 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25. 1867년(고종 4) 5월 25일(양력 6월 2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59a~659b)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24b~224b)

今五月十八日海州等六邑雨澤形止及二十日臣營下得雨九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之雨, 載寧·鳳山·遂安·谷山·平山·新溪等六邑, 得一犁, 襄津·長淵·松禾·豐川·文化·安岳·長連·黃州·延安·冤山等十邑, 得一鋤, 殷栗浥塵, 二十日之雨, 海州得一犁, 鳳山得二鋤, 康翎·襄津·白川·瑞興等四邑, 得一鋤, 信川浥塵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五月二十四日申時始雨, 或霏或灑, 二十五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18일에 해주 등 6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8일의 비로 재령·봉산·수안·곡산·평산·신계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웅진·장연·송화·풍천·문화·안악·장려·황주·연안·토산 등 10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은율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으며, 20일의 비로 해주는 1려가 내렸고, 봉산은 2서가 내렸고, 강령·웅진·배천·서흥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신천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24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26. 1867년(고종 4) 5월 28일(양력 6월 29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59b~659c)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25a~225a)

今五月二十日海州等七邑雨澤形止及二十四日臣營下得雨一寸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日之雨, 康翎·冤山得二鋤, 平山·新溪得一鋤, 二十四日之雨, 襄津·安岳·白川等三邑, 得二犁, 海州·康翎·瑞興·延安·金川等五邑, 得一犁, 信川·平山得二鋤, 長淵·文化·殷栗·遂安·新溪等五邑, 得一鋤是如. 牒呈是白置有亦. 餘外各邑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20일에 해주 등 7개 고을의 우택 경위 및 24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0일의 비로 강령·토산은 2서가 내렸고, 평산·신계는 1서가 내렸다고 하며, 24일의 비로 웅진·안악·배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서흥·연안·금천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신천·평산은 2서가 내렸고, 장연·문화·은율·수안·신계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밖에 각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27. 1867년(고종 4) 6월 10일(양력 7월 11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64b~664c)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34a~234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春粳·小麥, 已盡刈取, 早黍·粟過半三耘, 晚黍·粟·唐稷, 今始三耘, 早稻·木綿, 舉皆再耘, 晚稻間或再耘, 豆·太·木麥, 幾皆立苗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幾盡刈取, 春粳·小麥, 方張收穫, 早黍·粟始或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再耘垂畢, 早稻·木綿, 再耘伊始, 晚稻已盡初耘, 豆·太·木麥, 間或出土是如爲白乎旆. 延安·長連·豐川等三邑段, 其間雨澤, 未得均霑, 祈雨祭, 不卜日今方設行是如是白如乎.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베어 거뒀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봄보리·봄밀은 한창 수확하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마쳤고, 콩·팥·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연안·장연·풍천 등 3개 고을은 그사이에 우택은 고르게 적시지 못해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지금 막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28. 1867년(고종 4) 6월 12일(양력 7월 13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65a~665a)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35b~236a)

延安等三邑祈雨祭設行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初庚將屆, 一直亢旱, 移秧率多晚時, 田種亦致枯損, 長淵·信川·文化·殷栗·載寧·襄津等六邑祈雨祭, 又爲設行是如. 次第報來爲白乎旆. 臣營下今六月十一日戌時始雨, 或霏或灑, 十二日酉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 而陰雲濃合, 尙有雨意是白如乎. 渴望之餘, 得此甘澍, 誠爲萬幸.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연안 등 3개 고을의 기우제 시행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복이 장차 다가오는데 줄곧 매우 가물어 모내기가 제때보다 늦어지는 비율이 높고 밭곡식 또한 말라버리니, 장연·신천·문화·은륜·재령·웅진 등 6개 고을이 기우제를 또 시행한다고 차례로 보고가 왔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1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짙게 뭉쳐서 아직 비올 조짐이 있습니다. 애타게 바라던 끝에 이렇게 단비를 만났으니 정말로 매우 다행입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29. 1867년(고종 4) 6월 16일(양력 7월 17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65b~665b)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36a~236a)

臣營下今六月十二日得雨二寸八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平山·白川·金川·遂安·安岳等五邑，川渠漲滿，海州·延安得二犁，康翎·文化得一犁，冤山得一鋤，信川·瑞興·黃州等三邑，浥塵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餘外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2일에 내린 비가 2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평산·배천·금천·수안·안악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해주·연안은 2려가 내렸고, 강령·문화는 1려가 내렸고, 토산은 1서가 내렸고, 신천·서흥·황주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30. 1867년(고종 4) 6월 17일(양력 7월 18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65b~665c)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36a~236b)

今六月十二日之雨, 平山等十二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載寧得二犁, 谷山·新溪, 得一鋤是如是白乎旆. 臣營下今六月十七日子時又雨, 或霏或灑, 當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12일에 평산 등 12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재량은 2려가 내렸고, 곡산·신계는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7일 자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31. 1867년(고종 4) 6월 20일(양력 7월 21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65c~665d)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36b~237a)

今六月十七日得雨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得二鋤, 襄津·延安·瑞興得一鋤, 信川·殷栗, 浥塵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二十日寅時又雨, 或霏或灑, 申時至, 測雨器水深爲四寸七分是白如乎. 旱餘雨澤, 既洽且足, 田畝各穀, 舉皆蘇醒是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幾盡三耘, 晚黍·粟·唐稷, 方張三耘, 早稻·木綿, 再耘垂畢, 晚稻今方再耘, 豆·太·木麥, 已盡立苗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金川·平山等十邑, 春粳·小麥, 已盡刈取, 早黍·粟過半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三耘伊始, 早稻·木綿, 舉皆再耘, 晚稻間間再耘, 豆·太·木麥, 幾盡立苗是如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17일에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2서가 내렸고, 웅진·연안·서흥은 1서가 내렸고, 신천·은율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0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7푼이었습니다. 가뭄 끝에 우택은 이미 흡족하여 논밭의 각종 곡식은 대부분 되살아났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베어 거뒀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이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늦벼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쿵·팔·메밀은 거의 다 짝이 돈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32. 1867년(고종 4) 6월 22일(양력 7월 23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66a~666a)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37b~237b)

今六月二十日得雨四寸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川渠漲滿, 康翎·延安·白川·殷栗等四邑, 得二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二十二日丑時又雨, 或霏或灑, 當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四寸五分, 陰雲四低, 雨意尙濃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20일에 내린 비가 4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령·연안·배천·은율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22일 축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5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사방에 깔려 비옥 조짐이 아직도 짙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33. 1867년(고종 4) 6월 24일(양력 7월 25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66b~666c)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38a~238a)

今六月二十二日申時至, 得雨四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連爲霏灑, 二十四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三寸一分是白如乎. 二十日以後, 三次雨澤, 既過尺餘, 而陰雲不霽, 雨意尙多, 田畝諸處, 似不無過濫之慮是白乎旃. 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22일 신시까지 내린 비가 4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 연이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4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1푼이었습니다. 20일 이후 3차례 우택은 이미 1자 남짓 이상이니 먹구름이 개지 않고 비올 조짐이 아직도 많으니 논밭 여러 곳에 아마도 지나치게 넘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다시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34. 1867년(고종 4) 6월 25일(양력 7월 26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66c~666c)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38b~238b)

臣營下今六月二十四日辰時至, 得雨三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申時又雨, 或霏或灑, 二十五日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三寸三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4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3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5일 사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35. 1867년(고종 4) 6월 27일(양력 7월 28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66c~666d)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38b~239a)

今六月二十五日得雨三寸三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六月二十日之雨, 瑞興川渠漲滿, 長淵·信川得二犁, 襄津·松禾·豐川·文化·安岳·長連·載寧·黃州·鳳山等九邑, 得一犁, 二十二日之雨, 海州·康翎·信川·豐川·長連·殷栗·瑞興等七邑, 川渠漲滿, 襄津·延安·白川等三邑, 得二犁, 文化·金川·平山·新溪·冤山·遂安·谷山等七邑, 得一犁, 二十四日之雨, 海州·康翎·松禾·信川·延安·殷栗等六邑, 川渠漲滿, 襄津得二犁是如爲白乎旅. 臣營下今六月二十七日丑時, 又爲始雨, 或霏或灑, 當日巳時至, 測雨器水深爲二寸八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25일에 내린 비가 3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6월 20일의 비로 서흥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장연·신천은 2려가 내렸고, 웅진·송화·풍천·문화·안악·장려·재령·황주·봉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으며, 22일의 비로 해주·강령·신천·풍천·장려·은율·서흥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웅진·연안·배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문화·금천·평산·신계·토산·수안·곡산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으며, 24일의 비로 해주·강령·송화·신천·연안·은율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웅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7일 축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사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36. 1867년(고종 4) 6월 29일(양력 7월 30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70c~670d)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46a~246b)

今六月二十七日得雨二寸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六月二十四日之雨, 長淵·載寧·白川·金川·瑞興·新溪·冤山等七邑, 川渠漲滿, 安岳·長連·遂安·谷山等四邑, 得一犁, 文化·豐川·黃州·鳳山·平山等五邑, 得二鋤是如爲白乎旆. 二十五日之雨, 海州·康翎·襄津·信川·延安·白川·安岳·殷栗·瑞興等八邑, 川渠漲滿, 金川得二犁是如爲白乎旆. 二十七日之雨, 海州川渠漲滿, 康翎·松禾·豐川等三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方胚胎, 晚黍·粟·唐稷, 旣皆三耘, 早稻·木綿, 方張三耘, 晚稻已畢再耘, 豆·太·木麥, 始皆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旣盡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過半三耘, 早稻·木綿, 間間三耘, 晚稻幾皆再耘, 豆·太·木麥, 始或入鋤是如爲白乎旆. 延安·長淵·豐川·殷栗·長淵·載寧·文化·襄津·信川等九邑, 祈雨祭竝皆停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27일에 내린 비가 2치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6월 24일의 비로 장연·재령·배천·금천·서흥·신계·토산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안악·장련·수안·곡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문화·풍천·황주·봉산·평산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으며, 25일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신천·연안·배천·안악·은율·서흥 등 8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금천은 2려가 내렸다고 하며, 27일의 비로 해주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강령·송화·풍천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마쳤고, 올벼·목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이미 두벌 김매기를 마쳤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모두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



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더러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연안·장연·풍천·은율·장연·재령·문화·웅진·신천 등 9개 고을은 기우제를 다 중지하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37. 1867년(고종 4) 7월 5일(양력 8월 4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71a~671b)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47a~247b)

去六月二十七日之雨, 海州等四邑, 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新溪·谷山等三邑, 川渠漲流, 延安·白川·瑞興·鳳山·載寧等五邑, 得二犁, 金川·菟山·平山·黃州·襄津·長湍·信川·文化等八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延安段, 本府石串坊下屯里, 地本低下, 舊水不洩, 新漲又添, 民家之沈墊頽壓, 爲十四戶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當此農節, 民戶頽壓, 聞甚驚慘乙仍于, 元恤典以本邑所在常賑穀, 依例題給後, 自官別加顧恤, 借材助丁, 俾卽結構入處之意, 措辭關飭是白遣. 頽壓戶家舍間數, 修成冊, 上送于賑血[恤]廳爲白去乎, 令該廳依例會減爲白只爲.

지난 6월 27일의 비로 해주 등 4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신계·곡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연안·배천·서흥·봉산·재령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금천·토산·평산·황주·웅진·장연·신천·문화 등 8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안의 경우, 본 연안부 석곶방 하둔리는 지대가 본래 낮아서 오래된 물이 빠지지 않고 새 물이 불어나 또 보태니 백성 집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진 것이 14가구라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농사철에 백성 집이 무너지다니 듣기에 매우 놀랍고 참혹하기에 기본 구호 중 본 고을에 있는 상진곡을 규정대로 결정문을 준 뒤 관아에서 별도로 돌보고 보살피며 재목을 빌려주고 일꾼을 도와 즉시 집을 지어 들어가게 하라는 뜻으로 문안을 만들어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무너진 가구의 집 칸수를 성책으로 작성하여 진휼청에 올려보냈으니 해당 진휼청에 지시하여 규정대로 회감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8. 1867년(고종 4) 7월 10일(양력 8월 9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75c~675d)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57a~257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方發穗, 晚黍·粟·唐稷, 間或胚胎, 早稻·木綿, 三耘垂畢, 晚稻今始三耘, 豆·太·木麥, 方張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今始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皆三耘, 早稻·木綿, 次第三耘, 晚稻再耘已畢, 豆·太·木麥, 間間入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이삭을 배고, 올벼·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이삭을 배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39. 1867년(고종 4) 7월 14일(양력 8월 13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76b~676b)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58a~258a)

臣營下今七月十三日卯時始雨, 或霖或灑, 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一寸九分, 而陰雲四低, 尙未開霽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3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사방에 깔려 아직도 개이지 않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40. 1867년(고종 4) 7월 20일(양력 8월 19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76c~676d)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58b~259b)

臣營下今七月十三日得雨一寸九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連·遂安·瑞興·平山等四邑, 川渠漲滿, 延安·黃州·殷栗等三邑, 得二犁, 海州·康翎·襄津·載寧·金川·新溪等六邑, 得一犁, 白川·兎山·長淵等三邑, 得二鋤, 松禾·豐川·文化·安岳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川[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次第發穗, 晚黍·粟·唐稷, 今始胚胎, 早稻間或胚胎, 木綿今方起花, 晚稻舉皆三耘, 豆·太·木麥, 始或再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今方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三耘垂畢, 早稻·木綿, 方張三耘, 晚稻三耘伊始, 豆·太·木麥, 今方初耘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3일에 내린 비가 1치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련·수안·서흥·평산 등 4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연안·황주·은율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웅진·재령·금천·신계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배천·토산·장연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송화·풍천·문화·안악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이삭을 배기 시작했고, 올벼는 간혹 이삭을 배고, 목화는 지금 막 꽃이 피고, 늦벼는 대부분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더러 두벌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

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콩·팥·메밀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41. 1867년(고종 4) 7월 26일(양력 8월 25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77a~677b)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60a~260a)

臣營下今七月二十五日卯時始雨, 或霏或灑, 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25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42. 1867년(고종 4) 7월 29일(양력 8월 28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79a~679b)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63b~264a)

臣營下今七月二十五日得雨一寸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信川·延安, 川渠漲滿, 海州·康翎·殷栗等三邑, 得一犁, 襄津得二鋤是如爲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向熟, 晚黍·粟·唐稷, 次第發穗, 早稻間或發穗, 木綿今始結穎, 晚稻始或胚胎, 豆·太·木麥, 間間起花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今方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方張發穗, 早稻始或胚胎, 木綿今始起花, 晚稻間或胚胎, 豆·太·木麥, 間間再耘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25일에 내린 비가 1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신천·연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해주·강령·은율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웅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는 지금 다래를 맺기 시작했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이삭을 배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꽃이 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벼는 비로소 더러 이삭을 배고, 목화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는 간혹 이삭을 배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43. 1867년(고종 4) 8월 4일(양력 9월 1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79b~679c)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64a~264b)

去七月二十五日之雨, 信川等五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白川·瑞興·平山等三邑, 川渠漲滿, 載寧·松禾·文化·長湍·黃州·鳳山·殷栗等七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八月初三日辰時始雨, 或霖或灑, 初四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四寸二分是白如乎. 當此各穀成熟之時, 冷雨頻仍, 已極受傷, 而東風大吹, 達宵不止. 先以臣營下近處見之, 已熟之黍·粟, 發穗之禾稻, 無不披靡摧折, 而陰雲尙密, 餘霏不絕, 言念穡事, 誠爲悶然. 列邑風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7월 25일의 비로 신천 등 5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배천·서흥·평산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재령·송화·문화·장연·황주·봉산·은율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초3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4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2푼이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곡식이 성숙하는 때에 찬비가 자주 내려 이미 그지없이 손상을 입었는데 동풍이 크게 불며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의 감영 근처로 보자면 이미 익은 기장·조와 이삭이 팬 벼가 쓰러지거나 꺾이지 않은 것이 없고, 먹구름이 아직 뻑뻑하며 남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끊이지 않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바람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44. 1867년(고종 4) 8월 10일(양력 9월 7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79c~680a)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65a~265b)

臣營下今八月初四日得雨四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襄津·長淵·長連·信川·安岳·黃州·瑞興·遂安·谷山·新溪·延安·白川·金川等十四邑, 大小川渠, 無不漲流, 康翎·松禾·文化·豐川·殷栗·鳳山·冤山·平山·載寧等九邑, 得二犁, 而海州·襄津·長淵·安岳·延安·白川·谷山等七邑, 風雨交作, 就熟之黍·粟·唐稷, 已多折傷, 發穗之早晚禾稻, 委靡回頃, 開花之豆·太·木麥, 亦皆翻莖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幾皆成熟, 晚黍·粟·唐稷, 今方入實, 早稻舉皆發穗, 木綿方張結穎, 晚稻已盡胚胎, 豆·太·木麥, 過半起花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次第向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已皆發穗, 早稻幾盡胚胎, 木綿舉皆起花, 晚稻方張胚胎, 豆·太·木麥, 今始起花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毋論沿峽, 田種畚穰, 備經冷雨, 受損非細, 而海州等七邑, 風損若是偏酷, 言念民事, 誠爲憂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持[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4일에 내린 비가 4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웅진·장연·장련·신천·안악·황주·서흥·수안·곡산·신계·연안·배천·금천 등 14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은 물이 불어나 흐르지 않은 것이 없고, 강령·송화·문화·풍천·은율·봉산·토산·평산·재령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으며, 해주·웅진·장연·안악·연안·배천·곡산 등 7개 고을은 바람과 비가 번갈아 일어나 익어가던 기장·조·수수는 이미 꺾여 손상된 것이 많고, 이삭이 팬 올벼·늦벼는 쓰러지고 고개가 돌아갔으며, 꽃이 핀 콩·팥·메밀 또한 줄기가 다 뒤집혔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은 거의 다 성숙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알이

들고, 올벼는 대부분 이삭이 뻗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있고, 늦벼는 이미 다 알을 뻗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꽃이 피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은 차례로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이미 다 이삭이 뻗고, 올벼는 거의 다 알을 뻗고, 목화는 대부분 꽃이 피었고, 늦벼는 한창 이삭을 배고 있고, 콩·팥·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물가나 산골짜기를 따질 것 없이 논밭의 각종 곡식이 갖가지로 찬비를 만나 입은 손상이 적지 않은데, 해주 등 7개 고을은 바람에 손상된 것이 이처럼 특히 혹독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45. 1867년(고종 4) 9월 10일(양력 10월 7일)

各司臚錄 23책,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684d~685a) / 黃海監營狀啓臚錄 17책(275a~275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已盡刈取, 晚黍·粟·唐稷, 方張刈穫, 早稻舉皆向熟, 木綿今始摘取, 晚稻間或入實, 豆·太·木麥, 過半成熟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今方刈取,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幾盡成熟, 早稻太半向熟, 木綿方始綻綿, 晚稻旣[幾]盡發穗, 豆·太·木麥, 始皆結穀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베어 거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올벼는 대부분 익어가고, 목화는 지금 따서 거두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간혹 알이 들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성숙하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거의 다 성숙하였고, 올벼는 대부분 익어가고, 목화는 막 솜이 터지기 시작하였고, 늦벼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다 꼬투리를 맺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46. 1867년(고종 4) 9월 15일(양력 10월 12일)

各司謄錄 23책,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685a~685a) / 黃海監營狀啓謄錄 17책(275b~275b)

卽接各邑所報, 則平山今九月初四日夜霜降, 海州·信川·金川初九日夜霜降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如乎. 列邑災實分等, 待概狀齊報, 追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평산은 이번 9월 초4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해주·신천·금천은 초9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재해와 결실, 풍흉 등급은 개요를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47. 1888년(고종 25) 2월 29일(양력 4월 10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73b~73b)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9a~19a)

臣營下今二月二十九日辰時始雨，或霏或灑，當日戌時乃止，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2월 29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48. 1888년(고종 25) 3월 3일(양력 4월 1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73b~73c)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9a~19b)

臣營下去二月二十九日得雨三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襄津·信川等四邑, 得一鋤, 延安·白川·載寧等三邑, 沍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方張抽芽, 春麴過半播種, 早黍·粟始或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舉皆脫袴, 春麴今方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 2월 29일에 내린 비가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신천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연안·배천·재령 등 3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트고 있고, 봄보리는 절반 이상 씨앗을 뿌렸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싹이 텃고, 봄보리는 지금 막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49. 1888년(고종 25) 3월 4일(양력 4월 14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73c~73d)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9b~19b)

臣營下去二月二十九日得雨三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延安等三邑, 得一鋤, 載寧·襄津·白川·金川等四邑, 浥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方張抽芽, 春麴過半播種, 早黍·粟始或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鳳山·黃州·瑞興·遂安·谷山·新溪·冕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舉皆脫袴, 春麴今方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 2월 29일에 내린 비가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연안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재령·웅진·배천·금천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트고 있고, 봄보리는 절반 이상 씨앗을 뿌렸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싹이 텃고, 봄보리는 지금 막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50. 1888년(고종 25) 3월 5일(양력 4월 15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73d~74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20a~20a)

臣營下今三月初四日戌時始雨，或霏或灑，初五日辰時至，測雨器水深爲四寸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초4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51. 1888년(고종 25) 3월 13일(양력 4월 2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74a~74b)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20b~21a)

臣營下今三月初五日得雨四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延安等三邑, 川渠漲滿, 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載寧·瑞興·遂安·白川·金川等十四邑, 得一犁, 黃州·鳳山·平山·新溪·冤山·谷山等六邑, 得二鋤是如爲白乎. 旣,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 日漸向青, 春麴方張立苗, 早黍·粟耕播垂畢, 晚黍·粟·唐稷今始播種是白遣,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方張抽芽, 春麴幾盡播種, 早黍·粟·唐稷始或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초5일에 내린 비가 4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연안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재령·서흥·수안·배천·금천 등 1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황주·봉산·평산·신계·토산·곡산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한창 싹이 돋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아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트고 있고, 봄보리는 거의 다 씨앗을 뿌렸고, 올기장·올조·수수는 비로소 더러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52. 1888년(고종 25) 3월 18일(양력 4월 28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75a~75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22a~22b)

저의 臣營下今三月十七日戌時始雨, 或霏或灑, 十八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四分是白如  
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감영에 이번 3월 17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  
가 18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53. 1888년(고종 25) 3월 23일(양력 5월 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75b~75c)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22b~23a)

臣營下今三月十八日得雨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黃州, 得一鋤, 載寧溫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次第苗長, 春麴日漸向青, 早黍·粟間間立苗, 晚黍·粟·唐稷, 已盡耕播, 早稻·木綿, 今始落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谷山·遂安·金川·平山·新溪·冕山等十邑, 秋麴·小麥今方向長, 春麴過半出土, 早黍·粟幾盡耕種, 晚黍·粟·唐稷方張播種, 早稻·木綿間或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農形及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18일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황주는 1서가 내렸고, 재령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자라고, 봄보리는 절반 이상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씨앗을 뿌리고 있고, 올벼·목화는 간혹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54. 1888년(고종 25) 4월 13일(양력 5월 2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79b~79c)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31a~31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今方發穗, 春麴始或胚胎, 早黍·粟初耘伊始, 晚黍·粟·唐稷幾盡立苗, 早稻·木綿間間立苗, 晚稻方張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金川·平山·新溪·兎山等十邑, 秋麴·小麥今方胚胎, 春麴日漸茁長, 早黍·粟已盡立苗, 晚黍·粟·唐稷今始出土, 早稻·木綿及山田火粟, 舉皆耕播, 晚稻次第落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비로소 더러 이삭을 배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싹이 돋고, 늦벼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금천·평산·신계·토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이삭을 배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올벼·목화 및 산전의 화속은 대부분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늦벼는 차례로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55. 1888년(고종 25) 5월 3일(양력 6월 12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83d~84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41a~41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白川·延安等十三邑, 秋麴方張向熟, 春麴·小麥已盡發穗, 早黍·粟初耘垂畢, 晚黍·粟·唐稷始或初耘, 早稻·木綿今方入鋤, 晚稻幾盡立苗是如是白遣,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已盡發穗, 春麴·小麥始或發穗, 早黍·粟初耘伊始,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方張初除草, 早稻·木綿舉皆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맺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비로소 더러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금천·평산·신계·토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봄밀은 비로소 더러 이삭이 맺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한창 초벌 김매기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56. 1888년(고종 25) 5월 4일(양력 6월 1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84a~84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41b~41b)

臣營下今五月初三日辰時，霏微始雨，初四日巳時乃止，測雨器水深爲四分，而雨意尙濃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3일 진시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4일 사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57. 1888년(고종 25) 5월 13일(양력 6월 22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85c~85d)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44b~45a)

臣營下今五月初三日得雨四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得一鋤, 康翎·甕津·延安·白川·載寧·信川等六邑, 沍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幾盡向熟, 春粳·小麥漸次向熟, 早黍·粟間間再耘, 晚黍·粟·唐稷方張初耘, 早稻·木綿◆◆立苗, 晚稻始或是如是白遣,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始或向熟, 春粳·小麥已盡發穗, 早黍·粟初耘垂畢,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初耘伊始, 早稻·木綿幾皆立苗, 晚稻始或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夏至已屆, 一直亢旱, 言念民事, 誠切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3일에 내린 비가 4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 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는 1서가 내렸고, 강령·웅진·연안·배천·재령·신천 등 6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점차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 싹이 돋았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비로소 더러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초벌 김매기를 시작했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싹이 돋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가 이미 닳쳤는데 줄곧 매우 가무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58. 1888년(고종 25) 5월 14일(양력 6월 2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85d~85d)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45a~45b)

臣營下今五月十四日子時始雨, 或霏或灑, 當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爲白乎旅, 亢旱之餘, 雨澤如是零星, 爲念民情, 誠極悶然,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4일 자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심한 가뭄 끝에 우택이 이처럼 보잘 것 없으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그지없이 걱정스럽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59. 1888년(고종 25) 5월 15일(양력 6월 24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85d~86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45b~45b)

臣營下今五月十四日得雨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日之雨, 海州段得二鋤是如爲白乎旅. 臣營下今五月十五日丑時始雨霏微, 當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久旱之餘, 雨澤猶未優洽, 田稼雖稍蘇醒, 畓秧無以移插, 爲念民事, 尙切悶然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4일에 내린 비가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의 비로 해주는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5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부슬부슬 내리다가 당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우택은 여전히 넉넉하게 흡족하지 않으니, 밭의 벼는 비록 조금 되살아 나지만 논의 모는 옮겨심지 못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0. 1888년(고종 25) 5월 23일(양력 7월 2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86c~86d)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47a~47b)

臣營下今五月十五日得雨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康翎, 得一犁, 海州·襄津·長淵·信川·載寧等五邑, 得一鋤, 瑞興·殷栗, 浥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間或刈穫, 春麴·小麥日漸向熟, 早黍·粟三耘伊始, 晚黍·粟·唐稷次第再耘, 早稻·木綿今方再除草, 晚稻初耘垂畢, 秧苗方張移插, 豆·太·木麥今始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幾盡成熟, 春麴·小麥漸次入實, 早黍·粟過半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間間再耘, 早稻·木綿舉皆初耘, 晚稻今始入鋤, 秧苗始或移插是如. 爲等如, 牒呈是白有置[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5일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강령은 1려가 내렸고, 해주·웅진·장연·신천·재령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서흥·은율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봄보리·봄밀은 날로 점점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모는 한창 옮겨 심고 있고, 콩·팥·메밀은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성숙했고, 봄보리·봄밀은 점차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지금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모는 비로소 옮겨 심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61. 1888년(고종 25) 5월 27일(양력 7월 6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86d~87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47b~48a)

道內農形悶旱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見今嘆乾轉甚，毋論峽野，各穀俱被枯損，水付秧坂亦皆龜坼，目下民情，萬萬遑汲乙仍于，海州牧祈雨祭，不卜日今五月二十八日虔誠設行于社稷壇所事，當日發行，而各邑祈雨祭，隨其緩急，次第設行之意，發關分付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하는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가뭄이 갈수록 심하여 산골짜기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각종 곡식이 모두 말라 손상되니 무논이나 못자리 또한 다 거북등처럼 갈라지니 눈앞의 백성들 심정은 매우 다급하므로 해주목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이번 5월 28일에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사직단에서 시행하려는 일로 당일 출발하였습니다. 각 고을의 기우제는 다급한 정도에 따라 차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 분부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62. 1888년(고종 25) 6월 1일(양력 7월 9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89c~89c)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54a~54b)

去五月二十八日，社稷壇祈雨祭設行後，還營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伊日戌時始雨，或霏或灑，今六月初一日丑時至，測雨器水深爲七寸七分是白如乎，久旱之餘，得此甘霈，雖有晚時之歎，可蘇田畝之穀，目下民事，誠甚欣幸是白乎等以。海州牧祈雨祭，姑爲停止爲白乎旅，列邑得雨多少，祈雨祭設行與否，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5월 28일에 사직단 기우제를 시행한 뒤 감영으로 돌아온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그날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이번 6월 초1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7푼이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를 만나니 비록 때늦은 한탄은 있지만 논밭의 곡식이 살아날 수 있으니 눈앞의 백성들 사정이 정말로 매우 기쁘고 다행스러우며, 해주목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비 양과 기우제 시행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 0463. 1888년(고종 25) 6월 3일(양력 7월 11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89c~89d)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54b~55a)

臣營下今六月初一日得雨七寸七分形止及霽祭停止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信川·載寧·鳳山等五邑, 川渠漲滿, 延安·文化, 得二犁,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已盡收穫, 春麴·小麥今始刈取, 早黍·粟方張三耘, 晚黍·粟·唐稷舉皆再耘, 早稻·木綿過半再耘, 晚稻初耘垂畢, 秧苗幾盡移插, 豆·太·木麥間或立苗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方張刈取, 春麴·小麥日漸向熟, 早黍·粟今始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過半再耘, 早稻·木綿再耘伊始, 晚稻今方〈初〉耘, 秧苗次第移插, 豆·太·木麥方始耕播是如爲白遣, 臣營下今六月初二日未時, 又爲霽灑, 今初三日酉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寸三分是白如乎, 嗣後農形及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1일에 내린 비가 7치 6푼인 경위 및 기우제 중지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신천·재령·봉산 등 5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연안·문화는 2려가 내렸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수확하였고, 봄보리·봄밀은 지금 베어 거두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모는 거의 다 옮겨 심었고, 콩·팥·메밀은 간혹 싹이 돋는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봄밀은 날로 점점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모는 차례로 옮겨 심고, 콩·팥·

메밀은 막 땅을 갈아 씨앗 뿌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2일 미시에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이번 초3일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3푼이었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4. 1888년(고종 25) 6월 9일(양력 7월 17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90a~90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55a~55b)

臣營下今六月初一日得雨形止及初三日得雨形止, 已爲馳啓爲白有在果. 初一日之雨, 長淵·松禾·豐川·文化·長連·殷栗·瑞興·遂安·谷山等九邑, 川渠漲滿, 白川·金川·平山·新溪·兎山等五邑, 得二犁是如爲白乎跡, 初三日之雨,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等十一邑, 川渠漲滿, 延安·白川·平山·新溪·兎山·金川·載寧·黃州·鳳山等九邑, 得二犁, 瑞興·遂安·谷山等三邑, 得一犁是如爲白乎跡. 臣營下今初七日申時始雨, 或霏或灑, 初九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爲六寸四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1일에 비가 내린 경위 및 초3일에 비가 내린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초1일의 비로 장연·송화·풍천·문화·장련·은율·서흥·수안·곡산 등 9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배천·금천·평산·신계·토산 등 5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하며, 초3일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연안·배천·평산·신계·토산·금천·재령·황주·봉산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서흥·수안·곡산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7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9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5. 1888년(고종 25) 6월 13일(양력 7월 21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90d~91b)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57b~58a)

臣營下今六月初九日丑時至, 得雨六寸四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甕津·信川·載寧·鳳山·平山·延安·白川·金川·瑞興等十一邑, 川渠漲滿, 松禾·豐川·殷栗·長連·黃州·遂安·谷山·新溪·兎山·安岳·文化·長淵等十二邑, 得二犁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春粳·小麥已盡刈取, 早黍·粟過半三耘, 晚黍·粟·唐稷今始三耘, 早稻·木綿舉皆再耘, 晚稻間或再耘, 豆·太·木麥幾皆立苗是如爲白遣,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幾盡刈取, 春粳·小麥方張收穫, 早黍·粟始或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再耘垂畢, 早稻·木綿再耘伊始, 晚稻已盡初耘, 豆·太·木麥間或出土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9일 축시까지 내린 비가 6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신천·재령·봉산·연안·배천·평산·금천·서흥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송화·풍천·은율·장련·황주·수안·곡산·신계·토산·안악·문화·장연 등 12개 고을은 2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베어 거둬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한창 수확하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66. 1888년(고종 25) 6월 23일(양력 7월 31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91b~91c)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58a~58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延安·豐川·信川·安岳·白川·文化·長連·松禾·殷栗等十三邑, 早黍·粟幾盡三耘, 晚黍·粟·唐稷方張三耘, 早稻·木綿再耘垂畢, 晚稻今方再耘, 豆·太·木麥已盡立苗是如爲白乎旆, 黃州·瑞興·谷山·平山·金川·鳳山·載寧·遂安·新溪·兎山等十邑, 春粳·小麥已盡刈取, 早黍·粟過半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三耘伊始, 早稻·木綿舉皆再耘, 晚稻間間再耘, 豆·太·木麥幾盡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돋았다고 하며, 황주·서흥·곡산·평산·금천·봉산·재령·수안·신계·토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베어 거뒀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67. 1888년(고종 25) 6월 26일(양력 8월 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92a~92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59b~59b)

臣營下今六月二十六日巳時始雨，或霏或灑，當日午時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是白如乎，列  
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6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  
니다.

## 0468. 1888년(고종 25) 7월 3일(양력 8월 10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94a~94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64a~64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今方發穗, 晚黍·粟·唐稷始或胚胎, 早稻·木綿幾盡三耘, 晚稻三耘伊始, 豆·太·木麥今始初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今方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三耘垂畢, 早稻·木綿方張三耘, 晚稻過半再耘, 豆·太·木麥舉皆立苗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비로소 더러 이삭을 배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지금 비로소 초벌 김매기가 시작하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대부분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69. 1888년(고종 25) 7월 11일(양력 8월 18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94b~94b)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65a~65a)

臣營下今七月十一日丑時始雨, 或灑或止, 當日午時至, 測雨器水深爲六分, 而陰雲未散, 尙有雨意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1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다가 더러 그치면서 당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먹구름이 흩어지지 않아 아직 비올 조짐이 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0. 1888년(고종 25) 7월 13일(양력 8월 20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94b~94c)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65a~65b)

臣營下今七月十一日得雨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 得二鋤, 襄津·信川·載寧·延安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已盡發穗, 晚黍·粟·唐稷今方發穗, 早稻間或胚胎, 木綿今始起花, 晚稻舉皆三耘, 豆·太·木麥始或再耘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舉皆胚胎,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三耘垂畢, 早稻·木綿, ◆◆◆◆, 晚稻三耘伊始, 豆·太·木麥過半初耘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七月十二日巳時又雨, 或霏或止, 十三日卯時至, 測雨器水深爲三分是白如乎, 嗣後農形及雨澤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1일에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은 2서가 내렸고, 웅진·신천·재령·연안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이삭이 났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올벼는 간혹 이삭을 배고, 목화는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고, 늦벼는 대부분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비로소 더러 두벌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알을 났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2일 사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그치면서 13일 묘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푼이었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우택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71. 1888년(고종 25) 7월 23일(양력 8월 30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95c~95d)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67b~68a)

臣營下今七月十三日得雨三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海州·康翎·囊津·長淵·松禾·豐川·信川·安岳等八邑, 得一犁, 殷栗·載寧·黃州·鳳山·延安·白川·平山·遂安等八邑, 得二犁, 瑞興·谷山·金川·新溪·兔山·文化·長連等七邑, 川渠漲滿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囊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向熟, 晚黍·粟·唐稷次第發穗, 早稻間或發穗, 木綿今始結顆, 晚稻始或胚胎, 豆·太·木麥間間起花是如爲白遣,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平山·金川等十邑, 早黍·粟今方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方張發穗, 早稻今始胚胎, 木綿次第起花, 晚稻間或胚胎, 豆·太·木麥間間再耘是如. 爲等如, 牒呈爲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13일에 내린 비가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안악 등 8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은율·재령·황주·봉산·연안·배천·평산·수안 등 8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서흥·곡산·금천·신계·토산·문화·장린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이삭이 패고, 올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목화는 지금 다래를 맺기 시작했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이삭을 배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꽃이 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평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올벼는 지금 이삭을 배기 시작했고, 목화는 차례로 꽃이 피고, 늦벼는 간혹 이삭을 배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2. 1888년(고종 25) 7월 27일(양력 9월 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96a~96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68b~68b)

臣營下今七月二十七日卯時始雨，或霏或灑，當日酉時止，測雨器水深爲一寸七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7월 27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유시에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73. 1888년(고종 25) 8월 3일(양력 9월 8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96d~97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70b~71a)

臣營下去七月二十七日得雨一寸七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延安·白川·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等九邑, 得二犁, 殷栗·載寧·黃州·鳳山·平山等五邑, 得一犁, 文化·兔山·瑞興等三邑, 得二鋤是如爲白遣,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幾盡成熟, 晚黍·粟·唐稷今方入實, 早稻舉皆發穗, 木綿方張結穎, 晚稻已盡胚胎, 豆·太·木麥過半起花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谷山·遂安·平山·新溪·兔山·金川等十邑, 早黍·粟次第向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已爲發穗, 早稻幾盡胚胎, 木綿舉皆起花, 晚稻方張胚胎, 豆·太·木麥今始起花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지난 7월 27일에 내린 비가 1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연안·배천·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은율·재령·황주·봉산·평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토산·문화·서흥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성숙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알이 들고, 올벼는 대부분 이삭이 났고, 목화는 한창 다래를 맺고, 늦벼는 이미 다 알을 났고, 콩·팥·메밀은 절반 이상 꽃이 피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곡산·수안·평산·신계·토산·금천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이미 이삭이 났고, 올벼는 거의 다 알을 났고, 목화는 대부분 꽃이 피었고, 늦벼는 한창 이삭을 매고 있고, 콩·팥·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4. 1888년(고종 25) 8월 15일(양력 9월 20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97c~97d)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72a~72b)

臣營下今八月十四日辰時始雨, 或霏或灑, 至十五日卯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七分是白如平,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14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5일 묘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5. 1888년(고종 25) 8월 27일(양력 10월 2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98b~98b) /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73b~73b)

卽接各邑所報，則金川，今八月十八日夜霜降，海州·白川·遂安，十九日夜霜降，瑞興，二十  
〈日〉夜霜降是如，爲等如，牒呈爲白有知乎，列邑災實分等，待概狀齊報，追後登聞計料，緣由  
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금천은 이번 8월 18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해주·배  
천·수안 등 3개 고을은 19일 밤에 서리가 내렸고, 서흥은 20일 밤에 서리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재해와 결실, 풍흉 등급은 개요를 일제히 보고하  
기를 기다려 나중에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6. 1889년(고종 26) 3월 8일(양력 4월 7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15a~115b)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08b~108b)

卽接道內各邑農形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粃·小麥今始抽芽, 春粃次第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粃·小麥方張脫袴, 春粃間或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清明纔過, 東作伊始, 勸課之政, 不容少忽是白乎等以. 另飭列邑, 借牛勸耕, 分糶助糧, 期於各盡其力, 無或失時, 築堰·防汛, 貯水·蒙利等節, 亦令着意舉行之意, 一體嚴飭.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황해도 내 각 고을의 농사 상황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트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차례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트고 있고, 봄보리는 간혹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청명이 겨우 지났고 봄농사가 시작되었으니 농사일을 권장하는 정책은 조금도 소홀할 수 없으므로 여러 고을에 별도로 지시하여 소를 빌려주어 갈기를 권유하고 환곡을 나눠 식량을 도와 기어코 각자 힘을 다해 흑시라도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독을 쌓고 보를 막아 물을 저장하여 물대기에 이롭도록 하는 등의 사항 또한 유념해서 거행하라는 뜻을 일체로 엄중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7. 1889년(고종 26) 3월 28일(양력 4월 27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16b~116c)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11a~111b)

道內農刑[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日漸向青, 春麴次第立苗, 早黍·粟過半耕種[播], 晚黍·粟·唐稷始或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甌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漸次向青, 春麴今始出土, 早黍·粟方張耕播, 晚黍·粟·唐稷間或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비로소 더러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지금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8. 1889년(고종 26) 4월 8일(양력 5월 7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17b~117c)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13b~113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長連·延安·豐川·襄津·信川·安岳·白川·文化·長淵·松禾·殷栗等十三邑, 俱被嘆乾, 秋麴·小麥枯萎居多, 春麴尙未茁長, 早黍·粟立苗稍遲, 晚黍·粟·唐稷幾皆耕播, 早稻·木綿次第播種是如爲白乎旆, 黃州·瑞興·谷山·平山·鳳山·載寧·遂安·新溪·冕山·金川等十邑, 亦被嘆乾, 秋麴小麥多有枯損, 春麴間或立苗, 早黍·粟尙遲出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過半落種, 早稻·木綿今始耕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장련·연안·풍천·웅진·신천·안악·배천·문화·장연·송화·은율 등 13개 고을은 모두 가뭄을 당해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시들어 말랐고, 봄보리는 아직 싹이 자라지 못했고, 올기장·올조는 싹 돋는 것이 조금 늦어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황주·서흥·곡산·평산·봉산·재령·수안·신계·토산·금천 등 10개 고을 또한 가뭄을 당해 가을보리·가을밀은 마르고 손상된 것이 많고, 봄보리는 간혹 아직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싹이 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직 늦어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절반 이상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는 지금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79. 1889년(고종 26) 4월 15일(양력 5월 14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117c~117c) /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113b~114a)

臣營下今四月十四日巳時始雨，或霏或灑，至當日申時乃止，測雨器水深爲九分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4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480. 1889년(고종 26) 4월 18일(양력 5월 17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17d~118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14b~115a)

臣營下今四月十四日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得一犁, 延安·白川, 得二鋤, 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豐川)·載寧·鳳山·黃州·瑞興·平山·金川等十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旂.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始或胚胎, 春麴今方茁茂, 早黍·粟次第立苗, 晚黍·粟·唐稷間或出土, 早稻·木綿舉皆耕播, 晚稻今始落種是如爲白遣,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過半茁長, 春麴日漸向青, 早黍·粟今始出土,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已皆耕播, 早稻·木綿今方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4일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는 1려가 내렸고, 연안·배천은 2서가 내렸고, 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문화)·재령·봉산·황주·서흥·평산·금천 등 1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비로소 더러 이삭을 배고, 봄보리는 지금 막 싹이 무성하게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늦벼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절반 이상 싹이 자랐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1. 1889년(고종 26) 4월 28일(양력 5월 27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18a~118b)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15a~115b)

道內農形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粃始或發穗, 春粃·小麥方張胚胎, 早黍·粟今始初耘, 晚黍·粟·唐稷學皆立苗, 早稻·木綿間間出土, 晚稻幾盡播種是如爲白乎旃,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菟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粃·小麥今方胚胎, 春粃方張茁長, 早黍·粟次第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已盡出土, 早稻·木綿耕播垂畢, 晚稻方張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비로소 더러 이삭이 패고, 봄보리·봄밀은 한창 이삭을 배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늦벼는 거의 다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이삭을 배고, 봄보리는 한창 싹이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차례로 싹이 돋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이미 다 싹이 땅 밖으로 나왔고, 올벼·목화는 땅을 갈아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82. 1889년(고종 26) 5월 8일(양력 6월 6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0b~120b)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19a~119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已盡發穗, 春麴·小麥舉皆胚胎, 早黍·粟初耘已畢, 晚黍·粟·唐稷今始初耘, 早稻·木綿次第立苗, 晚稻始或出土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幾皆胚胎, 春麴·小麥過半茁茂, 早黍·粟已盡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或立苗, 早稻·木綿漸次出土, 晚稻耕播垂畢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彌月惜乾, 言念民事, 誠切悶然爲白乎旆,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이삭이 맺고, 봄보리·봄밀은 대부분 알을 맺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싹이 돋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알을 맺고, 봄보리·봄밀은 절반 이상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간혹 싹이 돋고, 올벼·목화는 점차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늦벼는 갈아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가뭄을 걱정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3. 1889년(고종 26) 5월 14일(양력 6월 12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0c~120c)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19b~120a)

臣營下今五月十四日卯時始雨，或霏或灑，當日酉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4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4. 1889년(고종 26) 5월 15일(양력 6월 1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0c~120c)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0a~120a)

道內農形悶旱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見今嘆乾轉甚，毋論峽野，各穀俱被枯損，水付秧坂亦皆龜坼，目下民情，萬萬遑汲乙仍于，海州牧祈雨祭不卜日，今五月十六日，虔誠設行于社稷壇所事，當日發行，而各邑祈雨祭，隨其緩急，次第設行之意，發關分付是白遣，鳳山段，嘆乾尤甚於諸邑，今五月初八日先爲設行。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하는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가뭄이 갈수록 심하여 산골짜기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각종 곡식이 모두 시들어 손상되고 무논이나 못자리 또한 모두 거북등처럼 갈라지니 눈앞의 백성들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 다급하므로, 해주목의 기우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이번 5월 16일에 사직단에서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시행하려고 당일 출발하였습니다. 각 고을의 기우제는 다급한 정도에 따라 차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 분부하였습니다. 봉산의 경우 가뭄이 여러 고을보다 더욱 심하여 이번 5월 초8일에 먼저 시행했습니다. 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5. 1889년(고종 26) 5월 18일(양력 6월 16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0d~121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0a~120b)

道內農形悶旱之由及臣營下今五月十四日得雨一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襄津·長淵·松禾等四邑, 得一犁, 載寧·鳳山·殷栗·瑞興等四邑, 得一鋤是如爲白遣, 農形段, 海州·長淵·延安·豐川·襄津·信川·安岳·白川·文化·長連·松禾·殷栗·康翎等十三邑, 秋麴向熟, 春麴·小麥漸次入實, 早黍·粟今始再耘, 晚黍·粟·唐稷初耘伊始, 早稻·木綿次第入鋤, 晚稻舉皆立苗是如爲白乎旅, 黃州·瑞興·谷山·平山·金川·鳳山·載寧·遂安·新溪·兔山等十邑, 秋麴間向熟, 春麴·小麥漸次入實, 早黍·粟初耘伊始,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方張初耘, 早稻·木綿舉皆立苗, 晚稻間或出土是如, 爲等如, 牒呈爲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과 가뭄을 걱정하는 연유 및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4일에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웅진·장연·송화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재령·봉산·은율·서흥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장연·연안·풍천·웅진·신천·안악·배천·문화·장린·송화·은율·강령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점차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대부분 싹이 돋았다고 하며, 황주·서흥·곡산·평산·금천·봉산·재령·수안·신계·토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간이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점차 알이 들고, 올기장·올조는 초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한창 초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늦벼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온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6. 1889년(고종 26) 5월 22일(양력 6월 20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1a~121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1a~121a)

今五月十六日，海州牧社稷壇祈雨祭設行後還營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十七日酉時始雨，或霏或灑，十八日酉時至，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是白如乎，久旱之餘，得此甘霖，誠甚欣幸，而陰雲四塞，連有雨意，祈雨祭姑爲停止是白加尼，伊日以後，仍卽開霽，目下農形又爲渴悶乙仍于，海州牧再次祈雨祭，今二十三日更爲設行于龍塘浦，臣當日發行爲白乎旆，列邑得雨形止，祈雨祭設行與否，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16일에 해주목 사직단 기우제를 시행한 뒤 감영으로 돌아온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17일 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8푼이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를 만나 정말로 매우 기쁘고 다행이며, 먹구름이 사방에 짙 차서 연이어 비올 조짐이 있어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더니, 그날 이후 곧바로 개어 눈앞의 농사 상황은 또 애타게 걱정스러우므로 해주목의 2차 기우제를 이번 23일에 다시 용당포에서 시행하려고 저는 당일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와 기우제 시행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87. 1889년(고종 26) 5월 23일(양력 6월 21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121a~121b) /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121a~121a)

臣海州牧龍塘浦祈雨祭設行後，當日還營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제가 해주목 용당포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뒤 당일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88. 1889년(고종 26) 5월 26일(양력 6월 24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1b~121b)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1a~121b)

今五月二十三日，海州牧龍塘浦再次祈雨祭設行後還營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雨意尙遲，民情轉益渴悶乙仍于，連舉圭璧，不容少緩，而臣適患痰滯，未由將事，今二十六日海州牧牛耳山第三次祈雨祭，使本牧判官金奎升替行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23일에 해주목 용당포에서 2차 기우제를 시행한 뒤 감영으로 돌아온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비올 조짐이 아직도 늦어지니 백성들의 심정은 갈수록 애타게 걱정스러우므로 연이은 기우제 거행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침 담이 뭉치는 병으로 제를 올리는 일에 휴가를 얻어서, 이번 26일 해주목 우이산의 3차 기우제는 본 해주목 관관 김규승에게 대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89. 1889년(고종 26) 5월 28일(양력 6월 26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121b~121c) /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121b~121b)

今五月二十六日海州牧牛耳山祈雨祭, 使本牧判官金奎升替行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今二十九日, 海州牧龍首山第四次祈雨祭, 連爲設行, 而臣所患痰滯, 今爲少差乙仍于, 躬禱次當日發行爲白乎旆, 嗣後形止,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26일에 해주목 우이산 기우제를 본 해주목 관관 김규승에게 대신 시행하게 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29일에 해주목 용수산에서 4차 기우제를 연이어 시행하는데, 제가 담이 뭉친 병이 지금 조금 나았으므로 몸소 빌려고 당일 출발하겠습니다. 이후 경위는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90. 1889년(고종 26) 5월 29일(양력 6월 27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1c~121c)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1b~121b)

臣海州牧龍首山祈雨祭設行後，當日還營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

제가 해주목 용수산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뒤 당일 감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1. 1889년(고종 26) 6월 2일(양력 6월 29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123a~123a) /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125a~125a)

去五月二十九日海州牧龍首山祈雨祭設行〈後〉, 還營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今六月初三日南山第五次祈雨祭, 臣所患痰滯, 今又闖發, 末由將事, 以本牧判官金奎升替行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지난 5월 29일에 해주목 용수산에서 기우제를 시행한 뒤 감영으로 돌아온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6월 초3일에 남산에서 지별 5차 기우제는 제가 담이 뭉친 병이 지금 또 발생하여 제를 올리는 일에 휴가를 얻어서, 본 해주목 관관 김규승이 대신 시행합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2. 1889년(고종 26) 6월 5일(양력 7월 2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3b~123b)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5a~125b)

今六月初三日海州牧南山祈雨祭, 使本牧判官金奎升替行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今初六日海州牧池城山第六次祈雨祭, 臣所患痰滯, 尙今彌留, 使本牧判官金奎升替行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초3일의 해주목 남산 기우제를 본 해주목 판관 김규승에게 대신 시행하게 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초6일에 해주목 지성산에서 6차 기우제를, 제가 담이 뭉친 병이 아직도 낫지 않아 본 해주목 판관 김규승에게 대신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3. 1889년(고종 26) 6월 8일(양력 7월 5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3c~123d)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6a~126b)

去五月二十七日得雨一寸九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襄津·長淵·載寧·黃州·瑞興·金川等九邑, 得二犁, 松禾·豐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平山等九邑, 得一犁, 鳳山·遂安·新溪·兎山·谷山等五邑, 得二鋤是如爲白乎.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甦幾盡刈穫, 春甦·小麥已皆向熟, 早黍·粟三耘伊始, 晚黍·粟·唐稷次第再耘, 早稻·木綿今方再除草, 晚稻初耘垂畢, 秧苗方張移插, 豆·太·木麥已盡播種是如爲白遣,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甦方始刈穫, 春甦·小麥亦皆入實, 早黍·粟過半再耘, 晚黍·粟·唐稷山田火粟, 幾盡初除草, 早稻·木綿舉皆初耘, 晚稻今始入鋤, 秧苗間或移插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5월 27일에 내린 비가 1치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장연·재령·황주·서흥·금천 등 9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송화·풍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평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봉산·수안·신계·토산·곡산 등 5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거의 다 베어 수확하였고, 봄보리·봄밀은 이미 다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두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모는 한창 옮겨 심고 있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막 베어 수확하기 시작했고, 봄보리·봄밀 또한 다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지금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모는 간혹 옮겨 심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94. 1889년(고종 26) 6월 11일(양력 7월 8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124b~124c) /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127b~128a)

今六月初九日, 海州牧社稷壇第七次祈雨祭設行後, 還營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營下今初十日丑時始雨, 或霏或霏, 十一日寅時至, 測雨器水深爲四寸三分是白如乎, 久旱之餘, 得此甘霖, 非徒田穀之蘇醒, 稍爲畚庫之灌溉, 目下民事, 誠甚欣幸, 而陰雲四低, 雨意尙濃是白乎等以. 海州牧祈雨祭, 姑爲停止爲白乎脉, 列邑得雨多少, 祈雨祭停止與否,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초9일의 해주목 사직단에서 7차 기우제를 시행한 뒤 감영으로 돌아온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초10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1일 인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 3푼이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를 만나 밭곡식이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나마 논에 물을 대게 되었으니, 눈앞의 백성들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기쁘고 다행이며, 먹구름이 사방에 깔려 비올 조짐이 아직 짙으므로 해주목 기우제는 일단 중지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내린 비 양과 기우제 중지 여부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495. 1889년(고종 26) 6월 16일(양력 7월 1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4d~125a)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9a~129a)

今六月十一日得雨四寸三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信川等三邑, 川渠漲滿, 長淵·松禾·安岳·載寧·黃州·瑞興·延安·白川·金川·平山等十邑, 得二犁, 襄津·豐川·文化·長連·殷栗·鳳山·遂安·谷山·新溪·冤山等十邑, 得一犁是如爲白乎跡. 臣營下今六月十四日寅時又雨, 或霏或灑, 十六日申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九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11일에 내린 비가 4치 3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신천 등 3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장연·송화·안악·재령·황주·서흥·연안·배천·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웅진·풍천·문화·장려·은율·봉산·수안·곡산·신계·토산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14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6일 신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9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96. 1889년(고종 26) 6월 18일(양력 7월 15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5a~125b) / 黃海監營狀啓臚錄 20책(129b~130a)

今六月十六日得雨一寸九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襄津等三邑, 得二鋤, 信川·文化·鳳山·載寧·新溪等五邑, 得一鋤, 延安·白川·瑞興·安岳等四邑, 浥塵是如是白遣,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春耨·小麥幾皆刈取, 早黍·粟三耘垂畢, 晚黍·粟·唐稷三耘伊始, 早稻·木綿過半再除草, 晚稻始或再耘, 秧苗方始着根, 豆·太·木麥間間入鋤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耨已皆收穫, 春耨·小麥幾盡刈穫, 早黍·粟始或三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今始再耘, 早稻·木綿初耘垂畢, 晚稻今方初除草, 秧苗次第移插, 豆·太·木麥間或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農形及各邑雨澤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16일에 내린 비가 1치 9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신천·문화·봉산·재령·신계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연안·배천·서흥·안악 등 4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베어 거뒀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두벌 김매기를 하고, 모는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이미 다 수확했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베어 수확했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벼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모는 차례로 옮겨 심고, 콩·팥·메밀은 간혹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각 고을 우택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97. 1889년(고종 26) 6월 22일(양력 7월 19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125d~126a) / 黃海監營狀啓謄錄 20책131a~131a)

今六月十一日海州牧祈雨祭停止之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各邑祈雨祭段, 鳳山, 去五月初八日爲始, 第五次設行. 康翎, 去五月十七日爲始, 第五次設行. 延安, 去五月十七日爲始, 第九次設行. 金川·信川, 去五月十八日爲始, 各五次設行. 載寧, 去五月十八日一次設行. 白川·平山, 去五月十九日爲始, 各十次設行, 竝爲停止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6월 11일에 해주목 기우제를 중지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각 고을 기우제의 경우, 봉산은 지난 5월 초8일부터 5차 시행, 강령은 지난 5월 17일부터 5차 시행, 연안은 지난 5월 17일부터 9차 시행, 금천·신천은 지난 5월 18일부터 각각 5차 시행, 재령은 지난 5월 18일 1차 시행, 배천·평산은 지난 5월 19일부터 각각 10차 시행하고, 모두 중지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0498. 1899년(광무 3) 2월 22일(양력 4월 2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42b~142b)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22a~22a)

卽接各邑農形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方始抽芽, 春麴次第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過半脫袴, 春麴間或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清明已屆, 東作伊始, 勸課之政, 不容少忽分叱除良, 歲首綸音極其懇摯是白乎等以. 連飭列邑, 借牛助糧, 期於各自服力, 毋或失時は白遣, 築堰·防汛, 貯水蒙利等節, 亦令着念舉行之意, 一體嚴飭.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방금 각 고을의 농사 상황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막 싹이 트기 시작하였고, 봄보리는 차례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절반 이상 싹이 났고, 봄보리는 간혹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청명이 이미 닳쳤고 봄농사가 시작됐는데 농사일을 권장하는 정책은 조금도 소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초 임금님의 말씀이 그지없이 간절하고 진지하므로 연이어 여러 고을에 지시하여 소를 빌려주고 양식을 도와 기어코 각자 힘을 다하여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독을 쌓고 보를 막아 물을 저장해서 물 대기에 이롭게 하는 등의 사항 또한 유념해서 거행하도록 하라는 뜻을 일체로 엄중히 지시하였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499. 1899년(광무 3) 3월 2일(양력 4월 11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44d~145a)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26a~26b)

臣離營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之行部，自海州牧，歷過載寧·信川·安岳·文化·松禾，方到長淵縣，而詳審沿路農形，則秋粃·小麥幾盡抽芽，春粃間或出土，早黍·粟今方耕播是白遣，卽接各邑所報，則康翎·襄津·豐川·長連·殷栗·延安·白川等七邑，與臣所經過處，一般無異是白乎旆，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九邑，秋粃·小麥方張抽芽，春粃播種垂畢，早黍·粟耕種伊始是如爲白乎旆，今三月初一日辰時始雨，間間霏灑，至戌時乃止，所得爲一鋤許是白如乎，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제가 감영을 떠난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부에 가며 해주목에서부터 재령·신천·안악·문화·송화를 거쳐 막 장연현에 도착하였는데, 지나는 길가의 농사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니, 가을보리·가을밀은 거의 다 싹이 텄고, 봄보리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강령·웅진·풍천·장린·은율·연안·배천 등 7개 고을은 제가 지나온 곳과 일체이며 다름이 없고, 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9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싹이 트고 있고, 가을보리는 씨앗 뿌리기를 거의 마쳤고, 올기장·올조는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3월 초1일 진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간이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내린 것은 1서쯤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00. 1899년(광무 3) 3월 6일(양력 4월 15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45c~145c)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27a~27b)

今月初一日, 臣巡到長淵縣, 雨澤一鋤許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臣之行部, 今初六日, 方到襄津府, 而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襄津·康翎·海州·松禾·豐川·信川·安岳·長連·殷栗·載寧·黃州·瑞興·延安·金川·平山·新溪·冤山等十七邑, 得一鋤, 文化溫塵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在乎, 餘外各邑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초1일에 제가 순시하며 장연현에 도착하여 우택이 1서쫄인 경위를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부로 가며 이번 초 6일에 막 웅진부에 도착하였는데,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웅진·강령·해주·송화·풍천·신천·안악·장련·은율·재령·황주·서흥·연안·금천·평산·신계·토산 등 1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문화는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1. 1899년(광무 3) 3월 9일(양력 4월 18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46b~146b) /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28b~28b)

今三月初一日之雨, 襄津等十八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谷山得一犁, 遂安·鳳山·白川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今初九日寅時, 又爲始雨, 或霏或灑, 至當日午時乃止, 側[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3월 초1일의 비로 웅진 등 18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곡산은 1려가 내렸고, 수안·봉산·배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초9일 인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오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02. 1899년(광무 3) 3월 12일(양력 4월 21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47b~147c)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30a~30b)

臣營下今三月初九日得雨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康翎·延安得二鋤, 海州·黃州·豐川等三邑, 得一鋤, 長淵·湍塵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耨·小麥日漸向長, 春耨舉皆立苗, 早黍·粟幾盡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耨·小麥漸次向青, 春耨次第立苗, 早黍·粟方張耕播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詞[嗣]後農形及遠邑得雨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초9일에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령·연안은 2서가 내렸고, 해주·황주·풍천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장연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려·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날마다 자라가고, 봄보리는 대부분 싹이 돋았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푸르러지고, 봄보리는 차례로 싹이 돋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먼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03. 1899년(광무 3) 3월 17일(양력 4월 26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48d~149a) /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33a~33a)

今三月初九日之雨, 康翎等六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殷栗·鳳山·載寧·平山·新溪·兔山·谷山等七邑, 得一鋤, 長淵·長連·松禾·安岳·瑞興·金川·遂安等七邑, 浥塵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3월 초9일의 비로 강령 등 6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은율·봉산·재령·평산·신계·토산·곡산 등 7개 고을은 1서가 내렸고, 장연·장린·송화·안악·서흥·금천·수안 등 7개 고을은 먼지만 적실 정도였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504. 1899년(광무 3) 3월 21일(양력 4월 30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50d~151a)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36b~37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湍·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次第茁長, 春麴日漸向長, 早黍·粟今始立苗, 晚黍·粟·唐稷幾盡播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漸次向茁, 春麴幾皆向青, 早黍·粟間或吐芽, 晚黍·粟·唐稷方張耕播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三月二十日戌時始雨, 間或霏灑, 至二十一日寅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七分是白如乎, 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차례로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자라가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싹이 돋기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씨앗을 뿌렸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점차 싹이 자라고, 봄보리는 거의 다 푸르러지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싹이 나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한창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20일 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간혹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21일 인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05. 1899년(광무 3) 3월 23일(양력 5월 2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51d~151d) /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38a~38a)

臣營下今三月二十三日丑時始雨，或霏或灑，當日未時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23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06. 1899년(광무 3) 3월 26일(양력 5월 5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52d~153a)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39b~39b)

臣營下今三月二十三日得雨一寸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延安得二犁, 海州·襄津·安岳·載寧等四邑, 得一犁, 信川·文化, 得二鋤是如. 牒呈爲白有在乎, 餘外各邑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3월 23일에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연안은 2려가 내렸고, 해주·웅진·안악·재령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신천·문화는 2서가 내렸다고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의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07. 1899년(광무 3) 3월 29일(양력 5월 8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54a~154a) /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41b~42a)

今三月二十三日之雨, 延安等七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得二犁, 康翎·長淵·白川·金川·平山·黃州·鳳山·新溪·谷山等九邑, 得一犁, 長連·冤山, 得二鋤, 豐川·殷栗·松禾·瑞興等四邑, 得一鋤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3월 23일의 비로 연안 등 7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은 2려가 내렸고, 강령·장연·배천·금천·평산·황주·봉산·신계·곡산 등 9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장련·토산은 2서가 내렸고, 풍천·은율·송화·서흥 등 4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508. 1899년(광무 3) 4월 2일(양력 5월 11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54b~154b)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42a~42a)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粳·小麥始或胚胎, 春粳今方茁茂, 早黍·粟幾盡立苗, 晚黍·粟·唐稷間或出土, 早稻·木綿次第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龜山·金川·平山等十邑, 秋粳·小麥已盡茁茂, 春粳日漸向長, 早黍·粟過半立苗, 晚黍·粟·唐稷舉皆耕播, 山田火粟及早稻·木綿, 今始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乎所,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비로소 더러 이삭을 배고, 봄보리는 지금 막 싹이 무성하게 자라고,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싹이 무성하고, 봄보리는 날로 점점 자라가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대부분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산전·화전의 조 및 올벼·목화는 지금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09. 1899년(광무 3) 4월 8일(양력 5월 17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55d~155d) /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44b~44b)

臣營下今四月初七日申時始雨，至初八日酉時乃止，測雨器水深爲七寸一分是白如乎，一晝夜所得若是過多，傍川田畝不無受傷之慮是白乎旆，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7일 신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초8일 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1푼이었습니다. 하루 낮밤에 내린 것이 이처럼 지나치게 많으니 시냇가의 논밭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10. 1899년(광무 3) 4월 10일(양력 5월 19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56c~156c)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46a~46a)

臣營下今四月初八日得雨七寸一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康翎·襄津·豐川·文化·載寧·平山等七邑，川渠漲滿，信川·殷栗，得二犁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餘外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초8일에 내린 비가 7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풍천·문화·재령·평산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신천·은율은 2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1. 1899년(광무 3) 4월 13일(양력 5월 22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57c~157d)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47b~48a)

今四月初八日之雨, 海州等九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長連·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延安·金川·新溪·兎山等十一邑, 川渠漲滿, 長淵·白川, 得二犁, 松禾得一犁是如. 牒呈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間或發穗, 春麴方張胚胎, 早黍·粟始或初耘, 晚黍·粟·唐稷幾盡立苗, 早稻·木綿今始出土, 晚稻次第耕播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今方胚胎, 春麴幾皆茁茂, 早黍·粟已盡立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間出土, 早稻·木綿舉皆耕播, 晚稻始或播種是如. 爲等如, 牒呈是白乎矣, 非時暴霍, 水潦汎濫, 圩堰之汰落, 稗植之融墊, 在在皆然, 誠甚可悶是如是白置有亦. 嗣後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4월 초8일의 비로 해주 등 9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장린·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연안·금천·신계·토산 등 11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장연·배천은 2려가 내렸고, 송화는 1려가 내렸다고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간혹 이삭이 패고, 봄보리는 한창 이삭을 배고 있고,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올벼·목화는 지금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늦벼는 차례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막 이삭을 배고, 봄보리는 거의 다 싹이 무성하고,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싹이 돋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간간이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올벼·목화는 대부분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때아닌 비가 갑자기 주룩주룩 내려 빗물이

범람하고 독과 독이 떨어져 나가고 어린 곡식들이 잠겨서 녹는데 곳곳에서 그러니 정말로 매우 걱정할 만합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12. 1899년(광무 3) 4월 18일(양력 5월 27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62b~162b) /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55b~56a)

道內農形及雨澤，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四月十七日丑時始雨，或灑或霏，至十八日寅時乃止，測雨器水深爲三寸五分是白如乎，近因雨水之太頻，黍·粟及水付畚庫之弱根軟葉，恐不無委靡沈損之慮，誠爲悶然是白乎旆，列邑形止，待其報來，隨即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우택은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7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뿌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18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5푼이었습니다. 요즈음 빗물이 너무 잦은 탓에 기장·조 및 벼씨를 직접 뿌린 무논의 연약한 뿌리나 잎은 아마도 쓰러지거나 물에 잠겨 손상될 염려가 없지 않아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곧바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13. 1899년(광무 3) 4월 20일(양력 5월 29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62d~162d)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56b~56b)

臣營下今四月十八日寅時至, 得雨三寸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襄津·延安·金川·文化等六邑, 川渠漲溢, 載寧·信川·白川等三邑, 得二犁, 長淵·鳳山, 得一犁是如. 爲等如, 牒呈是白如乎, 餘外各邑,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4월 18일 인시까지 내린 비가 3치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연안·금천·문화 등 6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재령·신천·배천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장연·봉산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4. 1899년(광무 3) 4월 24일(양력 6월 2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63c~163d) /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58a~58b)

今四月十八日之雨, 海州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遂安川渠漲溢, 谷山·兔山·豐川·安岳等四邑, 得二犁, 黃州·松禾·長連·殷栗·平山·新溪等六邑, 得一犁, 瑞興得一鋤是如爲白乎跡.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方張發穗, 春牟始或發穗, 早黍·粟<過>半初耘, 晚黍·粟·唐稷間或入鋤, 早稻·木綿幾盡立苗, 晚稻今始出土是如爲白乎跡,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舉皆胚胎, 春牟間始胚胎, 早黍·粟今方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次第立苗, 早稻·木綿間間出土, 晚稻已盡耕播是如. 牒呈是白置有亦. 挽近雨水太頻, 前漲未洩, 珩霍增濫, 沿野田畝之穉苗·軟莖間多沈損, 年例乾播, 無以趁時, 不得不爲付之舉, 而亦難免愆後之難是白如乎, 嗣後形止, 待其報來, 連續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4월 18일의 비로 해주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수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곡산·토산·풍천·안악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황주·송화·장린·은율·평산·신계 등 6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흥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봄보리는 비로소 더러 이삭이 패고, 올기장·올조는 절반 이상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싹이 돋았고, 늦벼는 지금 싹이 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대부분 알을 뻗고, 봄보리는 그사이에 이삭을 배기 시작했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차례로 싹이 돋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싹이 땅 밖으로 나오고, 늦벼는 이미 다 땅을 갈아 씨앗을 뿌렸다고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최근에 빗물이 너무 잦아서 이전에 불어나 빠지지 못했는데 거듭 주룩주

룩 내려서 증가하여 넘치니 물가나 들판 논밭의 어린 싹이나 연약한 줄기는 그사이에 물에 잠겨 손상된 것이 많으며, 해마다 마른 논에 범씨앗을 뿌리는 것은 때를 맞추지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무논에 뿌렸는데 또한 늦은 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후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5. 1899년(광무 3) 5월 5일(양력 6월 12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67b~167c) /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65b~65b)

道內農形, 前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方張入實, 春麴幾盡發穗, 早黍·粟再耘伊始, 晚黍·粟·唐稷初耘垂畢, 早稻·木綿始或入鋤, 晚稻幾皆出土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小麥已盡發穗, 間或入實, 春麴間間發穗, 早黍·粟舉皆初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今方初耘, 早稻·木綿次第立苗, 晚稻過半出土是如, 爲等如, 牒呈是白乎所,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봄보리는 거의 다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올벼·목화는 비로소 더러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거의 다 싹이 땅 밖으로 나왔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이미 다 이삭이 났는데 간혹 알이 들고, 봄보리는 간간이 이삭이 났고, 올기장·올조는 대부분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싹이 돋고, 늦벼는 절반 이상 싹이 땅 밖으로 나왔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16. 1899년(광무 3) 5월 10일(양력 6월 17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67d~168a)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66a~66a)

臣營下今五月初九日巳時始雨，或霏或灑，至初十日丑時乃止，測雨〈器〉水深爲八分是白如平，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9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10일 축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8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17. 1899년(광무 3) 5월 12일(양력 6월 19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68a~168a) /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66b~66b)

臣營下今五月初十日丑時至, 得雨八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襄津得二犁, 康翎·松禾·文化·安岳·長連·載寧·延安等七邑, 得一犁, 海州·白川·金川等三邑, 得二鋤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在乎, 餘外列邑得雨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초10일까지 내린 비가 8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웅진은 2려가 내렸고, 강령·송화·문화·안악·장린·재령·연안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해주·배천·금천 등 3개 고을은 2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18. 1899년(광무 3) 5월 15일(양력 6월 22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68c~168d)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67a~67b)

今五月初十日之雨, 襄津等十一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長淵·豐川·信川·殷栗·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等十邑, 得一犁, 黃州·平山, 得二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方張向熟, 春麴·小麥幾盡入實, 早黍·粟再耘垂畢, 晚黍·粟·唐稷再耘伊始, 早稻·木綿幾皆初耘, 晚稻已盡立苗, 始或入鋤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間或向熟, 春麴·小麥過半入實, 早黍·粟今方再耘,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舉皆初耘, 早稻·木綿次第初耘, 晚稻既盡立苗是如. 爲等如, 牒呈爲白有知乎, 嗣後農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초10일의 비로 웅진 등 11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장연·풍천·신천·은율·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황주·평산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익어가고 있고, 봄보리·봄밀은 거의 다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올벼·목화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거의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혹 익어가고, 봄보리·봄밀은 절반 이상 알이 들었고, 올기장·올조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대부분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차례로 초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이미 다 싹이 돋았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은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19. 1899년(광무 3) 5월 18일(양력 6월 25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68d~168d) /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67b~68a)

臣營下今五月十七日午時始雨，或霏或灑，十八日寅時乃止，側[測]雨器水深爲六分是白如乎，  
列邑形止，待其報來，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7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8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6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0. 1899년(광무 3) 5월 21일(양력 6월 28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69c~169d)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69a~69b)

臣營下今五月十八日得雨六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長連·殷栗等三邑, 得一犁, 海州·康翎·延安·白川·金川·新溪等六邑, 得二鋤, 襄津·文化·載寧·鳳山·平山·瑞興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月二十日丑時始雨, 或霏或灑, 至戌時乃止, 測雨器水深爲一寸四分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5월 18일에 내린 비가 6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장련·은율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연안·배천·금천·신계 등 6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웅진·문화·재령·봉산·평산·서흥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0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술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4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1. 1899년(광무 3) 5월 23일(양력 6월 30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70c~170d)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71a~71b)

今五月十八日之雨, 安岳等十五邑雨澤形止, 今月二十一日, 臣營下得雨一寸四分緣由, 已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十八日之雨, 信川·長淵·松禾·豐川·黃州·兔山等六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二十一日<之>雨, 信川·松禾·白川·金川等四邑, 得二犁, 海州·康翎·延安·長淵·殷栗·文化·載寧·鳳山·平山·新溪等十邑, 得一犁, 襄津·兔山,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月二十二日申時, 又爲始雨, 或霏或灑, 二十三日丑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五分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18일의 비로 안악 등 15개 고을의 우택 경위와 이번 달 21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1치 4푼인 연유는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18일의 비로 신천·장연·송화·풍천·황주·토산 등 6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21일의 비로 신천·송화·배천·금천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해주·강령·연안·장연·은율·문화·재령·봉산·평산·신계 등 10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웅진·토산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2일 신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3일 축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5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2. 1899년(광무 3) 5월 25일(양력 7월 2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70d~171a)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71b~72a)

今五月二十一日各邑雨澤形止及今月二十三日, 臣營下得雨五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二十一日之雨, 安岳·豐川·遂安等三邑, 得一犁, 瑞興得二鋤, 長連·黃州·谷山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二十三日之雨, 襄津·長淵·信川·文化·安岳·載寧·平山等七邑, 得一犁, 新溪·冤山, 得二鋤, 海州·長連·鳳山等三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秋麴方張刈取, 春麴·小麥次第向熟, 早黍·粟三耘伊始, 晚黍·粟·唐稷過半再耘, 早稻·木綿間間再耘, 晚稻初耘垂畢, 秧苗幾盡移插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間或刈取, 春麴·小麥今始向熟, 早黍·粟再耘垂畢,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再耘伊始, 早稻·木綿幾皆初耘, 晚稻間或入鋤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嗣後形止, 更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21일 각 고을의 우택 경위 및 이번 달 23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5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21일의 비로 안악·풍천·수안 등 3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서흥은 2서가 내렸고, 장령·황주·곡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23일의 비로 웅진·장연·신천·문화·재령·평산·안악 등 7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신계·토산은 2서가 내렸고, 해주·장령·봉산 등 3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령·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베어 거두고 있고, 봄보리·봄밀은 차례로 익어가고, 올기장·올조는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절반 이상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올벼·목화는 간간이 두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모는 거의 다 옮겨 심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간혹 베어 거두고, 봄보리·봄밀은 지금 익어가기 시작했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울며·목화는 거의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간혹 김매기를 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23. 1899년(광무 3) 5월 27일(양력 7월 4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71a~171b)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72a~72b)

今月二十三日之雨, 襄津等十二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金川·遂安川渠漲流, 康翎·瑞興, 得二犁, 白川得一犁, 松禾·殷栗, 得二鋤是如是白乎旆. 臣營下今月二十五日亥時量, 又爲始雨, 或霏或灑, 二十六日戌時量乃止, 測雨器水深爲四寸, 而陰雲四低, 雨意尙濃, 方收之麴, 向熟之麥, 爲害不少, 民事悶然是白乎旆, 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달 23일의 비로 웅진 등 12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금천·수안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강령·서흥은 2려가 내렸고, 배천은 1려가 내렸고, 송화·은율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25일 해시쯤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6일 술시쯤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4치였는데, 먹구름이 사방에 깔려 비올 조짐이 아직도 짙으니 막 거두는 보리나 익어가는 보리가 입는 손해는 적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24. 1899년(광무 3) 5월 30일(양력 7월 7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73d~174a)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76b~77a)

今五月二十六日，臣營下得雨四寸之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文化·長連·金川·載寧·黃州·瑞興·新溪等八邑，大小川渠俱爲漲滿，康翎·襄津·松禾·信川·殷栗·延安·白川等七邑，得二犁，豐川·鳳山，得一犁是如。牒呈是白有知乎，餘外各邑之得雨多寡，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5월 26일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문화·장려·금천·재령·황주·서흥·신계 등 8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모두 불어나 가득 찼고, 강령·웅진·송화·신천·은율·연안·배천 등 7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풍천·봉산은 1려가 내렸다고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 고을에 내린 비의 양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5. 1899년(광무 3) 6월 2일(양력 7월 9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74a~174a)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77a~77a)

去五月二十六日之雨, 海州等十七邑雨澤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安岳·平山, 川渠漲滿, 長淵·兔山·遂安·谷山<等四邑>, 得一犁是如是白乎旆. 臣營下去五月三十日寅時始雨, 或霏灑或暴霖, 今六月初二日辰時至, 測雨器水深爲九寸二分, 而重雲晝晦, 霽意漠然是白如乎, 一雨跨朔, 穀不見暘, 牟麥尙此栖畝, 而生熟卒痒, 黍·粟非不被土, 而根植併墊, 旱田則耘役旣愆, 水畚則圩汰相續, 言念民事, 殊極可悶, 列邑形止, 待其報來, 隨即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5월 26일의 비로 해주 등 17개 고을의 우택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안악·평산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장연·토산·수안·곡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은 지난 5월 30일 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리다가 더러 갑자기 주룩주룩 쏟아지더니 이번 6월 초2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9치 2푼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구름으로 대낮에도 캄캄하며 개일 조짐이 아득합니다. 한번 시작된 비가 한 달을 넘으니 곡식은 별을 보지 못하고, 보리는 아직 이렇게 고랑에서 나서 익고 끝내는 망쳤으며, 기장·조는 흙에 덮이지 않은 것은 아닌데 뿌리 박은 것은 모두 잠겼고, 가문 받은 김매기가 이미 늦었고, 무논은 독이 줄줄이 무너지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특별히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곧바로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26. 1899년(광무 3) 6월 3일(양력 7월 10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74a~174b) /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77a~77b)

臣營下今六月初二日辰時至, 得雨九寸二分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伊時以後, 或霏或灑, 至初三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又爲二寸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2일 진시까지 내린 비가 9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이후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3일 진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7. 1899년(광무 3) 6월 6일(양력 7월 1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74c~175a)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77b~78b)

臣營下今六月初三日至, 雨水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一二日之雨, 海州·康翎·甕津·延安·白川·金川·平山·瑞興·鳳山·長淵·松禾等十一邑, 大小川渠無不漲溢, 傍川田畝率多汰落是如爲白乎旆. 豐川段, 邑底民家數百戶, 舉皆沈塌, 垆淤多有潰決處, 載寧段, 左里·右里·城垣·栗串·清水里等五坊垆築, 在在衝決, 波潦汎濫, 安岳·長連·信川·文化·黃州等五邑, 堰畚·民戶一般潰壓, 竝待水退, 詳細摘奸更報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春牟·小麥方當收穫, 而久被潦霖, 披靡腐傷, 早晚黍·粟及唐稷, 三耘雖曰伊始, 而田疇泥濘, 鋤役差遲, 早稻幾皆再耘, 晚稻間或再耘, 秧苗之早移者, 方張向青, 晚移者爲水搖盪, 未盡着根, 而間多覆沙, 木綿今始再耘, 而淒風霪雨, 莖葉蹲縮, 根耕段, 雨[兩]麥尙今未穫, 則豆·太·木麥之耕播, 或有失時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春牟小麥及其向熟, 仍爲成霖, 實多腐傷, 早黍·粟再耘已畢, 晚黍·粟·唐稷今方再耘, 而傍川低汚之地, 自多沈墊之患, 早稻方張再耘, 晚稻已盡初耘, 秧苗之晚移者, 汰覆瀾齧, 着根差遲, 木綿間或再耘, 而莖葉瘦縮, 豆·太·木麥, 以牟麥之未刈, 根耕自致晚時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潦水, 毋論沿峽, 到底暴漲, 川反埋沙, 無邑不然, 田畝各穀太半受損, 而就其中, 牟麥刈取失時, 穗穎腐傷, 目今民事, 誠極悶然是白乎旆, 豐川等七邑潰決頽壓處, 今方分遣裨校, 被災淺深, 待其摘奸回告,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3일까지의 빗물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웅진·연안·배천·금천·평산·서흥·봉산·장연·송화 등 11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흘렀고 시냇가의 논밭은 사태로 떨어져 나간 곳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풍천의 경우 고을의 낮은 백성 집 수백 가구가 대부분 물에 잠겨 무너지고, 독과 보는 터진 곳이 많으며, 재령의 경우 좌리·우리·성원·율곡·청수리 등 5개 방의 독이 곳곳에서 터져 큰 물결이 범람하였고, 안악·장련·신천·문화·황주 등 5개 고을의 독·논·백성 집이 일체로 터지고 무너졌으며, 모두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상세히 캐내 다시 보고하겠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린·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막 수확해야 마땅한데, 오랫동안 장마를 만나 쓰러져 상하거나 썩었고, 올기장·올조와 늦기장·늦조 및 수수는 세벌 김매기를 비록 시작했다고 하지만 밭이 진흙탕이어서 김매기가 조금 지체되고, 올벼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고, 모 중 일찍 옮겨 심은 것은 한창 푸르러지고 있고, 늦게 옮겨 심은 것은 물결에 흔들려 뿌리를 다 내리지 못했는데 그사이에 사태로 뒤덮인 것이 많고, 목화는 지금 두벌 김매기를 시작했는데 서늘한 바람과 굿은비로 줄기와 잎이 오그라들었고, 그루갈이의 경우 보리와 밀을 아직도 수확하지 못하여 콩·팥·메밀은 땅을 갈아 씨앗 뿌리는 것은 더러 시기를 놓쳤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익어가기에 이르렀는데 이내 장마가 저서 썩은 열매가 많고, 올기장·올조는 두벌 김매기를 이미 마쳤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두벌 김매기를 하는데 시냇가의 낮은 지역은 자연히 물에 잠길 근심이 많고, 올벼는 한창 두벌 김매기를 하고 있고, 늦벼는 이미 다 초벌 김매기를 하였는데 늦게 옮겨 심은 모는 사태로 뒤덮이고 물결에 뜬겨 뿌리 내림이 조금 지체되고, 목화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는데 줄기와 잎이 시들거나 오그라들었고, 콩·팥·메밀은 보리를 베지 못함으로써 그루갈이는 자연히 시기가 늦어진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장맛물은 물가나 산골짜기를 따질 것 없이 곳곳에서 갑자기 불어나 시내는 도리어 모래로 메워졌는데 그렇지 않은 고을이 없으며, 논밭의 각종 곡식은 대부분 손상되었고, 그중 보리와 밀을 베어 거두는 시기를 놓쳐 이삭이 썩었으니, 눈앞에 닥친 백성들 사정은 정말로 그지없이 걱정스럽습니다. 풍천 등 7개 고을의 터진 독과 무너진 집은 지금 막 비교를 나눠서 보내 피해 정도를 캐내 돌아와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될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8. 1899년(광무 3) 6월 7일(양력 7월 14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75a~175a)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78b~79a)

道內農形及列邑雨水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臣營下今六月初六日卯時，又爲始雨，或霏或灑，初七日寅時乃止，測雨器水深爲二寸三分是白乎旆，連接各邑所報，則今月初一二日之雨，殷栗暴霏汎濫，堤堰潰決，兔山·新溪·遂安·谷山等四邑，大小川渠比前倍漲，傍川田畝間多覆沙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舊潦未退，新漲繼集，各穀消融，節候漸愆，言念民事，尤極悶然是白乎旆，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여러 고을의 빗물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6일 묘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초7일 인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3푼이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2일의 비로 은율은 갑자기 주룩주룩 내려 범람하고 독과 독이 터졌고, 토산·신계·수안·곡산 등 4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이전에 비해 곱절이나 불어났고, 시냇가 논밭은 그사이에 사태로 뒤덮인 곳이 많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전에 고인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새로 불어나 계속해서 모이니 각종 곡식은 녹아버리고 절기는 점점 늦어지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지없이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29. 1899년(광무 3) 6월 10일(양력 7월 17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75b~175c) /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79b~80a)

道內各邑雨水及臣營下今六月初六日得雨二寸三分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一二日之雨, 鳳山段, 今番漲水, 比前過濫, 地黃·楚邱兩坊, 民家或漂或頽, 瑞興段, 中部坊民戶亦多頽壓, 幾戶被災, 竝待摘奸報來是如爲白乎旆, 今月初六日之雨, 康翎川渠漲滿, 海州·延安·信川·松禾·鳳山·豐川等六邑, 得二犁, 載寧·白川·長淵·長連等四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六月初八日未時量, 穽風大作, 雨雹交下, 風雹則幸旋止, 雨勢則亥時量乃止, 測雨器水深又爲二寸三分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其報來是白遣, 瑞興·鳳山人家漂頽, 尤爲矜慘乙仍于, 今方分遣裨校, 被災淺深, 亦待摘奸回告, 竝只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각 고을의 빗물 및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6일에 내린 비가 2치 3푼인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1·2일의 비로 봉산은 이번에 불어난 물이 이전에 비해 지나치게 넘쳐, 지황·초구 2개 방은 백성 집이 더러는 떠내려가고 더러는 무너졌고, 서흥은 중부방의 백성 가구 또한 무너진 집이 많은데, 몇 가구가 재해를 입었는지는 캐낸 보고가 모두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며, 이번 달 초6일의 비로강령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가득 찼고, 해주·연안·신천·송화·봉산·풍천 등 6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재령·배천·장연·장련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연유를 보고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초8일 미시쯤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우박이 어지러이 내렸는데, 바람과 우박은 다행히 곧바로 그쳤으나 비의 형세는 해시쯤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또 2치 3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서흥·봉산의 사람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은 더욱 가엾고 참혹하므로 지금 막 비교를 나눠서 보내 피해 정도를 캐내 돌아와 보고하기를 기다려 모두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0. 1899년(광무 3) 6월 13일(양력 7월 20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76a~185a)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80b~92a)

今六月初六日之雨, 康翎等十一邑雨水緣由及臣營下今月初八日風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今月初六日之雨, 襄津·文化·金川·瑞興·龜山·遂安·谷山等七邑, 川渠漲溢, 殷栗·安岳·黃州·平山·新溪等五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今月初八日之雨, 海州·康翎·襄津·鳳山等四邑, 得二犁, 文化·長淵·殷栗·白川等四邑, 得一犁是如爲白乎旆, 續接信川·載寧·長連·黃州·瑞興·鳳山·新溪等七邑, 所報及摘奸編裨回告是白乎則, 今六月初一二日之雨中, 信川郡段, 東部坊, 民畜十一石落. 森垆, 民畜四十三石落. 新垆, 民畜二十五石落. 龍頭垆, 於義宮畜四十石落, 民畜四十石落, 民田二十日耕. 加山左坊蓮荷垆, 景祐宮畜十三石落, 民畜二十七石落, 民田二十日耕. 加山右坊趙垆, 於義宮畜四石落, 民畜十石落, 民田十日耕. 裴垆, 於義宮畜十五石落, 民畜三十石落, 民田十五日耕. 馬陳垆, 景祐宮畜四十石落, 民田十日耕. 小馬陳垆, 於義宮畜八石落. 上新垆, 民畜十五石落, 民田十五日耕. 下新垆, 於義宮畜二十石落. 末垆, 民畜五石落. 魚蘆坊, 壽進宮畜四十石落. 寧嬪房上垆, 畜五十石落, 於義宮畜一百八十八石落. 寧嬪房下垆, 畜四十五石落, 宜嬪宮畜三十五石落, 麟坪大君房畜五十石落, 淑媛房畜二十三石落, 景祐宮畜四十石落, 慶壽宮畜七石落, 官[宮]屯畜十一石落, 民畜五百二十六石落. 聲月坊潮頭垆, 明溫宮畜二十三石落. 東串垆, 明溫宮畜十六石落. 黃雲垆, 內需司屯畜五十石落. 青培垆, 民畜二石落. 耳畜垆, 民畜五石十斗落. 再逸垆, 民畜三石落. 加串坊, 樂善宮畜八十石落, 民畜三十石落. 後垆, 華城屯畜二十五石落. 雙垆坪, 民畜七石落. 先達垆, 民畜一石十斗落. 下新垆, 民畜八石落, 於義宮畜二百石落, 華城屯畜一百石落, 龍洞宮畜九十五石落, 華城軍器屯畜六石落, 民畜六十石落. 林橋梁垆, 民畜二石落. 柯長垆, 民畜三石落. 張哥垆, 民畜八石落. 桃花垆, 民畜二十石落. 月川坊耳機垆, 民畜三石四斗落, 民田九日耕. 牛串垆, 內需司屯畜八石落. 合宮畜一千三十二石落, 屯畜二百石落, 民畜八百八十五石四斗落, 竝被潰決, 民田九十九日耕庫亦爲沈墊是遣, 陵洞坊, 民家全賴爲四戶, 加山坊, 民家全賴爲一戶, 魚蘆坊, 民家漂流爲一戶, 全賴爲十二戶, 半賴爲十二戶, 加串坊, 民家全賴爲四十一戶, 半賴爲十六戶是如爲白乎旆, 載寧郡段, 左里坊末垆, 民畜一石落. 汗垆, 民畜十七石落. 右里坊牛山垆, 景祐宮畜十六石落, 民畜三十石落. 營垆, 民畜二十五石落. 襄城垆,



景祐宮畚七石落，城垣坊，汙洞民畚五石落，小洞，民畚五石落，林洞，民畚九石落，梅坪洞，景祐宮畚八石落，民畚十六石落，內野坪，民畚二百石落，窟山洞，於義宮畚三十五石落，民畚十七石落，瑟項洞，民畚一百十石落，上栗坊漁坪，明禮宮畚三十三石落，淑善宮畚二十石落，世昌坪，民畚一百六十石落，以明洞，民畚四百十石落，刷洞，慶安宮畚九十二石落，內需司畚五十八石落，海倉坪，竹洞宮畚十七石九斗落，福溫宮畚十七石落，民畚三十五石落，來臨所，慶安宮畚六十八石落，民畚三十石落，三支江坊水寨坪，德溫宮畚二石七斗落，明溫宮畚一石六斗落，民畚九石落，中橋洞，景祐宮畚二十石落，造鶴洞，民畚五十石落，橋項坪，明溫宮畚十石落，民畚四石落，清水里坊水驛洞，民畚十三石落，合宮畚三百四十六石二斗落，內需司畚五十八石落，民畚一千一百四十六石落，俱被潰決，而地形低陷，宿漲尚今停滯是遣，右里坊，民家額壓爲六十戶，垣城坊，人物壓死爲一人，民家額壓爲二十戶，半額爲二十六戶，栗串坊，民家額壓爲三十四戶，半額爲十二戶，三支江坊，民家額壓爲十四戶，半額爲八戶，清水里坊，民家額壓爲三戶是如爲〈白〉乎旆，長連縣段，內坊新付坪，民畚五十三石十四斗落，海堰，民畚三十五石三斗落，民田四日耕，東面坊花田坪，壽進宮畚七石十斗落，民畚一百七十四石十七斗落，民田四日耕，一道坊古縣川洞，民畚五石一斗落，民田十五日耕，道里坊月乃坪，景祐宮畚十石十斗落，民畚二十五石十七斗落，民田六日耕，合宮畚十八石落，民畚三百十石十一斗落，民田三十三日耕，非徒潰決，在在覆沙，田種畚稼，無不愛〔受〕害是如爲白乎旆，黃州牧段，齊安坊，民家額壓爲二十三戶，太古村，民家額壓爲十二戶，外中部，民家額壓爲六戶，外南部，民家額壓爲三十二戶，南川里，民家額壓爲三戶，綠沙里，民家額壓爲十三戶是如爲白乎旆，瑞興府段，中部坊，民家全額爲十戶，半額爲二十戶，道下坊，民家全額爲三十五戶，半額爲三十四戶是如爲白乎旆，鳳山郡段，地黃坊，民家漂流爲一戶，全額爲十六戶，楚邱坊，民家全額爲五戶是如爲白乎旆，新溪縣段，民家漂流爲八戶，全額爲一戶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今此水潦之濫，挽近罕有，毋論峽沿，均被其患，而只以此七邑災形言之，民家漂流爲十戶，額壓爲三百七十五戶，半額爲一百二十八戶，人物壓死爲一名，洞決畚沈爲三千九百九十五石十七斗落，平田水沈爲一百三十二日耕是白乎所，信川·載寧，地勢污下，從前受害，比他邑較緊是白乎矣，未有若今番之最酷是白如乎，漂額戶段，分遣徧裨，一邊摘奸，一邊慰撫，自臣營爲先逐戶，別加顧助，而借材助丁，結構入處之方，另飭各該地方官是白遣，堰洞段，小小潰決之苟可以捍防者，方張不住改築，度有回蘇之望是白乎矣，至於積水停滯，多日不退處，見沈之禾穀·莖葉已皆腐傷，便成全棄是白如乎，七邑中信川一邑，偏遭衝盪之患，目下傳

聞, 尤極慘然是白乎跡, 壓死人及漂賴戶, 原恤典, 以各該邑所在常賑穀, 依例題給後, 役·姓名家舍間數, 開錄于後爲白去乎. 令該廳依例會減爲白乎跡, 半〈賴〉戶段, 與全賴戶有異, 容可修葺而入處, 故原恤典, 不爲舉論爲白乎矣, 顧恤奠接之節, 一體關飭爲白乎跡, 急雨方漲之初, 道里幾乎不通, 營邑間摘奸往來, 自費多日, 致此登聞之稽滯, 不勝惶恐.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後[이하 생략]

이번 6월 초6일의 비로 강령 등 11개 고을의 빗물 연유 및 저의 감영의 이번 달 초8일의 비바람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달 초6일의 비로 웅진·문화·금천·서흥·토산·수안·곡산 등 7개 고을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은율·안악·황주·평산·신계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하며, 이번 달 초8일의 비로 해주·강령·웅진·봉산 등 4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문화·장연·은율·배천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천·재령·장려·황주·서흥·봉산·신계 등 7개 고을의 보고 및 비서가 캐내서 돌아와 한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6월 초1·2일의 비에 신천군의 경우, 동부방은 백성 논 11섬지기, 삼동은 백성 논 43섬지기, 신동은 백성 논 25섬지기, 용두동은 어의궁 논 40섬지기·백성 논 40섬지기·백성 밭 20일 같이, 가산좌방 연하동은 경우궁 논 13섬지기·백성 논 27섬지기·백성 밭 20일 같이, 가산우방 조동은 어의궁 논 4섬지기·백성 논 10섬지기·백성 밭 10일 같이, 배동은 어의궁 논 15섬지기·백성 논 30섬지기·백성 밭 15일 같이, 마진동은 경우궁 논 40섬지기·백성 밭 10일 같이, 소마진동은 어의궁 논 8섬지기, 상신동은 백성 논 15섬지기·백성 밭 15일 같이, 하신동은 어의궁 논 20섬지기, 말동은 백성 논 5섬지기, 어로방은 수진궁 논 40섬지기·영빈방 상동 논 50섬지기·어의궁 논 188섬지기·영빈방 하동 논 45섬지기·의빈궁 논 35섬지기·인평대군방 논 50섬지기·숙원방 논 23섬지기·경우궁 논 40섬지기·경수궁 논 7섬지기·궁둔 논 11섬지기·백성 논 526섬지기, 성월방 조두동은 명온궁 논 23섬지기, 동곶동은 명온궁 논 16섬지기, 황운동은 내수사둔 논 50섬지기, 청배동은 백성 논 2섬지기, 이답동은 백성 논 5섬 10말지기, 재일동은 백성 논 3섬지기, 가곶방은 낙선궁 논 80섬지기·백성 논 30섬지기, 후동은 화성둔 논 2섬지기, 쌍동평은 백성 논 7섬지기, 선달동은 백성 논

1섬 10말지기, 하신동은 백성 논 8섬지기·어의궁 논 200섬지기·화성둔 논 100섬지기·용동궁 논 95섬지기·화성궁기둔 논 6섬지기·백성 논 60섬지기, 임교량동은 백성 논 2섬지기, 가장동은 백성 논 3섬지기, 장가동은 백성 논 8섬지기, 도화동은 백성 논 20섬지기, 월천방 이기동은 백성 논 3섬 4말지기·백성 밭 9일 같이, 우곶동은 내수사둔 논 8섬지기·합궁 논 1,032섬지기·둔 논 200섬지기·백성 논 885섬 4말지기·아올러 독이 터져 백성 밭 99일 같이 또한 물에 잠겼고, 능동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 가산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 어로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1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12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2가구, 가곶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1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6가구라고 합니다.

채령군의 경우, 좌리방 말동은 백성 논 1섬지기, 한동은 백성 논 17섬지기, 우리방 우산동은 경우궁 논 16섬지기·백성 논 30섬지기, 영동은 백성 논 25섬지기, 웅성동은 경우궁 논 7섬지기, 성원방 한동은 백성 논 섬지기, 소동은 백성 논 5섬지기, 임동은 백성 논 9섬지기, 매평동은 경우궁 논 8섬지기·백성 논 8섬지기, 내야평은 백성 논 200섬지기, 굴산동은 어의궁 논 35섬지기·백성 논 17섬지기, 슬항동은 백성 논 110섬지기, 상률방 어평은 명례궁 논 33섬지기·숙선궁 논 20섬지기, 세창평은 백성 논 160섬지기, 이명동은 백성 논 410섬지기, 쇠동은 경안궁 논 92섬지기·내수사 논 58섬지기, 해창평은 죽동궁 논 17섬 9말지기·복온궁 논 17섬지기·백성 논 35섬지기, 내임소는 경안궁 논 68섬지기·백성 논 30섬지기, 삼지강방 수채평은 덕온궁 논 2섬 7말지기·명온궁 논 1섬 6말지기·백성 논 9섬지기九, 중교동은 경우궁 논 20섬지기, 조학동은 백성 논 50섬지기, 교항평은 명온궁 논 10섬지기·백성 논 4섬지기, 청수리방 수역동은 백성 논 13섬지기, 합쳐서 궁 논 346섬 2말지기·내수사 논 58섬지기·백성 논 1,146섬지기가 모두 독이 터졌는데, 지형이 낮거나 움푹한 곳은 이전에 불어난 물이 아직도 고여 있으며, 우리방은 백성 집 중 무너진 것이 60가구, 원성방은 깔려 죽은 사람이 1명·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0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6가구, 율곶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4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2가구, 삼지강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4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8가구, 청수리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라고 하고, 장련현의 경우, 내방 신부평은 백성 논 53섬 14말지기, 해언은 백성 논 35섬 3말지기·백성 밭 4일 같이, 동면방 화전평은 수진궁 논 7섬 10말지기·백성 논 174섬 17말지기·백성 밭 4일 같이, 일도방 고현천동,

백성 논 5섬 1말지기·백성 밭 15일 같이, 도리방 월내평은 경우궁 논 10섬 10말지기·백성 논 25섬 17말지기·백성 밭 6일 같이, 합쳐서 궁 논 18섬지기·백성 논 310섬 11말지기·백성 밭 33일 같이인데, 독이 터졌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사태로 뒤덮이고 논밭의 각종 곡식은 재해를 입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황주목의 경우, 제안방은 백성 집 중 무너진 것이 23가구, 태고촌은 백성 집 중 무너진 것이 12가구, 외중부는 백성 집 중 무너진 것이 6가구, 외남부는 백성 집 중 무너진 것이 32가구, 남천리는 백성 집 중 무너진 것이 3가구, 녹사리는 백성 집 중 무너진 것이 13가구라고 하고, 서흥부의 경우, 중부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0가구, 도하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5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4가구라고 하고, 봉산군의 경우, 지황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1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16가구, 초구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가구라고 하며, 신계현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8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라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빗물은 최근에 드물게 넘쳐 산골짜기나 물가를 따질 것 없이 모두 재해를 입었는데, 단지 이 7개 고을의 재해 상황으로만 말하자면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10가구, 무너진 것이 375가구, 절반 무너진 것이 128가구, 깔려 죽은 사람이 1명, 독이 터져 잠긴 논이 3,995섬 17말지기, 물에 잠긴 평지의 밭이 132일 같이입니다. 신천·재령은 지세가 낮아서 이전부터 피해가 다른 고을에 비해 비교적 심했었지만, 이번처럼 혹독한 적은 없었습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의 경우 비서를 나눠서 보내 한편으로는 캐내고 한편으로는 위로하며, 저의 감영에서 우선 집집마다 별도로 돌보며 도와주고 재목을 빌려주고 일꾼을 도와 집을 지어 들어가는 방법을 각각 해당 지방관에게 별도로 지시하였습니다. 독의 경우, 단지 아주 조금 터져서 막을 수 있는 것은 한창 내버려 두고 고쳐 쌓는다면 어느 정도 되살아날 가망이 있습니다. 쌓이고 고인 물의 경우 여러 날 빠지지 않는 곳은 물에 잠긴 벼는 줄기와 잎이 이미 다 썩어버려 곧 전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7개 고을 중 신천 1개 고을은 물에 휩쓸리는 재해를 매우 심하게 당하여 당장 전해 듣기에 더욱 그지없이 참혹합니다. 깔려 죽은 사람 및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은 기본 구호를 각각 해당 고을에 있는 상진곡을 규정대로 결정문을 준 뒤 직역·성명·집 칸수를 아래에 죽 기록하였으니, 해당 진휼청에 지시하여 규정대로 회감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반 무너진 집의 경우, 전부 무너진 집과 차이가 있어 수리하여 들어갈

수 있으므로 기본 구호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는 사항은 일체로 공문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가 막 불어날 초기에 도로와 마을이 거의 통하지 않아 감영과 고을을 캐내려고 오가는 사이에 자연히 여러 날이 걸려 이렇게 아되는 일을 지체하게 되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뒤[이하 생략]

### 0531. 1899년(광무 3) 6월 16일(양력 7월 2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85b~186d)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92b~94b)

道內信川等七邑民家類壓，田畚潰決形止，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今六月初二日之雨，文化縣段，垆潰之潰決，田畚之埋覆，無處無之，而就其中，葺川葛山兩坊，則垆潰潰決，殆近二百石落，而漲水旋退，傷稼不至大段，今方改築是如爲白乎跡，谷山府段，伊日之雨，山水衝盪，野田·谷畚亦多汰覆，而覓美坊民家漂流爲六戶，類壓爲三戶。西村坊，民家漂流爲五戶。花村坊，民家漂流爲五戶，類壓爲二戶。上圖坊，人物渰死爲二名，而一名拯出，一名姑未拯得，民家漂流爲五戶。鳳鳴坊，人物壓死爲二名，而民家合漂流爲二十一戶，類壓爲五戶。渰壓死爲四名是如爲白乎跡。農形段，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春粳·小麥雖已刈穫，舉皆腐傷，未免全棄，早黍·粟方張胚胎，間或發穗，晚黍·粟·唐稷三耘垂畢，而低汚之田，消融率多，早稻今方三耘，晚稻幾盡再耘，秧苗亦皆着根，木綿過半三耘，豆·太·木麥已盡播種，而傍川低下處，汰沙沈曳之患，在在皆然，信川郡段，破垆諸處，水尚未退，禾穀舉有沈沒腐傷之患，長連縣段，潰垆各處，開霽數日，漲水漸退，方張改築，庶有蘇醒之望是如爲白乎跡，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甬山·金川·平山等十邑，春粳·小麥今雖刈取，幾皆腐傷，食實無多，早黍·粟間或胚胎，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張三耘，而消融萎枯，無處不然，早稻幾盡再耘，晚稻間或再耘，秧苗舉皆着根，木綿方始三耘，豆·太·木麥今方耕播，而川沙之外亦多茁茂，載寧郡段，垆堰潰決處，潦水尚未快退，禾稻沈墊，將有全棄之慮是如。爲等如，牒呈爲白置有亦。毋論沿峽，備經積澇，田種之消融，畚稼之埋沈，幾乎無邑不然，一路穡事，誠切憂悶是白遣，谷山府民戶漂類人物渰壓死，俱極矜慘，自臣營，別加顧助，埋瘞之節，結構之方，措辭申飭，而未拯屍段置，期於拯得報來之意，亦爲題飭爲白遣，漂類戶及已拯得屍身及壓死人段，原恤典，以該邑所在常賑穀，依例題給後，役·姓名·家舍間數，開錄于後爲白去乎。令該廳依例會減爲白乎跡，近日曝陽調和，各穀之不甚受傷處段，庶有回蘇之望是白如乎，嗣後形止，更待報來，連續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後[이하 생략]

황해도 내 신천 등 7개 고을의 백성 집이 무너지고 논밭의 두둑이 터진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이번 6월 초2일의 비로 문화현의 경우 독과 보는 터지고 논밭은 묻히지 않은 곳이 없는데, 그 중 용천·갈산 2개 방은 독과 보가 터진 것이 거의 200섬지기에 가깝지만, 불어난 물이 곧바로 빠져 상한 벼가 대단하기에 이르는 않았으며 독은 금방 고쳐 쌓았다고 합니다. 곡산부의 경우, 그날의 비로 산골 물이 들이치고 휩쓸어 들판과 골짜기의 논밭 또한 사태로 많이 뒤덮였는데, 먹미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6가구·무너진 것이 3가구, 서촌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5가구, 화촌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5가구·무너진 것이 2가구, 상도방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2명 중 1명은 건져냈으나 1명은 아직 건지지 못했으며,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5가구, 봉명방은 깔려 죽은 사람 2명,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5가구·무너진 것이 2가구로, 합하여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21가구·무너진 것이 5가구이며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이 4명이라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비록 이미 베어 수확하였지만 대부분 썩거나 손상돼서 전부 포기하는 데서 벗어날 수 없고, 올기장·올조는 한창 이삭을 배고 있는데 간혹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 및 수수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는데 낮은 지대의 밭은 녹아버린 비율이 높고, 올벼는 지금 막 세벌 김매기를 하고, 늦벼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모내기한 모 또한 다 뿌리를 내렸고, 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이미 다 씨앗을 뿌렸는데 시냇가의 낮은 곳은 사태로 뒤덮이거나 물에 잠길 근심이 곳곳에서 다 그러하며, 신천의 경우 여러 곳에서 독이 파괴되고 물이 아직 빠지지 않아 벼는 거의 물에 잠기거나 썩을 근심이 있고, 장련현의 경우 각 곳에서 독이 터졌는데 날이 개인 지 며칠 됐고 불어난 물이 점점 빠져 한창 고쳐 쌓고 있으니 거의 되살아날 가망이 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봄보리·봄밀은 지금 비록 베어 거뭇지만 거의 다 썩거나 손상돼서 먹을 수 있는 알맹이가 많이 없고, 올기장·올조는 간혹 이삭을 배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한창 세벌 김매기를 하고 있는데 녹아버리거나 시들고 마르지 않은 곳이 없고, 올벼는 거의 다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간혹 두벌 김매기를 하는데 모내기한 모는 대부분 뿌리를 내렸고, 목화는 막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콩·팥·메밀은 지금 막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데 시냇가 모래밭 외에는 또한 싹이 무성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고, 재령의 경우는 독이 터진 곳에 불어난 물이 아직 깨끗이 빠지지 않아 벼가 물에 잠겨 장차 전부 폐기할 염려가 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물가나 산골짜기를 따질 것 없이 갖가지로 쌓인 큰물을 꺾어 밭곡식은 녹아버리고 논벼는 묻히거나 잠겼는데 그렇지 않은 고을이 거의 없으니, 한결같이 농사는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곡산부의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백성 가구와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은 모두 그지없이 불쌍하고 참혹하니, 저의 감영에서 별도로 돌보아 도와서 매장 사항과 집을 짓는 방법을 문안으로 만들어 단단히 지시하고, 건지지 못한 시체의 경우 기어이 건졌다는 보고가 오도록 하라는 뜻으로 또한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 및 이미 건진 시체 및 깔려 죽은 사람의 경우 기본 구호를 해당 고을에 있는 상진곡을 규정대로 결정문을 준 뒤 직역·성명·집의 칸수를 뒤에 죽 기록하였습니다. 해당 진휼청에 지시하여 규정대로 회감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별이 조화로워 입은 피해가 심하지 않은 곳의 각종 곡식은 거의 되살아날 가망이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연달아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뒤[이하 생략]



0532. 1899년(광무 3) 6월 22일(양력 7월 29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88a~188a)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96a~96a)

臣營下今六月二十一日午時始雨，或霏或灑，二十二日辰時至，測雨器水深爲三寸七分是白如  
乎，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1일 오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22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3치 7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  
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3. 1899년(광무 3) 6월 24일(양력 7월 31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88a~188b)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96a~96b)

臣營下今六月二十二日辰時至，測雨器水深爲三寸七分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伊日以後，連爲陰翳是白如可，今月二十三日卯時，又爲始雨，一直霑灑，二十四日丑時至，測雨器水深爲八寸二分是白如乎，今此一霽，得於稍<旱>之餘，始若可幸，終焉太濫，田種畚稼，又不無相瀆汰覆之慮，言念民事，愈往悶然是白乎旆，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2일 진시까지 측우기 수심이 3치 7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연이어 짙은 구름이 끼었다가, 이번 달 23일 묘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줄곧 주룩주룩 내리거나 뿌리다가 24일 축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8치 2푼이었습니다. 이번에 한차례 퍼부은 비는 가뭄 끝에 내려 처음에는 다행스러웠으나 끝에는 크게 넘쳐 논밭의 각종 곡식이 또 줄줄이 더럽혀지고 사태로 뒤덮일 염려가 없지 않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걱정스럽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4. 1899년(광무 3) 6월 26일(양력 8월 2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88b~188c) /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96b~97a)

臣營下今六月二十四日丑時至, 雨水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康翎·甕津·信川·文化·載寧等五邑, 不可以鋤犁論, 而平陸成川, 汚下田畓, 汰落居多, 海州·延安·白川等三邑, 大小川渠無不漲溢, 田畓各穀多有沈墊之患, 待水退更爲馳報計料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甕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發穗, 晚黍·粟·唐稷今方胚胎, 早稻已盡三耘, 晚稻始或三耘, 木綿三耘垂畢, 豆·太·木麥幾皆立苗, 而海州·信川·延安等三邑段, 早晚禾稻, 間多蟲損, 莖葉萎黃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幾盡胚胎, 始或發穗,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間始胚胎, 早稻今始三耘, 晚稻舉皆再耘, 木綿過半三耘, 豆·太·木麥次第立苗, 而載寧郡段, 汚下沈墊處, 方苗之禾稼, 重之有蟲蝕, 多有受損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此康翎等八邑, 雨水雖有淺深之別, 宿水纔退, 新漲旋至, 傍川之地, 汚下之處, 田畓各穀, 又有此汰落沈墊之患, 而加之以海州等四邑, 蟲損爲害, 言念民事, 去益夏悶是白乎旆, 康翎等邑水退後形止及遠邑雨水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6월 24일 축시까지 빗물의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강령·웅진·신천·문화·재령 등 5개 고을은 서·려로 따질 수 없고, 평평한 육지는 시내를 이루고, 낮은 지대 논밭은 사태로 떨어져 나간 곳이 대부분이고, 해주·연안·배천 등 3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은 불어나 넘치지 않은 것이 없고, 논밭의 각종 곡식은 물에 잠길 근심이 많은데,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긴급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이삭을 배고, 올벼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세벌 김매기를 하고, 목화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고, 콩·팥·메밀은 거의 다 싹이 돋았는데, 해주·신

천·연안 등 3개 고을의 경우 올벼·늦벼는 그사이에 벌레 손상이 많아 줄기와 잎이 누렇게 시들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이삭을 뺐는데 비로소 더러 이삭이 패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그사이에 이삭을 배기 시작했고, 올벼는 지금 세벌 김매기를 시작하였고, 늦벼는 대부분 두벌 김매기를 하였고, 목화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싹이 돋는데, 재령군의 경우 낮은 지대로 물에 잠긴 곳은 막 싹이 자라던 벼가 거듭 벌레에게 먹혀 손해가 많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에 강령 등 8개 고을은 빗물이 비록 정도의 구별은 있지만 묵은 물이 빠지자마자 새로 불어난 물이 곧바로 이르렀으니 시냇가 땅이나 낮은 곳은 논밭의 각종 곡식이 또 이렇게 사태로 떨어져 나가거나 물에 잠길 근심이 있으며, 계다가 해주 등 4개 고을은 벌레의 피해가 있으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갈수록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강령 등의 고을은 물이 빠진 뒤의 경위 및 먼 고을의 빗물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5. 1899년(광무 3) 7월 8일(양력 8월 1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195d~196b) /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6b~7b)

去六月二十八日之雨, 海州等九邑川渠漲溢形止, 今七月初三日之雨, 臣營下得雨四寸二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去六月二十八日之雨, 康翎·襄津·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殷栗·黃州·鳳山·金川·新溪·遂安·谷山等十四邑, 大小川渠, 無不漲流. 今六月初三日之雨, 海州·松禾川渠漲溢, 長淵·信川·平山等三邑, 得二犁, 文化·安岳·豐川·延安·鳳山等五邑, 得一犁, 殷栗得二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方張入實, 晚黍·粟·唐稷間或發穗, 而毋論早晚田種, 消灑旣多, 穗穎尖小, 早稻始或胚胎, 晚稻三耘垂畢, 而傍川之地, 舉皆汰覆, 低下之處, 亦多沈墊, 木綿間間開花, 而立種旣稀, 花窠無幾, 豆·太·木麥今方初耘, 而田疇泥濘, 鋤役差遲, 海州·延安蟲蝕, 雖不滋蔓, 尙未寢息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冤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方張發穗, 而包穎零瑣,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今方胚胎, 而未見暘曝, 間多消灑, 早稻已盡三耘, 晚稻過半三耘, 而破垆覆沙已無可論, 而其外低下處亦皆蹲縮, 木綿幾盡三耘, 而莖葉萎損, 花窠絕稀, 豆·太·木麥幾皆立苗, 而久貼泥土, 終未茁茂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毋論沿峽野, 田種各穀, 備經積澇, 無不受損, 而其中木綿最爲消灑, 已判歉荒是白遣. 至於畝穀, 除非汰覆全棄者外, 近得日候之調順, 庶有善就之望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지난 6월 28일의 비로 해주 등 9개 고을의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친 경위와 이번 7월 초3일의 비로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4치 2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의 비로 강령·웅진·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은율·황주·봉산·금천·신계·수안·곡산 등 14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흐르지 않은 곳이 없으며, 이번 6월 초3일의 비로 해주·송화는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쳤고, 장연·신천·평산 등 3개 고을은 2려가 내렸고, 문화·안악·풍천·연안·봉산 등 5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은율은 2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는 간혹 이삭이 패는데, 밭곡식은 올되는 것이건 늦되는 것이건 따질 것 없이 녹아버린 것이 이미 많으며 이삭은 끝이 작고, 올벼는 비로소 더러 이삭을 배고, 늦벼는 세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는데, 냇가 땅은 대부분 사태로 뒤덮였고 낮은 곳은 또한 물에 잠겼으며, 목화는 간간이 꽃이 피는데 서 있는 것이 이미 드물고 꽃방은 얼마 없으며, 콩·팥·메밀은 지금 막 초벌 김매기를 하는데, 밭두둑이 진흙탕이라 김매기가 조금 지체되고, 해주·연안의 경우 벌레가 먹는데 비록 널리 번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치지 않는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이삭이 패는데, 감싼 이삭이 자질구레하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지금 막 이삭을 배는데, 벼를 찌지 못하여 그사이에 녹아버린 것이 많고, 올벼는 이미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고, 늦벼는 절반 이상 세벌 김매기를 하였는데, 독이 부서지거나 사태로 뒤덮인 곳은 이미 따질 것도 없고 그밖에 낮은 곳 또한 다 주저앉거나 오그라들었고, 목화는 거의 다 세벌 김매기를 하였는데, 줄기와 잎이 시들거나 손상됐고 꽃방은 매우 드물며, 콩·팥·메밀은 거의 다 싹이 돋았는데, 오래 진흙이 달라붙어 끝내 싹이 무성하게 자라지 못했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물가나 산골짜기를 따질 것 없이 밭에 뿌린 각종 곡식은 쌓인 큰물을 갖가지로 겪어 손상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중 목화는 가장 많이 녹아버려 이미 흉작으로 판가를 났습니다. 벼의 경우 사태로 뒤덮여 전부 포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요즘 일기가 순조로워 거의 잘 영글 가망이 있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36. 1899년(광무 3) 7월 12일(양력 8월 17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196c~196c) /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8a~8a)

今七月初三日, 海州等十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載寧得二犁, 新溪·遂安得一犁, 康翎·甕津·黃州·兎山等四邑, 得二鋤, 長連·白川·金川·瑞興·谷山等五邑, 得一鋤是如爲白乎旂. 臣營下今月十一日卯時, 始雨, 或霏或灑, 當日戌時至測雨器水深, 爲二寸一分是白如乎, 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초3일에 해주 등 10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재령은 2려가 내렸고, 신계·수안은 1려가 내렸고, 강령·웅진·황주·토산 등 4개 고을은 2서가 내렸고, 장련·배천·금천·서흥·곡산 등 5개 고을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1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37. 1899년(광무 3) 7월 13일(양력 8월 18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201b~201b) /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4b~15a)

今七月十一日, 臣營下得雨二寸一分緣由,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海州·康翎得二犁, 文化得一犁是如爲白乎旆. 臣營下今月十三日丑時量, 始雨, 暴霍又作, 當日申時至, 測雨器水深爲七寸七分, 而密雲四低, 尙此霏灑是白如乎. 今此三朔霪霖, 一直汎濫, 庚炎已過, 秋令轉深, 而一日·二日, 了無開霽之意, 言念穡事, 萬萬憂悶是白乎等以. 依臣營已例, 城門祭不卜日, 今十四日設行於海州牧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11일에 저의 감영에 내린 비가 2치 1푼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은 2려가 내렸고, 문화는 1려가 내렸다고 합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달 13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갑자기 주룩주룩 내리는 일이 또 일어나더니 당일 신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7푼이었으며, 뽕뽕한 구름이 사방에 깔리고 아직도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거나 뿌립니다. 3달 동안의 장마로 줄곧 범람하여 삼복더위가 이미 지나고, 가을철은 도리어 깊어가는 데 하루·이틀 개일 조짐이 없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러우므로 저의 감영 관례에 따라 성문 영제를 날짜를 가리지 않고 이번 14일에 해주목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연유를 긴급 보고합니다.



### 0538. 1899년(광무 3) 7월 16일(양력 8월 21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201d~202b) /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6a~17a)

今七月初九日, 海州等三邑雨雹形止及十三日臣營下雨水七寸七分緣由, 已爲連續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安岳郡段, 初九日午時量, 獐風大作, 雨雹交下, 而雹形大者如拳, 小者如鷄卵, 移時乃止, 大樹折拔, 人屋捲破, 安谷·小串·文山·板橋·遠城·大元·長令·龍淵等八坊, 一時被災, 長爲五十里, 廣爲十里許, 田畝各穀, 無不糜爛摧折, 而摘奸之際, 自致遲滯, 今始牒報是如爲白乎旆. 十三日之雨, 海州·康翎·延安·白川等四邑, 大小川渠, 無不漲溢, 載寧段, 平陸汎濫, 左里·右里·城垣·栗串·三支江等五坊, 前漲未退, 今雨添倍, 四處阻水, 通涉無路, 只爲登高遠望, 民家之頽壓, 人命之淪歿, 垆堰之潰決, 難以遙度. 而其中栗串坊余勿里坪, 兼值海潮之逆漲, 滿坪人家, 墊入水中, 各村居民, 攀木昇屋, 號哭之聲, 浪[狼]藉遠聞. 故多發將吏, 急急招船, 使之拯救, 而禾穀之被災淺深, 待水退隨即摘奸, 馳報計料是如爲白乎旆. 信川段, 伊日之雨, 有倍於向來之雨, 而姑以邑底近野言之, 前後原陸, 一望蕩漾, 川邊人家, 無不沈沒, 所見不勝寒心, 各面被災形止, 待水退摘奸馳報計料是如爲白乎旆. 殷栗段, 伊日, 大雨傾倒, 獐風交作, 江川原陸不辨涯涘, 潰垆頽戶形止, 待水退更報計料是如爲等如. 牒呈爲白乎旆. 臣營下今十六日卯時, 又爲始雨, 或雹或灑, 午時乃止, 測雨器水深爲二寸九分. 而尙無霽意, 故禁祭依禮文連爲設行是白有如乎. 本道今年雨水, 振古罕有, 毋論峽野, 均被其災是白在如中, 信川·載寧等數三邑, 向日潰決之患, 風雹之損, 如彼孔酷, 而今番被災, 又若是偏深, 可謂無災不備, 言念民情, 萬萬憂悶是白如乎. 餘外列邑形止, 待其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7월 초9일 해주 등 3개 고을의 우박 경위 및 13일 저의 감영에 빗물이 7치 7푼인 연유는 이미 연달아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안악군의 경우, 초9일 오시쯤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고 우박이 어지러이 내렸는데, 우박의 형태는 큰 것은 주먹만하고 작은 것은 달걀만했으며 오래지 않아 이내 그쳤으나, 큰 나무가 부러지거나 뽑히고 사람 집은 휘말려 부서졌으며, 안곡·소곳·문산·판교·원성·대원·장령·용연 등 8개 방은 잠깐의 피해가 길이 50리, 너비 10리가량이었으며 논밭의

각종 곡식은 쓰러지거나 꺾이지 않은 것이 없는데, 캐널 즈음에 자연 지체하게 되어 지금 비로소 문서 보고한다고 하며, 13일의 비로 해주·강령·연안·배천 등 4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치지 않은 것이 없고, 재령의 경우 평평한 육지에 범람하여 좌리·우리·성원·울곶·삼지강 등 5개 방은 앞서 불어났다가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 비가 곱절로 더하니 사방이 물로 막혀 통행할 길이 없고 단지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기만 하는데, 백성 집은 무너지고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독과 독은 터졌는데 멀리서 헤아리기 어렵고, 그 중 울곶방 여물리 들은 바닷물이 거슬러 불어나는 일을 함께 당해 들판에 가득한 사람 집이 물속으로 들어가니 각 마을에 사는 백성들이 나무나 지붕으로 올라가서 울부짖는 소리가 낭자하게 멀리까지 들립니다. 그러므로 장교와 아전을 많이 보내 재빠르게 배를 불러 건져 구조하게 하였고, 벼의 피해 정도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곧바로 캐내서 긴급 보고할 계획이라고 하고, 신천의 경우, 그날의 비는 근래의 비보다 곱절로 많았는데, 일단 읍내와 가까운 들판으로 말하자면 앞뒤의 들판은 한눈에 가득 물결이 넘실거리고 시냇가의 사람 집은 잠기지 않은 것이 없으니 보기에 고 보기에 가없고 딱함을 이기지 못하겠으며, 각 면의 피해 경위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내서 긴급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은율의 경우, 그날 큰비가 쏟아지고 사나운 바람이 번갈아 일어나 강과 시내·들판은 한계를 가릴 수 없는데, 터진 독과 무너진 집의 경위는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저의 감영에 이번 16일 묘시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오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9푼이었으며, 아직도 개일 조짐이 없으므로 영제를 예문대로 연이어 시행하겠습니다. 본 황해도는 올해 빗물이 옛날보다 드문 일인데 산골짜기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모두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 신천·재령 등 두세 고을은 지난날 독이 터진 근심에 바람과 우박의 손상이 저처럼 매우 혹독했는데, 이번에 피해가 또 이처럼 매우 심하니 갖추지 않은 재해가 없다고 할 만합니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밖의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39. 1899년(광무 3) 7월 19일(양력 8월 24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202c~203c) /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17a~19b)

道內農形及雨水形止, 已爲連續登聞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鳳山郡段, 今七月初九日申時量, 舍人·萬泉·靈泉·岬山等四坊, 雨雹交下, 移時乃止, 雹形大如鳥卵, 小如鉛丸, 各穀多被傷損, 雨雹所過處, 長爲二十五里, 廣爲五里許是白遣. 十三日, 雨水終晝達夜, 一直暴霍, 積潦之餘, 一倍添漲, 田野到底蕩漾, 民家亦多頽壓, 而道路難通, 待水退更爲摘奸馳報計料是如爲白乎旆. 伊日之雨, 黃州段, 邑底場垵里, 地勢仄下, 川渠汎濫, 城壕之水, 橫決湊合, 以至地形稍高處, 人家墻壁, 亦皆衝決奔流. 時當昏暮, 頓足號哭之狀, 有不忍見, 卽爲曉諭, 相率入城, 使之經夜, 於天明後, 復往看審, 則宿水尙滯, 涯際莫辨, 待水退詳細摘奸馳報計料是如爲白乎旆. 金川段, 邑前大川急漲衝激, 民家頽壓, 爲百餘戶, 時當夜黑, 不能出避, 人命渰死爲九名, 猪灘下流, 汎濫橫流, 助浦民家, 漂沒而永無形跡者爲百餘戶, 其外全頽半頽, 又爲一百五六十戶, 人物渰死爲三口, 而今方摘奸是爲, 消詳馳報計料是如爲白乎旆. 平山段, 峽水暴漲, 邑底民家八十餘戶, 俱爲漂頽, 人物渰死爲六名, 上寶山金巖兩坊漂頽, 亦爲八十餘戶, 而遠外各坊被災形止, 竝爲摘奸更報計料是如爲白乎旆. 長連段, 道里坊砦串村, 居在於薛觀山下, 而猝然汰崩, 十家人命三十四口, 沒入於汰壓之中, 巨巖險石, 便成邱陵, 故急發近洞民戶, 竝力掘出, 則其中十名, 幸爲木石所撐, 雖保縷喘, 似無回甦之望, 其餘壓死者十五名, 皆爲骨碎肉綻, 九名尙未掘得, 而形止爲先馳報是如爲白乎旆. 豐川段, 川渠橫溢, 邑底民家, 無不沈墊, 多被頽壓之患, 各面被災形止, 待快晴, 更爲看審修報計料是如爲白乎旆. 文化段, 邑內南川築垵潰決, 人家漂頽, 殆近二百戶, 而漲水未退, 更爲摘奸詳報計料是如爲白乎旆. 襄津·松禾·殷栗·長淵·安岳·瑞興·新溪·兎山·遂安·谷山等十邑段, 大小川渠, 漲溢汎濫, 道路不得通涉, 民家與田畝被災形止, 竝待水退, 更爲詳報計料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始或向熟, 晚黍·粟·唐稷今方入實, 早稻間或發穗, 晚稻方張胚胎, 木綿雖有間間結窠, 而初不成樣, 豆·太·木麥初耘垂畢, 而霖雨過濫, 田種畚稼, 到底沈墊, 消灑居多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兎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方張入實,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今方發穗, 早稻幾盡胚胎, 晚稻始或胚胎, 木綿往往起花, 而消灑過半, 豆·太·木麥次第初耘, 而汚

下之田，傍川之畚，率多蹲縮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道內諸邑，屢經大漲之餘，今番之雨，比前倍濫頽壓渰沒之患，若是夥多，不勝驚心，今方分遣編裨，使之詳審是白在果。田畚各穀，三朔潦霖，無不受病，早晚黍·粟，則鋤役愆期，荒穢不茂，山田汰覆，沃野渟溜，莖葉萎枯，穗穎尖小，已判慘歉，至於木綿，自是旱草，耕播之初，雨暘不調，立種絕稀。僅僅餘存者，花窠腐落，尤無可觀，豆·太·木麥之晚耕者，穉苗軟葉，太半消灑，無望成實，而若其早播者，方張茁茂，頗有成就之望。禾穀段，幾番潦漲，沈墊埋覆之患，在在皆然，惟其高燥避水處，不無善就之漸，農家之倖望有秋者，惟此早播之豆·太，高燥之禾穀是白加尼。載寧等五邑，向日風雹之損，殆無餘地，而加以十三日之漲水，潰決漂頽，列邑大抵同然，各穀傷損，可以概想，言念民事，萬萬罔措是白如乎。嗣後農形及水災形止，待各邑摘奸與編裨回告，隨即登聞計料爲白乎旅。日候頗有霽意，故海州牧城門禱祭，今姑停止。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 및 빗물의 경위는 이미 연달아 아뢰었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봉산군의 경우 이번 7월 초9일 신시쫄 사인·만천·영천·미산 등 4개 방은 우박이 어지러이 내리다가 얼마 되지 않아 이내 그쳤는데, 우박의 형태는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총알만 하여 각종 곡식은 손상된 것이 많으며, 우박이 지나간 곳의 경우 길이는 25리, 너비는 5리가량입니다. 13일은 빗물이 낮부터 밤까지 줄곧 세차게 주룩주룩 내려 빗물이 쌓인 끝에 곱절이나 더 불어나 논밭과 들판은 곳곳에서 물결이 넘실거리고, 백성 집 또한 많이 무너졌는데, 도로가 통하지 않으니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캐내서 다시 긴급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비로 황주의 경우, 읍내 장대리는 지세가 기울고 낮은데 시내와 도랑이 범람하고, 성을 둘러싼 못의 물이 옆으로 터져 하나로 합쳐 지형이 조금 높은 곳까지 이르러 사람 집의 담 또한 들이쳐서 무너뜨리고 세차게 흐르니, 때는 저물녘인데 밭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는 상황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즉시 잘 타일러서 서로 이끌고 성안으로 들어와 밤을 지내도록 하고, 날이 밝은 뒤에 다시 가서 살펴보니 묵은 물이 아직 고여 있어 가장자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이니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상세히 캐내서 긴급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천의 경우, 고을 앞의 큰 시내가 갑자기 불어나 들이쳐서 무너진 백성 집이 100여 가구인데, 때는 깜깜한 밤이어서 밖으로 피할 수 없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9명이며,

거친 물결이 아래로 흘러 범람하며 옆으로 흐르니 조포의 백성 집 중 떠내려가 영영 형체나 흔적도 없는 집이 100여 가구이고, 그밖에 전부 무너지거나 절반 무너진 집이 또 156가구이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명인데, 지금 막 캐내서 상세히 긴급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산의 경우, 산골짜기 물이 갑자기 불어나 읍내 백성 집 80여 가구가 모두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6명이고, 상보산·금암 2개 방에서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이 또한 80여 가구이며, 먼 바깥의 각 방의 피해 경위는 모두 캐내서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련의 경우, 도리방 침곶촌은 설관산 아래에 있는데 갑자기 사태로 무너져 10집 사람 34명이 사태로 무너지는 곳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는데 크고 험한 바위와 돌들이 곧 언덕을 이뤘으므로 급하게 이웃 동네 백성들을 보내 힘을 합쳐 파냈는데, 그 중 10명은 다행히 나무와 돌이 버텨 비록 실낱같은 숨을 보존하고 있으나 아마도 되살아날 가망이 없을 듯하고, 나머지 깔려 죽은 사람 15명은 모두 뼈가 부서지고 살이 터졌으며, 9명은 아직 파내지 못했는데, 경위를 우선 긴급 보고한다고 하였습니다.

풍천의 경우, 시내와 도랑이 이리저리 넘쳐 읍내 백성 집 중 물에 잠기지 않은 집이 없어 무너질 근심이 많으며, 각 면의 피해 경위는 화창하게 맑기를 기다려 다시 살피고 작성해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화의 경우, 읍내 남쪽 시내의 둑이 터져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사람 집이 거의 200가구에 가깝고 불어난 물이 빠지지 않아 캐내서 다시 상세히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웅진·송화·은율·장연·안악·서흥·신계·토산·수안·곡산 등 10개 고을은 크고 작은 시내와 도랑이 불어나 넘치고 범람하여 도로가 통하지 않아, 백성 집 및 논밭의 피해 경위는 모두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다시 상세히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비로소 더러 익어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지금 막 알이 들고, 올벼는 간혹 이삭이 패고, 늦벼는 한창 이삭을 배고 있고, 목화는 비록 간간이 다래를 맺고 있지만 애당초 성숙한 모습은 없고, 콩·팥·메밀은 초벌 김매기를 거의 마쳤는데, 장맛비가 지나치게 넘쳐 밭곡식이나 논벼는 곳곳에서 물에 잠겨 녹아버린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지금 막 이삭이  
 패고, 올벼는 거의 다 알을 뻗고, 늦벼는 비로소 더러 이삭을 배고, 목화는 종종 꽃이  
 피는데 녹아버린 것이 절반을 넘고, 콩·팥·메밀은 차례로 김매기를 하는데, 지대가 낮은  
 곳의 밭이나 시냇가 논은 주저앉거나 오그라든 비율이 높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황해도 내 여러 고을은 여러 차례 큰물을 겪은 끝인데 이번의 비는 이전에 비해 곱절이나  
 넘쳐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빠져 죽을 근심이 이처럼 상당히 많으니, 놀라운 마음을  
 이길 수 없어 지금 막 비서를 나눠서 보내 상세히 살피게 하였습니다. 논밭의 각종 곡식은  
 3달 동안의 장마로 병들지 않은 것이 없고, 올기장·올조나 늦기장·늦조는 김매기 시기를  
 놓쳐 잡초로 황폐해져 무성하게 자라지 못하였고, 산의 밭은 사태로 뒤덮이고 비옥한  
 들판은 물이 고여 줄기와 잎이 시들어 마르고, 이삭은 끝이 작아 이미 참혹한 흉작으로  
 판가를 났고, 목화의 경우 본래부터 건조성 풀인데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 초기에 비와  
 별이 조화롭지 않아 싹이 돋은 씨앗이 매우 드물고 겨우겨우 남은 것이 있는데 꽃방이  
 썩어서 떨어져 더욱이 불만한 것이 없고, 콩·팥·메밀 중 늦게 간 경우 어린싹은 잎이  
 연해서 절반 이상이 녹아버려 열매가 영글 가망이 없고, 일찍 씨앗을 뿌린 경우 한창  
 싹이 자라 무성하여 여물 가망이 자못 많고, 벼의 경우, 몇 번의 큰비로 물이 불어나  
 잠기거나 문힐 근심은 곳곳에서 다 그러한데, 오직 높고 메마르거나 물을 피한 곳은  
 점점 잘 여물 가망이 없지 않으니, 농가는 요행히 추수할 것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이처럼 일찍 씨앗을 뿌린 콩·팥과 높고 메마른 곳의 벼였습니다. 그런데 재령 등 5개  
 고을은 지난날의 바람과 우박의 손상으로 거의 여지가 없었으며, 게다가 13일의 불어난  
 물로 둑이 터지고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기는 여러 고을이 대체로 같고, 각종 곡식의  
 손상은 대개 상상할만하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 및 수해의 경위는 각 고을에서 캐낸 것과 비소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기다려 곧바로 아뢴 계획입니다.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날씨가 개일 조짐이 자못 있으므로 해주목 성문영제는 지금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0. 1899년(광무 3) 7월 27일(양력 9월 1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204a~234b) /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20b~45a)

今七月十三日雨水, 道內各邑民家漂頽形止, 待摘奸報來, 更爲登聞計料緣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卽接各該邑所報是白乎, 則伊日大水, 到底汎濫. 平山府段, 邑內坊人物渰死爲五名, 而四名已拯得, 一名未拯得, 壓死爲一名, 民家全頽爲五十八戶, 半頽爲三十三戶. 上寶山坊人物壓死爲一名, 民家全頽爲二十戶, 半頽爲十六戶. 下寶山坊民家漂流爲四戶, 全頽爲十三戶, 金巖坊人物壓死爲一名, 民家漂流爲三十八戶, 全頽爲一百二十五戶, 半頽爲九戶. 安城坊民家漂流爲三戶, 全頽爲二十五戶, 半頽爲二戶. 花川坊民家全頽爲五戶, 文區坊民家漂流爲十二戶, 全頽爲六戶, 半頽爲三戶. 細谷坊民家漂流爲三戶, 全頽爲十九戶, 舟巖坊民家全頽爲六戶. 上西峯坊民家全頽爲四戶. 下西峰坊民家全頽爲三戶. 麟山坊民家全頽爲五戶. 外邑坊民家全頽爲四十戶, 半頽爲十八戶, 上月坊民家全頽爲二十九戶, 半頽爲六戶. 新邑坊民家全頽爲十七戶, 半頽爲二戶是如爲白乎旆. 豐川府段, 邑內坊民家全頽爲四十戶. 泉洞坊民家全頽爲十一戶是如爲白乎旆. 安岳郡段, 龍淵坊民家全頽爲十七戶, 半頽爲三戶. 大元坊民家全頽爲八戶, 半頽爲三戶. 順豐坊民家全頽爲三戶. 安谷坊民家全頽爲四戶, 半頽爲二戶. 板橋坊民家全頽爲四戶, 半頽爲一戶, 遠城坊民家全頽爲七戶. 長令坊民家全頽爲八戶, 半頽爲一戶. 小串坊民家全頽爲三戶. 屹紅坊民家全頽爲二戶, 半頽爲一戶. 大德坊民家全頽爲一戶. 文川坊民家全頽爲一戶. 涉河坊民家全頽爲六戶, 半頽爲一戶. 禾石坊民家全頽爲四戶是如爲白乎旆. 黃州牧段, 齊安坊人物渰死爲二名, 屍身拯得, 民家全頽爲三百四戶是如爲白乎旆. 瑞興府段, 中部坊人物渰死爲一名, 屍身拯得, 民家漂流爲二十五戶, 全頽爲一百戶, 半頽爲四十一名[戶]. 梅陽坊民家漂流爲十三戶, 全頽爲十三戶, 半頽爲十四戶是如爲白乎旆. 松禾縣段, 蓮花坊人物渰死爲五名, 而已拯得三名, 未拯得<二名>, 民家漂流爲二戶, 全頽爲二戶. 溫井坊民家漂流爲二戶, 全頽爲六戶. 長陽坊民家漂流爲一戶, 全頽爲四(四)戶. 龍門坊民家漂流爲六戶, 藥山坊民家全頽爲十六戶, 芳竹坊民家全頽爲三戶, 桃源坊民家全頽爲四戶是如爲白乎旆. 長連縣段, 道里坊人物壓死爲二十四名, 而二十三名已掘得, 一名未掘得, 民家全頽爲十戶. 縣內坊民家全頽爲二十六戶, 半頽爲十九戶. 東面坊民家全頽爲六戶, 半頽爲十三戶. 一道坊民家全頽爲四戶, 半頽爲六戶. 二道坊民家全頽爲十五戶, 半頽爲八戶是如爲

白乎旆. 新溪縣段, 沙伊谷坊民家全額爲十六戶. 赤巖坊民家全額爲十戶. 余背耳坊民家全額爲十六戶. 栗灘坊民家全額爲四戶是如爲白乎旆. 海州牧段, 披錦坊人物壓死爲一名, 民家全額爲一戶是如爲白乎旆. 谷山府段, 邑內坊人物淹死爲二名, 屍身拯得. 上圖坊人物淹死爲三名, 屍身拯得. 東村坊人物壓死爲一名是如爲白乎旆. 殷栗縣段, 北面坊民家漂流爲二戶, 全額爲一戶. 西面坊民家全額爲一戶. 邑內坊民家全〈額〉爲一戶, 半額爲四戶是如爲白乎旆. 文化縣段, 邑內坊民家漂流爲八戶, 全額爲一百二十戶, 半額爲三十五戶. 用旆坊民家全額爲十七戶, 半額爲四戶. 西部坊民家全額爲五戶, 半額爲十一戶. 茸川坊民家全額爲十三戶, 半額爲七戶. 弓村坊民家漂流爲三戶, 全額爲四戶. 葛山坊民家漂流爲九戶, 全額爲四十一戶是如爲白乎旆. 鳳山郡段, 舍人坊人物淹死爲二名, 屍身拯得. 地黃坊民家全額爲五十四戶. 楚邱坊民家全額爲一百一十一戶, 前此淹死未拯得七人中, 追拯得爲三名是如爲白乎旆. 菟山縣段, 邑內·多峙·泉洞等三坊, 伊日, 雨水, 酷被衝盪, 人物淹死爲五十餘名, 民家漂額爲二百餘戶, 而今方摘奸, 更爲詳細馳報計料是如乙仍于, 聞極驚慘, 纔已發遣褊裨, 使之摘奸爲白有如乎. 今番暴漲, 實是挽古罕有, 十三邑人物淹壓死爲四十九名, 民家漂額爲一千五百六十五戶, 半額爲二百七十戶是白如乎. 淹壓漂額之若是夥多, 事勢之蒼黃, 景色之慘沮, 言念民情, 不覺[慄]慄[慄]是白乎旆. 原恤典, 以各該邑所在常賑穀, 依例題給, 亦自臣營分遣褊裨, 一一慰撫, 別加顧助是白遣. 漂額戶段, 借材助丁, 俾卽結構. 淹壓死人已拯屍身段, 埋瘞之節, 從厚助給. 未拯屍〈身〉段, 期於搜拯之意, 連加申飭爲白乎旆. 半額戶段, 與全額有異, 容可修葺而入處, 故原恤典不爲舉論爲白乎旆. 鳳山郡楚邱坊, 前此淹死未拯得七人中三名屍身, 今始拯得, 故原恤典段, 一體舉論. 而淹壓死人役·姓名·年歲及漂額戶, 家舍間數區別, 後錄馳啓爲白去乎. 令該廳依例會減爲白乎旆, 餘外各邑, 待摘奸褊裨回告,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後[이하 생략]

이번 7월 13일 빗물로 황해도 낸 백성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경위는 캐낸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다시 아뢴 계획인 연유는 앞서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방금 각 해당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 큰물이 곳곳에서 범람하였는데, 평산부의 경우, 읍내방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5명인데 4명은 이미 시체를 건졌으나 1명은 건지지 못했으며



깔려 죽은 사람이 1명고,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8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3가구, 상보산방은 깔려 죽은 사람이 1명고,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0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6가구, 하보산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4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13가구, 금암방은 깔려 죽은 사람이 1명고,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38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125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9가구, 안성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3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25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가구, 화천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가구, 문구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12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6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가구, 세곡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3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19가구, 주암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6가구, 상서봉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 하서봉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 인산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가구, 외읍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0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8가구, 상월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9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6가구, 신읍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7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가구라고 합니다.

풍천부의 경우, 읍내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0가구, 천동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1가구라고 합니다.

안악군의 경우, 용연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7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가구, 대원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8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가구, 순풍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 안곡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가구, 판교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가구, 원성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7가구, 장령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8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가구, 소곶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 흘흥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가구, 대덕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 문천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 섭하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6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가구, 화석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라고 합니다.

황주목의 경우, 제안방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인데 시체는 건졌고,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04가구라고 합니다.

서흥부의 경우, 중부방은 제안방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명인데 시체는 건졌고,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25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100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41가구, 매양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13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13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4가구라고 합니다.

송화현의 경우, 연화방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5명인데 3명은 시체를 건졌으나 2명은 건지지 못했고,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2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2가구, 온정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2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6가구, 장양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1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 용문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6가구, 약산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6가구, 방죽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3가구, 도원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라고 합니다.

장련현의 경우, 도리방은 깔려 죽은 사람이 24명인데 23명은 이미 시체를 파냈으나 1명은 파내지 못했고,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0가구, 현내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26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9가구, 동면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6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3가구, 일도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6가구, 이도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5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8가구라고 합니다.

신계현의 경우, 사이곡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6가구, 적암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0가구, 여배이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6가구, 율탄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라고 합니다.

해주목의 경우, 피금방은 깔려 죽은 사람이 1명이고,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라고 합니다.

곡산부의 경우, 읍내방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인데 시체는 건졌고, 상도방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3명인데 시체는 건졌고, 동촌방은 깔려 죽은 사람이 1명이라고 합니다.

은율현의 경우, 북면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2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 서면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 읍내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4가구라고 합니다.

문화현의 경우, 읍내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8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120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35가구, 용머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7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4가구, 서부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11가구, 용천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3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7가구, 궁촌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3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4가구, 갈산방은 백성 집 중 떠내려간 것이 9가구·전부 무너진 것이 41가구라고 합니다.

봉산군의 경우, 사인방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명인데 시체는 건졌고, 지황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54가구, 초구방은 백성 집 중 전부 무너진 것이 111가구, 저번에 물에 빠져 죽었는데 시체를 건지지 못한 사람 7명 중 나중에 3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토산현의 경우, 읍내·다치·천동 등 3개 방은 그날 빗물로 혹독하게 휩쓸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50여 명, 백성 집 중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것이 200여 가구인데, 금방 캐내서 다시 상세하게 긴급 보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듣기에 그지없이 놀랍고 참혹하여 좀 전에 이미 비서를 파견하여 캐내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물이 불어났는데 정말로 이는 예로부터 드문 일입니다. 13개 고을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49명이고 백성 집 중 떠내려가거나 전부 무너진 것이 1,565가구·절반 무너진 것이 270가구입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과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집이 이처럼 매우 많으니, 일의 형세는 매우 급작스럽고 모습은 비참하니,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기본 구호는 해당 고을에 있는 상진곡을 규정대로 결정문을 주고, 또한 저의 감영에서 비서를 나눠서 보내 하나하나 위로하고 별도로 돌보아 도왔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의 경우, 재물을 빌려주고 일꾼을 도와 즉시 집을 짓도록 하고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 중 이미 시체를 건진 경우 매장하는 사항은 넉넉하게 도와주고 시체를 건지지 못한 경우는 기어이 뒤져서 건지라는 뜻으로 연이어 단단히 지시하였습니다. 집이 절반 무너진 가구의 경우, 전부 무너진 것과 차이가 있으니 수리하여 들어갈 만한 곳이 있으므로 기본 구호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봉산군 초구방은 이전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으로 시체를 건지지 못한 7명 중 3명의 시체를 지금 비로소 건졌으므로 기본 구호를 일체로 거론하니, 물에 빠져 죽거나 깔려 죽은 사람의 직역·성명·나이 및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진 가구는 집의 칸수를 구별하여 뒤에 죽 기록해서 긴급 보고합니다. 해당 진홀청에 지시하여 규정대로 회감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각 고을은 캐낸 비서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뒤[이하 생략]

## 0541. 1899년(광무 3) 7월 29일(양력 9월 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234b~234d) /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45a~45b)

道內農形, 已爲連續登聞爲白有在果. 卽接各邑所報, 則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間或刈取, 晚黍·粟·唐稷次第向熟, 而太半經枯, 成實無幾, 早稻已盡發穗, 晚稻間間發穗, 而沈墊汰覆者外, 庶有成就之望, 木綿餘存殘莖, 顆囊稀疏, 在在徑落, 豆·太·木麥, 今始起花是如爲白乎旂.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今始刈取, 食實無幾,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方張向熟, 早稻過半發穗, 晚稻幾皆胚胎, 而沈墊蹲縮者, 尙未蘇醒, 木綿間或結顆者, 輒爲腐落, 豆·太已畢初耘, 而木麥段立苗之際, 連經積潦, 受損居多是如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列邑農形, 備經水災, 毋論山野, 黍·粟木綿, 歉形已判, 所在同然. 豆·太段, 高燥田之早播者, 頗有成就之漸, 而若其漲水所過處, 全坪洗滌, 早晚各穀, 更無掛鎌之可論, 至於畚庫, 除其沈墊汰覆全棄處外, 近得日候調和, 不無蘇醒之望是白乎矣. 其中載寧·信川等數三邑, 專尙堰畚, 而酷被潰決, 尤爲悶然是白如乎. 嗣後形止, 更待報來,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황해도 내 농사 상황은 이미 연달아 아뢰었습니다. 방금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 기장·올조는 간혹 베어 거두고, 늦기장·늦조·수수는 차례로 익어가는데 절반 이상이 말라 버려 알이 영글 것이 거의 없고, 올벼는 이미 다 이삭이 뻗고, 늦벼는 간간이 이삭이 뻗는데 물에 잠기거나 사태로 뒤덮인 것 외에는 거의 여물 가망이 있고, 목화는 남아 있는 것이 줄기가 부실하고 꽃방이 드물며 곳곳에서 지레 떨어지고, 콩·팥·메밀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지금 베어 거두기 시작했는데 먹을만한 알맹이가 거의 없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속은 한창 익어가고 있고, 올벼는 절반 이상 이삭이 뻗고, 늦벼는 거의 다 이삭을 뻗는데 물에 잠겨 주저앉거나 오그라든 것은 아직 되살아나지 못했고, 목화는 간혹 맺은 다래가 문득 썩어 떨어지고, 콩·팥은 이미 초벌 김매기를 마쳤

고, 메밀의 경우 싹이 돋을 즈음에 연이어 장마로 홍수를 겪어 입은 손상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농사 상황의 경우, 갓가지로 수해를 겪어 산이나 들판을 따질 것 없이 기장·조·목화는 이미 흉작으로 판가름 났음은 곳곳에서 똑같고, 콩·팥의 경우 높고 메마른 밭에 일찍 씨앗을 뿌린 것은 자못 점점 여물어가고 있지만, 홍수가 지나간 곳의 경우 온 들판이 씻겨나가 각종 울곡이나 늦곡은 낫을 댄다고 따질만한 것이 다시는 없고, 논·논의 경우 물에 잠기거나 사채로 뒤덮여 전부 포기한 곳을 제외하고는 요즘 일기가 조화로워 되살아날 가망이 없지 않습니다. 그 중 재령·신천 등 두세 개 고을은 유독 보에서 물은 대는 논이 흑독하게 터져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42. 1899년(광무 3) 8월 4일(양력 9월 8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296a~296a) /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95b~95b)

臣營下今八月初三日巳時，始雨，或霏或灑，亥時至乃止，測雨器水深爲一寸是白如乎。列邑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초3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해시에 이르러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였습니다. 여러 고을의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43. 1899년(광무 3) 8월 7일(양력 9월 11일)

各司謄錄 24책, 黃海監營狀啓謄錄 21책(297b~297b) / 黃海監營狀啓謄錄 22책(97b~98a)

臣營下今八月初三日，得雨一寸緣由，纔已馳啓爲白有在果。連接各邑所報，則伊日之雨，海州·康翎·文化·鳳山等四邑，得一犁，延安得二鋤，白川得一鋤是如。爲等如，牒呈是白置有亦。餘外列邑〈得雨〉形止，待其報來，鱗次登聞計料。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저의 감영에 이번 8월 초3일에 내린 비가 1치인 연유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해주·강령·문화·봉산 등 4개 고을은 1려가 내렸고, 연안은 2서가 내렸고, 배천은 1서가 내렸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여러 고을의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 0544. 1899년(광무 3) 8월 9일(양력 9월 13일)

各司臚錄 24책, 黃海監營狀啓臚錄 21책(298c~298d) / 黃海監營狀啓臚錄 22책(100a~101a)

今八月初三日之雨, 海州等六邑得雨形止,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連接各邑所報, 則伊日之雨, 黃州·瑞興得二鋤, 安岳·長連得一鋤是如爲白乎旆. 農形段,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安岳·長連·殷栗·延安·白川等十三邑, 早黍·粟已盡收穫, 晚黍·粟·唐稷, 始或刈取, 早稻方張入實, 晚稻幾盡發穗, 次第入實, 木花今始綻綿, 餘存旣稀, 豆·太·木麥, 今方結殼. 而海州·襄津·松禾·豐川等四邑, 晚移禾稻, 蟲損非細, 間多蹲縮是如爲白乎旆.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早黍·粟幾皆刈取, 晚黍·粟·唐稷及山田火粟, 過半成熟, 早稻今方入實, 晚稻方張發穗, 木花間或綻綿, 結窠無幾, 豆·太·木麥, 間間結殼. 而谷山府段, 發穗之晚稻, 亦多蟲蝕之患是如. 爲等如, 牒呈是白置有亦. 今番水災, 全棄處外, 餘存之早晚禾稻豆·太·木麥, 近因日候調和, 不無蘇醒之望是白乎乃, 海州等五邑之蟲損, 爲害不少, 節序漸晚, 涼意甚驟, 言念民事, 誠甚憂悶是白乎旆. 嗣後形止, 更待邑報, 鱗次登聞計料. 緣由竝以馳啓爲白臥乎事.

이번 8월 초3일의 비로 해주 등 6개 고을에 비가 내린 경위는 좀 전에 이미 긴급 보고하였습니다. 연이어 각 고을의 보고를 접수해 보니, 그날의 비로 황주·서흥은 2서가 내렸고, 안악·장련은 1서가 내렸다고 합니다.

농사 상황의 경우,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안악·장련·은율·연안·배천 등 13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이미 다 수확하였고, 늦기장·늦조·수수는 비로소 더러 베어 거두고, 올벼는 한창 알이 들고 있고, 늦벼는 거의 다 이삭이 패서 차례로 알이 들고, 묵화는 지금 숨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남아 있는 것이 이미 드물고, 콩·팥·메밀은 지금 막 꼬투리를 맺는데, 해주·웅진·송화·풍천 등 4개 고을은 늦게 옮겨 심은 벼가 벌레의 손상이 적지 않고 그사이에 주저앉거나 오그라든 것이 많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올기장·올조는 거의 다 베어 거뒀고, 늦기장·늦조·수수 및 산전의 화숙은 절반 이상 성숙하였고, 올벼는 지금 막 알이 들고, 늦벼는



한창 이삭이 패고 있고, 목화는 그사이에 더러 숨이 터지는데 꽃방을 뺏은 것이 얼마 없고, 콩·팥·메밀은 간간이 꼬투리를 뺏는데, 곡산부의 경우, 이삭이 꽤 벼도 또한 벌레가 먹는 근심이 많다고 하며 문서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수재로 전부 포기한 곳 외에 남아 있는 올벼·늦벼와 콩·팥·메밀은 요즘 일기가 조화로운 탓에 되살아날 가망이 없지 않습니다. 해주 등 5개 고을의 벌레 손상은 피해가 적지 않고 절기가 점점 늦어지는데 서늘한 조짐이 매우 빠르니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정말로 매우 근심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후 경위는 다시 고을의 보고를 기다려 잇따라 아뢴 계획입니다. 연유를 아울러 긴급 보고합니다.

0545. 1897년(광무 1) 4월 14일

度支部編 99책(규장각 18154) / 公文編案 75책, 021a-021b

觀察使閔泳喆, 建陽二年四月十四日, 第三十一號報告

府下四月十三日巳時에 始雨 ㄸ야 或霏或灑 ㄸ야 當日戌時에 乃止, 測雨器水深이 爲一寸七分이다온. 各郡得雨形止는 待其狀來 ㄸ야 鱗次報告計料 ㄸ오니 查照 ㄸ시믈 望 ㄸ

황해도 관찰사 민영철, 건양 2년 4월 14일, 제31호 보고

관찰부에 4월 13일 사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당일 술시가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1치 7푼이었습니다. 각 군에 비가 내린 경위는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보고할 계획입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0546. 1898년(광무 2) 4월 20일

度支部編 99책(규장각 18154) / 公文編案 52책, 015b-016a

光武二年四月二十日 觀察使金嘉鎮 第二十八號報, 各郡農形報를 接准호은즉 海州·康翎·襄津·長淵·松禾·豐川·信川·文化·長連·延安·殷栗·白川等十三邑, 秋麴小麥은 今始推芽호고 春麴는 次第耕播이다오며, 載寧·黃州·鳳山·瑞興·遂安·谷山·新溪·兔山·金川·平山等十邑 秋麴은 方張脫勝호고 春麴은 間或播種이다이온바 清明이 已過호고 東作이 伊始에 勸課之政은 不容少忽이옴기로 另飭列邑호야 借牛勸耕호며 分糶助糧호야 期於各盡其力호야 無或失時호고 築堰防洩와 貯水蒙利節을 亦令着意舉行之意로 一體嚴飭호오며 府下今十九日卯時始雨, 或霏或霖에 當日亥時乃止, 而測雨器水深이 爲二寸五分이다온. 嗣後農形은 待其報來호야 鱗次報告計料호오니 查照호시를 要함.

광무 2년 4월 20일, 관찰사 김가진, 제28호 보고

각 군의 농사 상황 보고를 접수해 보니, 해주·강령·웅진·장연·송화·풍천·신천·문화·장련·연안·은율·배천 등 13개 고을은 가을보리·가을밀은 지금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봄보리는 차례로 땅을 갈아 씨앗을 뿌린다고 하며, 재령·황주·봉산·서흥·수안·곡산·신계·토산·금천·평산 등 10개 고을은 가을보리는 한창 싹이 트고 있고, 봄보리는 간혹 씨앗을 뿌린다고 합니다. 청명이 이미 지났고 봄농사가 시작되어 농사일을 권장하는 정책은 조금도 소홀할 수 없기에 별도로 여러 고을에 지시하여 소를 빌려주어 갈기를 권장하며 환곡을 나눠주어 양식을 도와 기어이 각각 히을 다하여 흑시라도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독을 쌓고 보를 막아 물을 저장하여 물대기에 이롭게 하는 사항 또한 유념해서 거행하도록 하라는 뜻을 일체로 엄중히 지시하였으며, 관찰부에 이번 19일 묘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당일 해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5푼이었습니다. 이후의 농사 상황은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잇따라 보고할 계획입니다. 살펴보시기를 요청합니다.

0547. 1898년(광무 2) 7월 24일

度支部編 99책(규장각 18154) / 公文編案 52책, 021a

光武二年七月二十四日 觀察使李垠鎔 第六號報,

府下今月二十二日得雨二寸六分은 已爲報告이홀건과 今二十三日卯時又雨 ㄱ야 或霏或霏  
ㄱ야 二十四日辰時乃止, 測雨器水深이 爲二寸一分이옴기 玆에 報告 ㄱ오니 查照 ㄱ시믈  
望 ㄱ.

광무 2년 7월 24일, 관찰사 이은용, 제6호 보고

관찰부에 이번 달 22일에 내린 비가 2치 6푼인 것은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23일  
묘시에 또 비가 내렸는데 더러 부슬부슬 내리거나 더러 주룩주룩 내리다가 24일 진시에  
이내 그쳤는데 측우기 수심은 2치 1푼이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  
다.

0548. 1898년(광무 2) 8월 5일

度支部編 99책(규장각 18154) / 公文編案 52책, 022a

光武二年八月五日 觀察使李垠鎔 第八號報告,

府下今月四日丑時始雨<sup>ㄱ</sup>야 或霪或灑<sup>ㄱ</sup>야 五日辰時至, 測雨器水深이 爲六寸二分이<sup>ㄱ</sup>옴기  
茲에 報告<sup>ㄱ</sup>오니 查照<sup>ㄱ</sup>시믈 望<sup>ㄱ</sup>흞.

광무 2년 8월 5일, 관찰사 이은용, 제8호 보고

관찰부에 이번 달 4일 축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5일 진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6치 2푼이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0549. 1898년(광무 2) 8월 12일

度支部編 99책(규장각 18154) / 公文編案 52책, 025a

光武二年八月十二日 觀察使李垠鎔 報第十號,

府下今八月五日得雨六寸二分은 前已報告이호건과 今十日未時始雨 ㄱ야 或霏或灑 ㄱ야 十二日午時至, 測雨器水深이 爲七寸九分이옵기 玆에 報告 ㄱ오니 查照 ㄱ시믈 望함.

광무 2년 8월 12일, 관찰사 이은용, 제10호 보고

관찰부에 이번 8월 5일에 내린 비가 6치 2푼인 것은 앞서 이미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10일 미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더러 주룩주룩 내리거나 더러 뿌리다가 12일 오시에 이르렀는데, 측우기 수심은 7치 9푼이었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발행인	박수희
총괄	김은영
기획	김재영
책임번역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공동번역	이상식·유성국·오연숙
출판편집	덕성여자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감수	조윤선(전주대학교)·김상환(고문헌연구원)
제작	흐름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1876-01
ISBN	979-11-6988-375-7(93450)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발행처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a href="https://science.kma.go.kr/museum">https://science.kma.go.kr/museum</a>
자료협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 비매품

© 국립기상박물관

©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국립기상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활용 가능합니다.

출간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립기상박물관

National Meteorological Museum of Korea

